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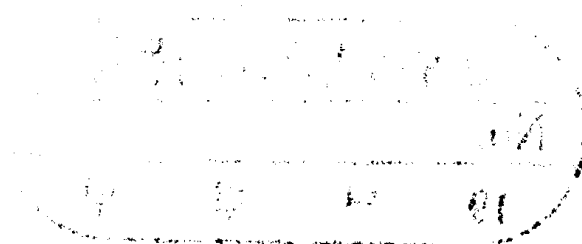


韓國 海洋文學 研究

— 漂海類 作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Sea Literature

— With a Special Reference on Drift Story Works



建國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尹 致 富

尹致富의
文學博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審 查 委 員

委 員 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1992年 6月 26日

建國大學校 大學院

目 次

I. 序論	1
1. 問題의 提起	1
2. 海洋文學의 領域과 成立	4
3. 研究對象 및 方法	13
III. 漂海類 作品의 概觀과 分析	17
1. 記事類	17
〔1〕 朝鮮王朝實錄 所載	17
(1) 梁成 일행의 漂流記	17
(2) 肖得誠 일행의 漂流記	26
(3)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31
(4) 李暹 일행의 漂流記	44
(5) 楊廻伊의 漂流記	48
(6) 金紀孫 일행의 漂流記	51
〔2〕 燕行錄選集 所載 崔溥의 漂海錄	54
〔3〕 稗官雜記 所載 朴孫 일행의 琉球風土記	63
〔4〕 晝永編 所載 高商英의 漂流記	66
〔5〕 海行摠載 所載 李志恒의 漂舟錄	71
〔6〕 張漢喆의 漂海錄	75
〔7〕 燕巖集 所載 書李邦翼事	80
〔8〕 柳菴叢書 所載 文淳得 일행의 漂海錄	85
〔9〕 罷睡篇 所載 崔斗燦의 乘槎錄	89
〔10〕 心田稿 所載 金光顯 일행의 耽羅漂海錄	96
〔11〕 燕輶直指 所載 濟州漂人問答記	99
〔12〕 朴元良의 漂民對話	103

2. 文獻說話類	108
〔1〕 三國遺事 所載	108
(1) 延烏郎 細烏女	108
(2) 敏藏寺	110
〔2〕 於于野譚 所載	111
(1) 權可述者恭僖大王朝武士也	111
(2) 萬曆甲寅東海漁人二十人	112
(3) 李芝峰晬光爲安邊府使	113
3. 創作類	115
〔1〕 赴南省張生漂大洋	115
〔2〕 識丹丘劉郎漂海	117
4. 歌辭類	119
〔1〕 李邦翼의 漂海歌	120
〔2〕 趙熙百의 도학가	125
Ⅲ. 漂海類 作品의 綜合的 考察	128
1. 著作方法	128
〔1〕 著述過程	128
〔2〕 傳承變異	130
2. 構成技法	132
〔1〕 日記體的 構成	132
〔2〕 路程記的 構成	133
〔3〕 風土記的 構成	134
〔4〕 問答體的 構成	135
〔5〕 說話的 構成	135
3. 狀況認識	135
〔1〕 우리 나라의 狀況	135
〔2〕 中國의 狀況	137
〔3〕 日本의 狀況	139
〔4〕 琉球의 狀況	141

〔5〕 安南의 狀況	142
〔6〕 呂宋의 狀況	143
4. 海洋觀의 表象	144
〔1〕 우리 民族의 海洋觀	144
〔2〕 外國人의 海洋觀	147
〔3〕 海洋文學的 位相	148
IV. 結論	150
Abstract	154
參考文獻	156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한국문화의 원류는 대륙문화적 北方文化와 해양문화적 南方文化를 그 기저로 한다. 흔히 우리는 북방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田作, 太陽神話, 山嶽·樹木·岩石崇拜 등의 애니미즘(Animism), 샤머니즘(Shamanism) 등을 든다. 조·보리 등의 원산지는 近東의 고원지대로 전작은 북방기원의 농경법이다. 태양숭배는 이집트에서 이미 왕조시대에 왕은 태양 또는 태양의 아들(Pharaoh)로 숭배되었고, 알타이족에도 널리 있었던 것으로 오랜 기록으로서는 《史記》匈奴列傳에 ‘單于朝出營拜日之始生 夕拜月 其坐長左耳北鄉’이라 하여 아침에 해를 예배했다는 그것이 이를 입증한다. 산악숭배로서는 ‘白山[白山]’이란 山名이 각지에 많이 있음이 이를 증명하는데 太白山·小白山 등이 그것으로 백두산이 민족의 聖山으로 숭앙되고 있는 것은 이의 흔적이다. 수목숭배는 神木·神竿 등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암석숭배는 立石·巨石·祈子岩 등의 신앙에서 나타난다. 샤머니즘은 퉁구스족·몽고족·터어키족 등의 알타이족 외에 옛 아시아족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服飾이나 白衣 숭상 등도 북방문화적 요소들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 보이는 여인들의 옷차림은 저고리의 소매가 좁고, 아래에는 남녀가 다 같이 바지를 입었는바 기후가 추운 북방의 모습들이다. 백의 숭상도 蠶桑에 의한 絹布와 麻布를 재료로 사용하였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방민족들이 의복에 다양한 문양을 염색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와는 달리 稻作, 文身 등의 습속은 남방문화적 요소로 설명된다. 《三國志》魏志東夷傳에 의하면 馬韓條에 ‘其民土著種稻’와 辰韓條에 ‘宜種五穀及稻’라 하여 도작이 마한과 진한의 남부에만 있었던 것을 알게 하는데, 부여·고구려·옥저·동예조에는 도작의 記事가 없다. 또한 같은 책 마한조에는 ‘其男子時時有文身’이라 하였고 진한조에도 ‘男

女近倭亦文身'이라고 한 기록이 있어 문신이 남방문화의 습속임을 알게 한다.¹⁾

이와 같이 한국문화는 북방문화적인 것과 남방문화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륙문화적 북방문화의 성격 규명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들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해양문화적 남방문화의 성격 규명은 미약한 실정이다. 물론 그것은 한국문화의 주가 북방문화적인 요소이고 종이가 남방문화적인 요소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바다가 주요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점차 문화 전래의 주요한 구실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속에 놓여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해양문화는 서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니 한반도와 외부를 연결시키는 서해 항로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서해안에서 발해만을 거쳐 화북지역에 닿는 북방항로로 이 뱃길은 항해술과 조선술이 덜 발달했던 시대에 사용되던 연안항로이다. 두 번째가 한반도의 중부 남양만 등을 떠나 맞은편 산둥반도 登州 등으로 들어가는 서해 횡단항로이며, 셋째가 서남해안에서 중국 양자강 이남지방으로 연결하는 남방항로로 고도의 항해술이 필요할 뿐더러 위험부담이 많아 가장 늦게야 개발되었다.

따라서 우리 문화는 중국 북부와 중부, 그리고 만주의 서남부 등과 함께 황해문화권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연해주 남부, 일본열도와는 동해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남해의 용이한 해상조건을 이용해 일본열도로 진출 일본문화 형성에 기틀을 이루었으며, 동중국해를 징검다리로서 하여 남중국해를 거쳐 가까이는 동남아시아, 멀리는 인도 등의 남방문화권과도 교류관계를 가졌다. 더욱이 일본 正倉院에서 발견된 유리제품들은 신라인들이 아라비아 상인들과 직접 교류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경주 부근에 흩어져 있는 신라고분인 金冠塚·金鈴塚·瑞鳳塚·天馬塚·黃南洞 98호고분 등에서 출토된 로마형 유리구들이 신라와 아라비아의 교류사를 입증한다. 사실 고려 顯宗 15년(1024)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 恭讓王 3년(1391)에는 暹羅國〔泰國〕 사신이, 조

1)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Ⅰ, 民族·國家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65, pp.332~356.

선조 太宗 6년(1406)에는 爪哇國[인도네시아]²⁾ 사신이 통교를 해 오고 있다.³⁾

바로 이러한 사실은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문학은 한국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 별개로 유리해서는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문학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몫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지어 바다를 주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假漁翁’이니 ‘江湖歌道’ 등이니 하는 식으로 파악하여 바다의 의미를 무화시킴으로써 한국문학의 해양문학적 성격을 논의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이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관비평에 치우친 자세였으며, 마치 한 시대를 풍미하던 유학사상과 같은 지배이데올로기가 마치 한국인의 총체적 문화배경인양 파악하는 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 신화의 경우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는 그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 준다. 북방계 신화의 경우 神異의 탄생 모티브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하강하는 모티브로 되어 있는데, 檀君神話의 桓雄, 東明王神話의 解慕漱 등이 이에 속한다. 이때 하강하는 주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런가 하면 단군신화에 있어서와 같이 곰 토데미즘은 북방아시아 여러 민족에 보편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북방문화의 한 분포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방계 신화의 경우 朴赫居世·金首露王 신화에서는 건국시조가 직접 천상계에서 내려온 卵이나 匏 속에서 어린아이로서 탄생하고 있다. 즉 卵生神話는 대단히 널리 분포되어 있는 바 특히 남방 해양 민족에 많다. 특히 이들 북방계 신화나 남방계 신화들의 결혼은 남녀의 對偶가 하늘과 물로써 표현되어 있다.⁴⁾ 물의 경우 강이나 바다 등으로 나타나는 데 해모수와 柳花의 결합에서는 강이 혼사 장애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김수

2) 爪哇는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특히 자바〔ジャバ〕를 지칭한다. (眞境名安興, 《沖繩教育史要》, 沖繩書續販賣社, 1965, p.67.)

3) 崔常壽, “韓國과 南方諸國의 關係①”, 《月刊政友》, 國會議員同友會, 1989. 2, p.138.

4) 서울大學校東亞文化研究所 編, 《國語國文學事典》, 新丘文化社, 1981, p.382.

로왕과 인도 阿踰陀國의 許黃玉과의 혼인에서는 渡海 모티브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雙魚文 등은 단적으로 해양문화적 성격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 제주의 三姓神話는 三乙那가 地中湧出하여 碧浪國의 세 공주와 혼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김수로왕 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양문화적 성격을 말해 주는 좋은 실례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필자가 해양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된다. 특히 우리 학계에서는 해양문학에 대한 용어 설정마저 문제시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한국문학 작품 중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은데 표해류 작품들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이나 아직까지 표해류 작품 전반에 걸친 종합적 연구는 그 누구도 시도한 바 없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한국문학에서의 해양문학을 하나의 문학적 흐름으로 파악하고 우리 민족의 심성의 바탕과 사유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의 지평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海洋文學의 領域과 成立

지금까지 한국문학에서 海洋文學(sea literature)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통일성 있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그 개념 정의가 각양각색이다. 李熙昇은 ‘해양을 주제로 한 문학’이라고 하여⁵⁾ 그 폭을 좁게 했는가 하면 申琦澈·申瑢澈은 ‘바다를 대상으로 쓴 문학, 또는 바다가 작품 가운데에서 주제로 된 문학’이라고 하여⁶⁾ 좀더 폭 넓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글학회 편 의 《우리말 큰사전》⁷⁾에서는 바다의 자연이나 체험을 소재로 하는 문학이라고 하여 그 의미를 더 넓게 확장시키고 있다.

처음으로 해양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한 崔康賢은 처음에는 ‘바다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바다가 작품 가운데에서 주제를 이루어 쓰여진 문학작

5)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p.4153.

6)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8, p.3671.

7)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3, 어문각, 1992, p.4584.

품'이라는 개념으로 해양문학을 논의했다가⁸⁾ 나중에는 '해양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을 전부 포함한다고 한 것은 따르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는 우리 고전문학 작품 중에는 한 편의 작품 가운데에서 바다가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는 예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해양문학 작품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여⁹⁾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문학에 관한 개념들을 종합하면 협의로는 '바다를 주제로 한 문학'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고, 광의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거나 바다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문학으로 바다가 작품 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은 전부 포함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만을 해양문학의 개념으로 정의하기에는 각기 문제점들이 없지 않는데, 전자는 자칫 해양문학의 범위를 너무 축소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후자는 해양문학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여 그 개념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해양문학의 개념을 첫째 바다가 작품 중에서 주제로 한 문학이고, 둘째 바다를 주요 대상과 배경으로 하는 문학이고, 셋째 바다에서 직접 취제한 문학 작품이고, 넷째 바다 그 자체의 자연미가 대상이 되는 문학이고, 다섯째 인간이 바다에 대한 동경이나 모험적 본능이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 용어가 간헐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니 鄭炳昱은 張漢喆의 <漂海錄>을 설명하면서 우리 문학에 해양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목록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하였는가 하면,¹⁰⁾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 편인 <國語國文學事典>에서도 표해록은 본격적인 기록물로서 특히 해양문학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된다고 기술하고 있다.¹¹⁾ 또한 許雄·朴智弘도 장한철의 <표해록>은 국문학사에서 유일의 해양문학 작품이라고 하여 중편 구소설로 보고 있을¹²⁾ 뿐만 아니라 全圭泰·崔德源·崔康賢·張德順 등도 해양문학

8) 최강현, "한국 해양문학 연구: 주로 표해가(漂海歌)를 중심으로", 《省谷論叢》第12輯, 省谷學術文化財團, 1981, p.236.

9) 崔康賢, "한국 기행문학 연구: 주로 조선시대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1, p.53.

10) 鄭炳昱, "漂海錄 解題", 《人文科學》第六輯, 延世大學校, 1961, p.191.

11) 서울大學校東亞文化研究所 編, 앞의 책, p.655.

12) 허웅·박지홍 엮음, 《국어국문학사전》, 일지사, 1971, p.294.

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¹³⁾ 그 중에서도 장덕순은 표해록 작품을 해양문학의 백미라고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尹貴燮은 한 발 더 나아가 海洋歌辭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양과 도서생활을 그린 작품을 지칭한다고 하여 鄭澈의 〈關東別曲〉, 曹友仁의 〈出塞曲〉·〈關東續別曲〉, 魏世寶의 〈金塘別曲〉,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朴淳愚의 〈金剛別曲〉, 작자 미상의 〈觀東海歌〉, 안조원의 〈萬言詞〉, 金鎭衡의 〈北遷歌〉, 鄭來翼의 〈鄭處士述懷歌〉 등을 들고 있다.¹⁴⁾ 물론 이와는 성격상 다를지 모르나 漂海歌辭[漂流歌辭]라는 용어의 사용도 보이는데¹⁵⁾ 결국 이들은 해양문학을 뜻하는 용어들이다.

우리 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우리들보다 일찍이 해양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¹⁶⁾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海洋小說(Sea Novels)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여 콘라드(Joseph Conrad)나 쿠퍼(James Fenimore Cooper) 같은 작가들을 해양소설 작가로 설명하고 있다.¹⁷⁾ 바로 이러한 사실은 해양문학의 성립을 말해 주는 실례들이라 할 것이다.

사실 서양에서의 해양문학 작품은 훨씬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이스에서는 호메로스(Homeros)의 〈오딧세이아〉, 아폴로도로스(Apollodoros)의 〈金羊毛의 탐구〉, 페르시아의 〈아라비안 나이트〉의 〈뱃사공 신디바드의 모험〉, 이스라엘의 〈舊約聖書〉의 〈요나서〉 등은 적어도 6세기 이전 작품들이다.

13) ① 全圭泰, “海洋文學과 바다의 詩的 意味”, 1980.

② 崔德源, “文淳得의 漂海錄 研究: 琉球 및 呂宋 漂流記”, 《論文集》第14輯, 木浦海洋專門大學, 1980, p.1.

③ 崔강현, 앞의 글.

④ 張德順, “海洋文學의 白眉 漂海錄”,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14) 尹貴燮, “歌辭文學에 나타난 海洋과 島嶼”, 《同大語文》第二輯, 同德女子大學國語國文學會, 1972, pp.3~16.

15) 姜銓燮, “李邦翼의 「漂海歌」에 對하여”, 《韓國言語文學》第20輯, 韓國言語文學會, 1981, p.112.

16) 多田憲一, 《海洋文學ノト》, 高山書院, 1943. (崔강현, 앞의 글, p.236.에서 재인용)

17) ① 金秀宗, “Joseph Conrad 小説의 人間實存 問題”,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p.1.

② James T. Callow & Robert Jeilly, *Guide to American Literature from its Beginning through Walt Whitman*,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6, p.85.

근대에 접어들면서는 영국에서 많은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데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1719),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1726), 콜리지(Samuel Tayler Coleridge)의 《늑은 선원》(1797),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의 《해적》(1814), 다아윈(Charles Robert Dawin)의 《비이글호 항해기》(1839), 킹슬리(Charles Kingsley)의 《서방으로》(1855),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의 《보물섬》(1883),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일곱 개의 바다》(1896), 콘라드의 《나시서스호의 흑인》(1897) · 《로드집》(1900) · 《칭춘》(1902) · 《태풍》(1903) 등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미국문학에서도 쿠퍼의 《붉은 해적》(1828) · 《스파이》(1921) · 《벳길 안내인》(1924), 포우(Edgar Allan Poe)의 《큰 소용돌이에 삼켜어》(1841), 멜빌(Herman Melville)의 《白鯨》(1851),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노인과 바다》(1952) 등을 들 수 있으며, 프랑스문학에서도 로티(Pierre Loti)의 《氷島の 어부》(1886), 베른(Jules Verne)의 《海底 이만리》(1870) · 《십오 소년 표류기》(1888) 등이 대표적인 해양문학 작품이다.

한국문학에서도 바다를 주요 대상과 배경으로 하여 바다가 작품 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지금 문헌상 최초의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三國遺事》卷第二에 수록된 〈海歌〉이다. 신라 聖德王 때 純貞公의 아내 水路夫人이 海龍에게 납치되어 가자 그곳 백성들이 수로부인을 구하려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며 해룡을 위협하는 노래를 불렀더니 부인을 돌려보냈는데, 그것은 노래에 논리성이 있어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¹⁸⁾ 〈龜旨歌〉와 비슷하나 한 구의 자수가 배 가까이 늘어나서 그 내용도 더욱 구체적이고 수식이 늘어났으며, 〈구지가〉가 산을 배경으로 한다면 〈해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

다음 한시 작품으로는 崔致遠의 〈泛海〉, 郭預의 〈感渡海〉, 朴孝修의 〈興海松羅途中觀海濤〉, 鄭夢周의 〈渡渤海〉, 權近의 〈航萊州海〉, 崔有海의 〈行舟〉,

18) 李丙疇, 《韓國 漢詩의 理解》, 民音社, 1987, p.38.

申光洙의 〈潛女歌〉 등도 바다를 주요 대상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다.¹⁹⁾ 이외에 가사 작품으로는 朴仁老의 〈船上嘆〉, 李邦翼의 〈漂海歌〉, 趙熙百의 〈도

- 19) ① 崔致遠의 〈泛海〉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掛席浮滄海 長風萬里通 乘槎思漢使 採藥憶秦童 日月無何外 乾坤太極中 蓬萊看咫尺 (《국역고운선생문집》하)

- ② 郭預의 〈感渡海〉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扶桑之海遠不極 萬里蒼蒼接天色 有夷生奇海中央 本道纔通變難測 聖明本自置度外 邊將貪功謀欲得 受命東征自往年 東南師期在六月 千艘駕浪會一岐 十丈風帆欲折 相望涉夏不交鋒 辛苦何須爲君說 炎氣瘴霧熏着人 滿海浮屍冤氣結 望舒虧盈湖落生 九月已當三十日 是時八極顛風來 擊碎蒙衝何大疾 蒼皇誰借千金壺 枉教壯士深蛟室 哀哉十萬江南人 攀依絕嶼赤身立 如今恨骨與山高 永夜霸魂向天泣 當時將帥苦生還 念此能無增鬱悒 壯哉萬古烏江上 恥復東歸棄功業 (《東文選》卷之六 七言古詩)

- ③ 朴孝修의 〈興海松羅途中觀海濤〉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颶風吹起翻滄溟 千小相兼晦且冥 銀山萬孕低復屹 百千雷鼓同一聲 扶桑將漂地軸動 龍王坐愁宮殿傾 波臣搖蕩水族亂 誰之所爲鯤與鯨 安得杖我倚天劍 一揮鱗甲雪碎輕 直教東海浮如練 復瞻白日函清明 蛟螭蝦蟹樂得所 游泳聖澤之冷冷 (《東文選》卷之六 七言古詩)

- ④ 鄭夢周의 〈渡渤海〉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之罘山下片帆張 不覺須臾入渺茫 雲接蓬萊仙闕遠 月明遼海客衣涼 百年天地身如粟 兩字功名鬢欲霜 何日長歌賦歸去 蓬聽終日寸心傷 (《東文選》卷之十六 七言律詩)

- ⑤ 權根의 〈航萊舟海〉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十丈風帆萬斛船 雲開蒼海渺無邊 星垂雪浪相涵映 水拍銀河共接連 可向半洋悲士 不須三島問群仙 舟中偃仰堪乘興 自是浮槎便上天 (《東文選》卷之十七 七言律詩)

- ⑥ 崔有海의 〈行舟〉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遠客思歸苦 今朝動順風 鷄鳴滄海上 人語水雲中 暝指長山迤 高瞻石島雄 何時遼路靖 策馬向吳東 (《默水堂先生文集》〈東槎錄〉卷之二)

- ⑦ 申光洙의 〈潛女歌〉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 土俗婚姻重潛女 父母誇無衣食憂 我是北人聞不信 奉使今來南海遊 城東二月風日暄 家家兒女出水頭 一楸一筇一匏子 赤身小袴何曾羞 直下不疑深青水 紛紛風葉空中投 北人駭然南人笑 擊水相戲橫乘流 忽學鳬雛投無處 但見匏子輕水上浮 斯須湧出碧波中 急引匏繩以腹留 一時長嘯吐氣息 其聲悲動水宮幽 人生爲業何須此 爾獨貪利絕經死 豈不聞陸可農蠶山可採 世間極險無如水 能者深入近百尺 往往又遭飢蛟食 自從均役罷日供 官吏雖云與錢覓 八道進奉走京師 一日幾馱生乾鰓 金玉達官庖 綺羅公子席 豈知辛苦所從來 纔經一嚼安已推 潛女 潛女 爾雖樂 吾自哀 奈何戲人性命 累吾口腹 嗟吾書生 海州青魚亦難喫 但得朝夕一饌足 (《石北集》卷七)

히가), 金漢弘의 〈海遊歌〉,²⁰⁾ 작자 미상의 〈觀東海歌〉, 12가사의 하나인 〈漁父詞〉 등이 있으며, 시조 작품으로도 李賢輔의 〈漁父詞〉, 尹善道の 〈漁父四時詞〉, 金壽長의 〈滄海乘船歌〉 등을 비롯해 많은 작품들이 있다. 또한 수필 작품으로도 洪翼漢의 〈朝天航海錄〉, 趙澱의 〈朝天錄〉·〈朝天日乘〉, 작자 미상의 〈水路朝天錄〉 및 많은 〈海槎錄〉류 작품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口傳文學 작품 가운데서도 바다를 주요 대상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구전설화 작품으로는 〈潮水說話〉나 〈海水의 旣 理由〉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 중 〈조수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다 가운데에는 큰 미여기[大麗]가 있다. 그것은 海底에 있는 큰 구멍 속에 棲息하므로 그것이 穴中으로부터 나오면 海水가 그 구멍 속으로 들어 가므로 退潮가 되고 反對로 그것이 穴中으로 들어가면 出潮가 된다. 만일 그것이 몸을 激動하면 海溢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²¹⁾

원래 우리 고유의 설화가 아니라 중국 설하이던 것이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晉代에 이와 동일한 설화가 민간에 성행하였음을 晉周處의 〈風土記〉를 통해 알 수 있다.

俗說鯢一名海鱓 長數千里 穴居海底 入穴則水溢爲潮 出穴則水入潮退 出入有節 故潮水有期²²⁾

뿐만 아니라 민요 가운데 〈잠녀노래〉나 〈벚노래〉, 문헌설화 가운데 《삼국유사》의 〈居陀知說話〉·〈栢栗寺說話〉²³⁾나 《東野彙輯》의 〈南國接仙娥謀歸〉 등도 바다가 작품 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거나 배경이 되는 작품들이다. 또한 신시나 현대시·현대소설 작품에서도 바다를 주요 대상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

20) 朴魯璋, 「海遊歌」(一名 西遊歌)의 世界認識, 《韓國學報》第六十四輯, 一志社, 1991.

21)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p.76.

22) 《太平御覽》卷六十八 地部 潮水條

23) 釋一然, 《三國遺事》卷第三

이 적지 않다.²⁴⁾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양문학 작품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표해류 작품들이다. 일찍이 듀이(John Dewey)는 인간의 체험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가 체험이라고 부르는 생활과정은 좀 더 특별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예로서 고요한 날 항해 도중 폭풍을 만나 여러 시간 사투 끝에 하늘은 고요해지고 항구에 돌아왔을 때 좋은 체험을 했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 좋은 체험의 특징을 그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처음과 끝이 명확한 한계를 가지며, 둘째 바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항해 체험을 중단시킬 만한 외부적 사건이 전혀 없었고, 셋째 항해 체험은 전체적인 운곽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조내용에 있어서도 특이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공포감과 안도감이 일치하며 삶과 죽음이 이처럼 강렬하게 의식되는 일은 일상생활에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⁵⁾ 이는 곧 문학의 生理 내지는 心理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표해류 작품은 좋은 체험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표해류 작품이란 바다에서 뜻밖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면서 체험했던 사실과 표류지역의 形勝·山川·氣候·城郭·宮室·人家·國王·朝官·軍兵·奴婢·工匠·朝會·迎詔勅·刑罰·倉庫·佛宇·言語·衣服·飲食·田結·交隣·攻戰·市場·交易·島嶼·居室·錢貨·斗升·器用·土產·風俗 등의 견문을 일기체·문답체·노정기체·풍토기체·설화체 등으로 기록한 記事類 작품은 물론 文獻說話類·創作類나 歌辭類 양식의 해양문학 작품을 총칭한 개념이다.

24) 崔南善의 <海에게서 少年에게>·<大韓少年行>·<바다생각>·<남녀바다>·<막은물>·<三面環海國>·<바다위의 勇少年>·<압해는 바다>·<千萬길 김혼 바다>·<閑因兒計>·<牛耳川> 등을 비롯해서 金永郎의 <바다로 가자>, 鄭芝溶의 <船醉>·<바다1>·<바다2>·<해협>, 李燦의 <漁火>·<茫洋>·<出帆>, 임학수의 <갈매기의 노래>·<바다>, 沈熏의 <현해탄>, 金起林의 <바다와 나비>·<파선>·<섬>, 徐廷柱의 <바다>·<海溢>, 張萬榮의 <바다로 가는 여인> 등의 시가 작품과 全光鏞의 <黑山島>, 鄭漢淑의 <IYEU도>, 許允碩의 <海女>, 李清俊의 <이어도>, 白始宗의 <幻戲의 끝>, 千金成의 <표류도>·<남지나해의 끝> 등의 소설 작품 등이 있다.

25) 崔載瑞, 《增補文學原論》, 信元圖書, 1978, pp.156~157.

그런데도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표해록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기행수필²⁶⁾ 내지는 증편 구소설로²⁷⁾ 인식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문헌상 그 기원을 《삼국유사》의 〈延鳥郎 細鳥女〉에서 찾을 수 있고, 고려시대에 와서도 여러 표류기록들이 문헌들에 보이는데 《高麗史》나 《高麗史節要》에서 나타난다.

乙酉 耽羅民貞一等 還自日本 初貞一等二十一人泛海 漂風到東南極遠島 島人長大 遍體生毛 言語殊異 劫留七月 貞一等七人 竊小船 東北至日本那沙府 乃得生還²⁸⁾

九月癸酉朔 日本國 歸耽羅飄風民高礪等十八人²⁹⁾

甲午 宋 歸我漂風人子信等三人 初 耽羅民二十人 乘舟 漂人裸國 皆被殺 唯此三人得脫 投于宋 至是乃還³⁰⁾

宋 歸我毛羅失船人趙暹等六人³¹⁾

珍島縣民漢白等八人 因賈賈 往毛羅島 被風 漂到宋 明州 奉聖旨 各賜絹二十匹米二石 發還³²⁾

26) 張德順, 《韓國隨筆文學史》, 새문社, 1985, p.124.

27) 허웅·박지홍 역음, 앞의 책, p.124.

28) ① 《高麗史》卷五

② 《高麗史節要》卷之三

③ 金錫翼, 《耽羅紀年》卷之一 耽羅條

④ 張漢喆의 《漂海錄》 12월 16일 조

29) ① 《高麗史》卷九

② 《高麗史節要》卷之五

③ 金錫翼, 위의 책.

30) ① 《高麗史》卷十一

② 《高麗史節要》卷之六

③ 金錫翼, 위의 책.

31) ① 《高麗史》卷十一

② 《高麗史節要》卷之六

③ 金錫翼, 위의 책.

32) ① 《高麗史》卷十三

② 《高麗史節要》卷之八

帝遣 還耽羅飄風人洪仁隆等三十人³³⁾

秋七月 宋明州 歸我耽羅飄風人用叶等十人³⁴⁾

貞一 일행 21명이 極遠島에 표착하여 7개월 동안 억류생활을 하다가 7인 만
이 몰래 小船을 타고 那沙府〔長崎〕에 이르렀다가 생환하고 있으며, 高礪 등
18인은 일본에서 돌려 보내 주고 있다. 또한 子信 일행 20인은 裸國에 표착하
였다가 다 피살되고 3인만이 탈출하여 宋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고, 趙暹 등
6인과 漢白 등 8인 및 用叶 등 10인도 송에서 돌려 보내 주고 있다. 아울러
明에서도 洪仁隆 등 30인을 돌려 보내 주었다.

이에 반해 서양에서는 표류기의 기원을 훨씬 그 이전부터 찾을 수 있으니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가 바로 그것이다. 그 이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데
포의 《로빈슨 크루소》나 콜리지의 《늑은 선원》, 바디킨의 《北氷洋漂流記》, 하
이에르달의 《콘티키호탐험기》, 하멜(Hendrik Hamel)의 《하멜漂流記》, 모리
스·메라린 베일리(Maurice & Maralyn Bailey)의 《베일리夫婦漂流記》 등을
들을 들 수 있다. 1832년 독일 의사 시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의 일본에 대한 종합 연구서 《일본》 전9권 중 제5권 〈조선〉편에도
조선인들의 표류기가 수록되어 있으며,³⁵⁾ 일본에서도 《日本漂流譚》이 明治
26년(1893)에 출간되어 이 책에는 10편의 표류기가 수록되어 있다.³⁶⁾

33) 《高麗史》一百三十四

34) 《高麗史節要》卷之六

35) 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朝鮮見聞記》, 柳尚熙 譯, 博英社, 1987.

36) 第1編에는 (1) 越前の人韃靼に漂流し明韓を経て故郷に歸る, (2) 阿紀の人務人島に漂流し一板に縁りて故郷に歸る, (3) 尾張の人馬丹島に漂流し土人を欺きて故郷に歸る, (4) 志摩の人臺灣島に漂流し清國船に因て故郷に歸る, (5) 筑前の人保爾尼に漂流し萬死を出で、故郷に歸る 등이 수록되었고, 第2編에는 (6) 常人安南に漂流し同胞に邂逅して歸國す, (7) 遠人無人島に漂流し新漂船を得て歸國す, (8) 薩人支那に漂流し商船に便乘して歸國す, (9) 奥人支那に漂流し商船に便乘して歸國す, (10) 勢人魯西亞に漂流し十二年を経て歸國す 등이 수록되었다. (石井民司, 《日本漂流譚》, 學齡館, 明治26年.)

그러므로 해양문학의 영역은 한국문학 장르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셈으로 이의 분석과 고찰은 앞으로 한국문학의 과제라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될 때 기존의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뛰어넘어 새로운 관점의 성립도 가능해지리라 믿는다.

3. 研究對象 및 方法

단편적인 표류기록은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외에도 《朝鮮王朝實錄》 등에서 여러 곳에 기술되어 있다.³⁷⁾ 그러나 이들은 내용이 짧고 문학적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에 본고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으로는 적어도 기사류 작품의 경우 표류의 본말이 정확하고 등장인물이나 노정·전문 등의 체험과정이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헌설화류나 창작류 작품들은 이미 그것이 비현실적이거나 허구적 요소가 상당히 복합되어 있기에 이러한 적용 이유와는 무관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의 표해류 작품의 영역은 기존의 한문수필인 개인 기록의 작품은 물론 承政院이나 弘文館 등에서 작성한 《조선왕조실록》 소재 표류기 등도 해당되며, 가사 작품이나 문헌설화 및 창작류 작품들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비록 우리 선인들의 표류기라도 이국인이 쓴 것이나 《조선왕조실록》 등에 수록된 우리 나라에 표도한 외국사람들의 표류기는 제외된다.

지금까지 표해류 작품들에 관한 고찰은 張漢喆의 〈漂海錄〉,³⁸⁾ 崔溥의 〈漂海

37) ① 金宗業, “漂流人과 漂到人”, 《耽羅文化史》, 도서출판 조약돌, 1986, pp.123~128.

② 김봉옥, “표류인과 표도인”,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pp.116~123.

38) ① 鄭炳昱, “「漂海錄」解題”, 《人文科學》第六輯, 延世大學校, 1961, pp.175~191.

② ———, “표해록(漂海錄)에 대하여”, 《한국고전의 재인식》, 弘盛社, 1979, pp.232~254.

③ 吳琯錫, “韓國紀行 研究: 張漢喆의 漂海錄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④ 鄭炳昱, “張漢喆의 漂海錄”, 《旅行과 體驗의 文學》일본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pp.186~207.

錄》,³⁹⁾ 李邦翼의 〈漂海歌〉,⁴⁰⁾ 文淳得의 〈漂海錄〉,⁴¹⁾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⁴²⁾ 高商英의 〈漂流記〉,⁴³⁾ 李光彬의 〈漂流記〉,⁴⁴⁾ 李志恒의 〈漂舟錄〉,⁴⁵⁾

-
- 39) ① 高炳翊, “成宗朝 崔溥의 漂流와 漂海錄”, 《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85, pp.283~306.
 ② 李載浩, “표해록 해제”, 《국역연행록선집》 I, 민족문화추진회, 1967, pp.23~31.
 ③ 高炳翊, “崔溥의 錦南漂海錄”,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pp.112~133.
- 40) ① 朴晟義, “「樂府」研究”, 《高麗大學校六十周年紀念論文集》人文科學篇, 高麗大學校, 1965, p.26.
 ② 姜銓燮, “李邦翼의 「漂海歌」에 對하여”, 《韓國言語文學》第20輯, 韓國言語文學會, 1981, pp.97~113.
 ③ 崔康賢, “漂海歌의 지은이를 살핌”, 《語文論集》第23輯, 高麗大學校國語國文學研究會, 1982, pp.67~74.
 ④ 成武慶, “耽羅居人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한 研究”, 《耽羅文化》第12號,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2, pp.1~15.
- 41) ① 崔德源, “文淳得의 漂海錄 研究: 琉球 및 呂宋 漂流記”, 《論文集》第14輯, 木浦海洋專門大學, 1980, pp.1~57.
 ② ———, “琉球·呂宋 漂流記: 丁若銓이 기록한 魚商 文淳得 등의 體驗記”, 《月刊 朝鮮》, 朝鮮日報社, 1980. 12, pp.162~174.
- 42) ① 金泰能, “金非衣 일행의 琉球國 漂流와 見聞”,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pp.355~383.
 ② 張德順, “紀行·日記의 白眉 「漂海錄」”, 《韓國隨筆文學史》, 새문社, 1985, pp.124~131.
 ③ ———, “海洋文學의 白眉 「漂海錄」”, 《旅行과 體驗의 文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pp.325~331.
 ④ 尹致富, “金非衣 일행의 漂海錄 고찰”, 《兪南金一根教授定年紀念語文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91, pp.109~125.
- 43) ① 崔常壽, “濟州島民의 安南 漂流”,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韓越學會, 1966, pp.103~112.
 ② ———, “濟州島民의 安南 표류”, 《제주시》창간호, 제주시청, 1966, pp.60~66.
- 44) 金泰能, “李光彬의 長崎島 漂流와 그 氣風”, 《제주시》제2호, 제주시청, 1966, pp.46~48.
- 45) ① 文璇奎, “漂舟錄 解題”, 《국역해행총재》 I, 민족문화추진회, 1967, pp.399~404.
 ② 趙洙翼, “한 武人의 北海道 漂流: 李志恒의 〈漂舟錄〉”, 《旅行과 體驗의 文學》일본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pp.77~88.

崔斗燦의 〈乘槎錄〉,⁴⁶⁾ 朴元良의 〈漂民對話〉,⁴⁷⁾ 肖得誠의 〈漂流記〉,⁴⁸⁾ 朴孫일행의 〈琉球風土記〉⁴⁹⁾ 등 주로 기사류 작품과 가사 작품에 국한되어 왔는데, 각 작품을 학계에 발굴 소개하거나 해제 정도의 단편적인 글이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鄭炳昱은 張漢喆의 〈漂海錄〉을 발굴하여 그 원문과 더불어 해제까지 처음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高柄翊은 崔溥의 〈漂海錄〉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어 1970년대에는 진태하가 일본 경도대학 도서관에서 발굴한 〈漂民對話〉를 상권의 원문과 대강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다. 1980년대에 오면서부터 崔康賢·姜銓燮·成武慶 등에 의해서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하여 그 작자와 작품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崔德源은 文淳得의 〈漂海錄〉을 새롭게 발굴하여 그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분석한 글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吳瑄錫은 장한철의 〈표해록〉을 문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한 작품에 국한되어 있어 표해류 작품의 종합적 성격 규명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중에 崔康賢은 崔溥·李志恒·張漢喆·李邦翼·文淳得·崔斗燦 등의 작품들을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이 방면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해양문학의 성립에 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 분야의 기틀을 닦은 셈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업적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과를 목표로 논지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첫째, 해양문학 양식의 영역과 성립을 논의한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의 해양문학에 대한 여러 형태의 개념 논의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새롭고도 통일적인 해양문학의 개념을 도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문학에서는 해양문학 작품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도 부분적으로 검토하여 세계문학적인 관점과 일치된 입장에서 해양문학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46) 崔康賢, “한국 해양문학 연구: 주로 표해가(漂海歌)를 중심으로”, 《省谷論叢》第12輯, 省谷學術文化財團, 1981, pp.235~265.

47) 진태하, “표민대화 해제”, 《한글》제151호, 한글학회, 1973, pp.57~67.

48) 崔常壽, “韓國과 南方諸國의 關係①”, 《月刊政友》, 國會議員同友會, 1989, pp.138~146.

49) 위의 글.

둘째, 표해류 작품을 양식적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해 본다. 흔히 표해류 작품은 한문수필이나 중편 구소설로만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한문수필적 성격의 기사류 작품은 물론 문헌설화류 작품이나 창작류 및 가사류 작품도 존재하고 있어 그 작품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논의될 것이다. 특히 일기체 한문수필의 원작품에서 점차 소설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는 국문학의 통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귀중한 단서가 될 것이다.

셋째, 표해류 작품의 저술과정, 전승변이 등의 저작방법과 형성배경을 검토한다. 표류자들이 직접 저술하는 경우나 제삼자가 간접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弘文館·承政院·禮曹 등에서 왕께 보고하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음이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崔溥의 〈漂海錄〉, 朴趾源의 〈書李邦翼事〉, 崔斗燦의 〈乘槎錄〉 등의 경우 이본들이 전해지는데 어떠한 변이가 나타나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고찰하고자 한다.

넷째, 표해류 작품의 구성기법을 파악한다. 여러 유형의 표해류 작품들이 존재하는 만큼 그 구성기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의 분석은 표해류 작품의 문학성을 심화시켜 주는 의미가 될 것이다.

다섯째, 표해류 작품에 나타난 우리 나라·중국·일본·琉球·安南·呂宋 등의 상황인식을 분석한다. 이는 표류자들이 표착했던 나라들에 관해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으로서 그들의 작가의식과 통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표해류 작품의 기행문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표해류 작품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海洋觀은 외국인의 해양관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 본다. 표해류 작품이 해양문학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한다면 표류자들은 이들 작품 속에서 바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표류기 작품들과 어떤 차이점이 나는 지에 대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국문학에서의 해양문학적 위상을 정립한다.

이러한 논의 전개를 위해서는 각각 개별작품의 원전을 비교·검토하는 문헌학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귀납적 연구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Ⅱ. 漂海類 作品의 概觀과 分析

1. 記事類

記事類 작품으로는 먼저 《朝鮮王朝實錄》소재 梁成 일행의 〈漂流記〉, 肖得誠 일행의 〈漂流記〉,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李暹 일행의 〈漂流記〉, 根廻伊 일행의 〈漂流記〉, 金紀孫 일행의 〈漂流記〉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중 이섬·정희이·김기손 등의 〈표류기〉는 처음 학계에 공개되는 작품으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사실성이 뛰어난 작품들이다. 특히 이들 작품들은 한문 표해류 작품들의 원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문학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燕行錄選集》소재 崔溥의 〈漂海錄〉, 《稗官雜記》소재 朴孫 일행의 〈琉球風土記〉, 《晝永篇》소재 高商英 일행의 〈漂流記〉, 《海行摠載》소재 李志恒의 〈漂舟錄〉, 張漢喆의 〈漂海錄〉, 《燕巖集》소재 〈書李邦翼事〉, 《柳菴叢書》소재 文淳得 일행의 〈漂海錄〉, 《罷睡篇》소재 崔斗燦의 〈乘槎錄〉, 《心田稿》소재 金光顯 일행의 〈耽羅漂海錄〉, 《燕轅直指》소재 〈濟州漂人問答記〉, 朴元良의 〈漂民對話〉 등이 분석 고찰될 것이다. 이들 작품들은 대부분 표류자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제삼자가 표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접 기록하였어도 독립된 작품으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표해류의 대표적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朝鮮王朝實錄 所載

(1) 梁成 일행의 漂流記

① 形成 背景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소재 〈표류기〉들은 弘文館이나 承政院 등에서 임금께 보고하기 위해 표류자들의 구술을 토대로 기록된 것들이다. 임금은 표

류자들이 돌아왔을 때 興泰門, 延和門, 興化門, 崇政殿 東月臺 등에 남시어 친히 漂民들을 불러들여서 표류한 연유나 견문 등을 묻고⁵⁰⁾ 각각 쌀이나 면포 등을 하사하고 恤典을 시행하게 하였다.⁵¹⁾ 특히 표민들이 중국에서 돌아온 경우는 사신을 보내어 謝恩하였고, 일본이나 유구에서 돌아온 경우도 그 사신에게 도서 등을 하사하여 후대하였는데 표류인이 10명 이상이면 修謝하는 것이 관례였다.⁵²⁾ 표류인의 발생은 외교적인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본에서는 표류자들을 돌려 보내 주는 것을 싫어하여 拘留하거나 보내지 않기도 하고 혹은 그 자취를 인멸하여 생환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⁵³⁾ 그러므

-
- 50) ① “上 御興泰門 召入濟州漂民 勞問之 給糧以遣”(〈英祖實錄〉英祖 41년 9월 戊寅條)
 ② “上 御興化門 命召入濟州漂民 下詢其姓名及漂行時路程 命惠堂漂民 每名給木一疋 米五斗 漂民中金三澤者 先已物故 命一體給米布 令漂民 傳給其妻子”(〈英祖實錄〉英祖 43년 4월 己未條)
 ③ “上 御延和門 召濟州漂民八人 賜米布 先見 濟州船人夫次吉等 漂到彼國境 自瀋陽 今始回還也”(〈英祖實錄〉英祖 46년 6월 丙申條)
 ④ “上 御崇政殿東月臺 召入濟州漂流人 各給米木 使沿邑 給回糧”(〈英祖實錄〉英祖 48년 6월 己卯條)
- 51) ① “傳曰 濟州人梁俊等二十二名 漂到中原地方 禮部移咨遼東 送還本國 皇恩罔極矣 其考前例處之 漂流人等 命賜酒于闕門內 各給布一匹”(〈宣祖實錄〉宣祖 9년 6월 庚寅條)
 ② “因備局啓辭 濟州漂到人 令戶曹 造給衣袴 過關西時 每人銀子二兩 依例分給 又使留京調息後發送”(〈肅宗實錄〉肅宗 39년 11월 壬戌條)
 ③ “濟州民二十一人 漂海到琉球國 留一年 轉到福建 又留一年至四月 始還歸而獨一人死 上聞而惻隱 命加恤典 生還者給衣糧”(〈英祖實錄〉英祖 17년 2월 己酉條)
 ④ “濟州貢果人 漂海 八朔始到京 上 召入賜米布醢肉 慰諭下送”(〈英祖實錄〉英祖 48년 6월 丁亥條)
- 52) ① “中朝刷還濟州漂流人高致江等十七名 遣使謝恩”(〈中宗實錄〉中宗 6년 6월 甲申條)
 ② “傳曰 濟州漂流人七名 聖節使帶來云 遣使謝恩事 言于禮曹 禮曹啓曰 漂流人十名以上 例爲修謝 而前例雖未滿十名 亦有修謝之時 今此解來人等 不可隔歲謝恩 請別遣何如 且遼東大人 以殺人之事 依法治罪 不須致謝 答曰知道”(〈明宗實錄〉明宗 9년 10월 丁亥條)
 ③ 이를테면 成宗 8년(1477) 金非衣·姜茂·李正 등 백여 인이 귀환하였을 때는 大藏經 등을 하사하고 있다.(眞境名安典, 앞의 책, p.75.)
- 53) “初金日與弟莫金 漂到日本 至是金日得還 莫金留在五都浦 爲又古都老奴 遂令禮

로 일본에 표류한 표민들은 몰래 도망쳐 오기도 하였다.⁵⁴⁾

표민들 중에는 부득이 풍랑을 만나 본의 아니게 표류하기도 하였으나 고의로 표류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정도였다.⁵⁵⁾ 더욱이 표류인들이 있어도 숨기고 아뢰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지방관들에게는 그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推鞠하여 아뢰도록 하기도 하였다.⁵⁶⁾ 그런가 하면 우리 나라에 표도한 이국인들의 물화를 몰래 취하였다가 정배당하거나 하옥을 당하는 지방관들도 있을 정도였다.⁵⁷⁾

梁成 일행의 <표류기>에 대한 형성 배경은 <世祖實錄> 世祖 7년 6월 丁丑條에서 알 수 있다.⁵⁸⁾ 羅州에 사는 船軍 梁成, 錦山에 사는 私奴 高石壽 등 10인이 세조 2년(1456) 1월에 제주로부터 본토로 배를 타고 가는데 대풍을 만나 琉球國에 표류하였는데 그 중에 8인은 일찍이 이미 돌아왔고 나머지 양성과 고석수는 세조 7년(1461)에야 유구국 사신 僧 德源이 데리고 왔기에 禮賓寺로

曹致書曰 本國濟州住人金目莫金等兄弟 不幸遭風 漂到貴境 金目則肥州 太守源公 今已送還 其弟莫金 爲足下占使 未得帶回”(〈世宗實錄〉 世宗 26년 8월 己未條)

- 54) “御朝參 傳曰 今見全羅監司書狀 濟州捕魚人金公等十四名漂到一岐島 逃來云”(〈中宗實錄〉 中宗 31년 10월 癸巳條)
- 55) ① “曾聞南中諸島間多故漂到 他國供給之厚云 今見此人形貌言辭 狡猾瀏利 全無誠樸之意 安知不亦故漂者流歟”(〈濟州漂人問答記〉)
- ② “自本嶺取招內諸般辭緣 一如譯學問情矣 既非故漂之跡 護送原籍官之意 東萊府使沈東臣處關飭 而亦自營別助給 啓”(〈高宗實錄〉 高宗 17년 11월 9일 조)
- 56) “禮曹 據慶尚道觀察使關啓 琉球國王使者吾羅沙也文 率本國漂流人卜山升通吾之等 到浦 大抵沿海居民 如此漂流者頗多 諸邑守令 規免罪責隱諱不報 萬一彼賊潛掠邊民亦將匿不以聞 卜山等漂流時 濟州報觀察使與否 未可知也 請令其道觀察使 推覈以啓 且其未還十人通書于琉球國王 令悉刷還 從之”(〈世祖實錄〉 世祖 4년 2월 乙卯條)
- 57) ① “命旌義前縣監柳翼星 黑山島定配 濟州牧使朴聖浹狀啓言 翼星匿取漂倭船 物貨故也”(〈英祖實錄〉 英祖 49년 12월 庚戌條)
- ② “先是濟州牧使李箕賓判官文希賢 以劫掠漂流唐船 自取貨寶之罪下獄”(〈光海君日記〉 光海君 4년 4월 己卯條)
- 58) “羅州住船軍梁成 錦山住私奴高石壽等十人 丙子正月 自濟州行船 值颶風漂到琉球國 其中八人 曾已還來 今者琉球國使僧德源 帶梁成高石壽以來 請令禮賓寺供饋 上引見梁成等 問漂流緣由及地形風俗 謂左承旨韓繼禧曰 細問具錄以啓”(〈世祖實錄〉 世祖 7년 6월 丁丑條)

하여금 供饋하게 하였다. 이때 임금의 양성 등을 引見하고 표류한 연유 및 지형·풍속 등을 묻고 左承旨 韓繼禧에게 명하여 자세히 물어 두루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성 일행의 〈표류기〉는 양성 등의 구술을 토대로 한계회가 간접 기록한 것이다.

② 作品의 構造

梁成 일행의 〈漂流記〉는 〈世祖實錄〉 世祖 8년 2월 辛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상의 구조는 크게 ‘出帆-漂流’의 2단계로 되어 있고 歸還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며, 출발에 관한 내용도 여행의 동기와 목적이나 여행지 및 출발지의 행장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시 표류 부분도 ‘漂着-見聞’의 2단계로 세분할 수 있는데 표착일시나 표착지역은 기술되어 있으나 바다에서의 표류시각이나 표류과정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전문기이다.⁵⁹⁾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 世祖 2년 (1456) 1월 25일 2. 일행 : 船軍 梁成 등 3. 출발지 : 濟州
漂 流	1. 표착일시 : 2월 2일 2. 표착지역 : 琉球國 북쪽 방면 仇彌島 3. 전문 (1) 섬의 形勝과 石城(섬 둘레 2息 가량, 섬 안 石城에 島主 거함, 琉球國까지 2일 路程) (2) 琉球國 公館에 머물음

59) 漂海類 작품의 구조는 記事類의 경우 ‘1. 出帆 - 2. 漂流 - 3. 歸還 - 4. 後記’ 등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출발’의 경우는 다시 ①출발일시, ②출발지, ③일행의 소개, ④발선의 동기와 목적, ⑤출발시의 선박, ⑥목적지, ⑦출발시의 행장으로, ‘2. 표류’의 경우는 ①바다에서의 표류일시와 시간, ②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③표류원인, ④바다에서의 표류과정, ⑤표착일시, ⑥표착자, ⑦표착지역, ⑧노정, ⑨전문으로, ‘3. 귀환’의 경우는 ①귀환시의 날짜, ②귀환시의 장소, ③귀환 일행, ④동행자, ⑤귀환 노정, ⑥귀환 전문, ⑦도착 일시, ⑧도착지역, ⑨임금과의 引見, ⑩고향 도착으로, ‘4. 후기’의 경우는 ①여행 소감, ②집필 경위, ③見聞雜錄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3) 王城의 外城·中城·內城(外城에 倉庫와 馬廐, 中城에 侍衛軍 200여 명, 內城에 王이 거함)
	(4) 琉球國 地勢·郡縣·道路·人家·氣候(중앙이 협소하나 남북이 광활. 큰 강이 없음. 큰 산이 있음. 군현을 설치. 도로 사이 1息, 2息, 반 息. 인가 조밀 또는 드물음. 기후 따듯함)
	(5) 節日·元日의 祈禳
	(6) 佛寺(7월 15일 佛寺에 올라가는 풍속)
	(7) 奴婢(일본인)
	(8) 工匠(鑄匠과 木手)
	(9) 鋪陳(莞草로써 짬)
	(10) 衣服과 飲食(남자의 복장은 直領과 같음. 여자의 복장은 우리 나라와 같음. 맨발로 다님. 손갈과 젓가락이 없음)
	(11) 乘馬法(남자의 승마는 보통이나 부인은 양다리를 내리고 말 등에 걸터앉음)
	(12) 錢貨(鑄造法을 몰라 중국에서 얻어다 씀)
	(13) 商賈(女國人이 와서 교역)
	(14) 斗升(되는 우리 나라와 같음. 말은 5되, 10되, 30되를 담아 일정하지 않음)
	(15) 更點(대궐 南門 漏器에 물이 다 없어지는 것을 1更)
	(16) 朝會(邑長들이吉日 택함)
	(17) 迎詔勅(중국의 詔勅과 우리 나라의 書契가 이르면 왕이 絳衣를 입고 冠을 쓰고 절을 한 다음 開讀)
	(18) 喪葬(14일 만에 끝냄)
	(19) 國王의 葬禮(바위를 파서 壙을 만들고 광을 파서 棺을 묻음)
	(20) 婚嫁(남자 집에서 먼저 중매하고 택일)
	(21) 祭祀(祭享이 없음)
	(22) 朝官(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거)
	(23) 盜賊(일본에서 팔려간 자들)
	(24) 農桑(팥·보리·녹두가 없음)
	(25) 生苧가 있음. 뽕나무·삼·木棉이 없음
	(26) 旱田과 水田(쟁기 없음. 10월 모종 5월 및 10월 수확)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7) 所産(금·은이 없음)
	(28) 禽獸(가축으로 소·말·돼지·개, 날짐승으로 까마귀·참새)
	(29) 水陸의 産物(魚物·유자·귤·柑)
	(30) 軍士(군사 장비와 갑옷·투구는 본국과 같음)
	(31) 火筒(본국과 같음)
	(32) 弓矢(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苧絲로 시위를 만들음)
	(33) 交隣(中國·日本國·女國)
	(34) 中國과 7일 路程, 日本과 18일 程途
	(35) 攻戰(池蘇島·吾時麻島)

船軍 梁成 등이 世祖 2년(1456) 1월 25일 濟州를 출발하여 바람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2월 2일 유구국의 북쪽 방면 仇彌島에 표착하여 견문한 내용인 (1)섬의 形勝과 石城으로부터 (4)琉球國 地勢·郡縣·道路·人家·氣候까지는 개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며, 나머지 (5)節日·元日の 祈禳으로부터 (35)攻戰까지는 한 항목씩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2단계의 형식적 구조로 되어 있다.

③ 主要内容

梁成 등이 당시의 유구국을 어떻게 보았으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물론 韓繼禧에게 구술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는 양성 등의 진술이 반영되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기록자인 한계희가 왕께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불필요한 내용을 기록자가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당시 조정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중시했는지를 시사받을 수 있다.⁶⁰⁾

60)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서는 建置沿革·郡名·姓氏·形勝·風俗·山川·烽燧·宮室·樓亭·驛院·橋梁·市街·佛宇·祠廟·古跡·名宦·人物·題詠 등의 항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 地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경상도 지지인 《嶠南誌》에는 沿革·地勢·官職·姓氏·山川·風俗·戶口·土地·賦稅·土産·校院·寺刹·官案·人物·道路·橋梁·堤堰·市場·驛郵·

(가) 形勝·山川·氣候：仇彌島는 둘레가 2息 가량이고, 섬 안에는 작은 石城이 있어서 島主가 혼자 거주한다. 섬에서 유국국까지의 거리는 순풍의 뱃길로 2일 路程이다. 유국국의 地勢는 중앙이 협소하고, 나라에는 큰 강이 없다. 그 나라의 기후는 항상 따뜻하여 서리와 눈이 없다. 중국과의 거리는 동남풍을 따라서 배가 7일 동안 가면 도착하고, 일본과의 거리는 서풍을 따라서 배가 18일 동안 가면 도착한다.

(나) 城郭·宮室：섬 안에는 郡縣을 설치하고 石城을 쌓아서 官의 수령이 1인씩 있다. 王城은 3겹으로 되어 外城에는 창고와 馬廐가 있고, 中城에는 侍衛軍 2백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內城에는 2, 3층의 殿閣이 있다.

(다) 朝官：朝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천거를 들어 주고 관에서 노비·土田·집·軍器 등의 물건을 주며, 유능하지 못하면 罷黜한다.

(라) 軍兵：군사 1백여 명을 정원으로 하여 날마다 바꾸어 숙직을 교대하고, 군사 장비와 갑옷·투구는 우리 나라와 다름이 없다. 火筒은 그 체제가 하나같이 우리 나라의 제도와 같으며, 弓矢는 뽕나무로써 활을 만들고 苧絲로써 시위를 만든다.

(마) 奴婢·工匠：奴婢는 대부분 일본인이고, 工匠은 단지 鑄匠과 木手만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보지 못한다.

(바) 朝會·迎詔勅：朝會는 먼 지방의 邑長들이吉日을 택하여 잔치상을 준비하여 대궐 뜰에 바치고, 迎詔勅은 중국의 詔勅과 우리 나라의 書契가 나라에 이르면 왕이 絳衣를 입고 冠을 쓰고 절을 한 다음 앉으면 이를 開讀한다.

(사) 交易·交隣·攻戰：일본·女國 사람들이 와서 교역하고, 중국과 일본국·여국과 서로 통호한다. 吾時麻島는 공격 토벌하여 귀순한 지가 15여 년이

烽燧·塚墓·古蹟·樓亭 등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고, 제주도 지지인 李元鎮의 《耽羅志》는 濟州·建置沿革·鎮管·官員·邑名·姓氏·風俗·形勝·山川·橋梁·土產·田結·城郭·防護所·水戰所·烽燧·宮室·樓亭·倉庫·學校·鄉約·祠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貢獻·古跡·名宦·人物·孝子·烈女·題詠 등의 항목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 통신사 일기인 海槎錄 계열의 聞見別單 등도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으며, 《朝鮮王朝實錄》소재 표류기들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池蘇島는 매년 토벌하기에 이르지만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다.

(아) 衣服·飲食 : 남자의 복장은 우리 나라의 直領의 제도와 같고, 여자의 복장은 우리 나라와 같으며, 君臣과 상하의 남녀는 모두 관이나 두건을 쓰지 않는다. 걸을 때는 맨발로 다니고 신발 따위의 물건이 없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숟갈과 젓가락이 없고, 익새풀을 꺾어서 젓가락같이 만들어서 먹는다.

(자) 佛宇 : 7월 15일에 佛寺에 올라가 죽은 어버이를 예배한다.

(차) 刑罰 : 本國에는 도적이 없고 일본에서 팔려간 자들이 종종 남의 재물을 훔치는데, 체포하여 鞫問하고 죄가 크면 이를 誅戮하고 작으면 다른 섬에 유배한다.

(카) 田結 : 매 10월에 모종하고 다음해 정월에 모를 나누어 심어서 5월이 되어 익으면 그 이삭을 베고 쥔 줄기를 베지 않는데, 거기에서 결가지 모가 또 번성하여 10월에 다시 거둔다. 田地를 매만지는 데 삽으로 할 뿐이고 쟁기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타) 物産 : 여러 가지 곡식이 모두 있으나 다만 쌀·보리·녹두가 없다. 뽕나무·삼·목면이 없고 생모시가 있다. 금과 은이 나지 아니하여 南蠻·일본에서 사서 사용한다. 소·말·돼지·닭·개가 있고, 날짐승으로서 까마귀·참새가 있다. 水産은 魚物뿐이고, 陸産은 유자·귤·柑뿐이다.

(파) 錢貨·斗升 : 興用하는 것이 錢貨이나 그 鑄造하여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모두 중국에서 얻어다가 사용하는데, 세조 5년(1457)에 중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가르치다. 10文이 쌀 1되에 준하며, 되는 우리 나라와 같고, 말이 5되, 10되, 30되를 담기도 한다.

(하) 風俗 : 節日·元日에는 祈禳하는 풍속이 있고, 鋪陳은 莞草로써 짠 자리로 본국과 같으며, 중국에서 사온 것이다. 부인들은 말을 탈 때에 모두 양다리를 내리고 말 등에 걸터앉으며, 更點은 대궐 南門에 나무로써 漏器를 만들어 물을 定量하여 부어 넣은 다음 물이 다 없어지는 것을 헤아려 이를 1更이라고 하며, 북을 쳐서 알린다. 국왕이 죽으면 주민은 麻冠·麻衣를 입고 곡하여 14일 만에 끝내며, 부모의 상을 당하면 族親들이 喪家에 모여서 弔喪하고 곡하며, 상을 당한 사람은 흰 옷을 입는데, 모두 3일 뒤에야 고기를 먹으며 7일 안에는 살생하지 않는다. 국왕의 장례나 보통 사람의 장례가 다 같이

바위를 파서 壙을 만들고 관을 묻는 것은 같으나 다만 집을 짓고 성을 쌓는 따위의 일이 보통 사람에게는 없다. 혼인할 때에는 남자 집에서 먼저 중매를 하여 혼인을 約定하고 날짜를 택한다. 제사는 그 나라에 祭享이 없다.

④ 表現 形式上의 特徵

표류인들에게 있어 이국의 풍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觀遊의 의미가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오랜 시간을 한 곳에서 지내야 하고 그들의 귀환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항상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인식 속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대상들에 자연스레 긴장감으로 세심한 관찰을 하게 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표류자 개개인의 관찰력 내지는 통찰력과 결부될 때 견문에 대한 묘사는 더욱 사실적이 된다.

양성 일행의 <표류기>에 있어서도 그들의 견문한 모든 대상들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노력들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우선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데, 仇彌島에서 1개월 만에 유구국에 이른다거나⁶¹⁾ 公館에 머물다 다시 1개월 만에 王城에 도착한다는 사실⁶²⁾ 및 喪葬은 14일 만에 끝내며 3일 뒤에야 고기를 먹고 7일 안에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⁶³⁾ 등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그들은 거리감에서도 세심한 관찰력을 보여 주는데, 구미도의 섬 둘레가 2息 가량이라든지,⁶⁴⁾ 유구국의 지세는 중앙이 협소하여 1, 2식 거리라든지,⁶⁵⁾ 국도에서 5일 노정의 거리에 큰 산이 있다든지⁶⁶⁾ 유구국의 도로는 서로 떨어진 거리가 1식, 2식, 혹은 반 식 정도라든지,⁶⁷⁾ 중국과의 정도는 동남풍을 따라서 배가 7일 동안 가면 도착하고, 일본과의 정도는 서풍을 따라서 배가 18일 동안 가면 도착한다는⁶⁸⁾ 인식 등에서 나타난다. 아

61) “梁成等 留島一月 載貢船 到國住水邊公館”(《世祖實錄》世祖 8년 2월 辛巳條)

62) “過一月 歸王城”(위의 책)

63) “喪葬 本國王死 一應侍衛 住民着麻冠 麻衣 哭之盡哀 二十七日而除 凡民遭父母喪 族親娶喪家 弔哭 喪人著白衣 皆三日後食肉 七日內不殺生”(위의 책)

64) “島周回可二息”(위의 책)

65) “其國地勢 中央狹小 或一二息”(위의 책)

66) “國都東北 距五日程 有大山”(위의 책)

67) “道路相距 或一息 或二息 或半息”(위의 책)

68) “中原程途 因東南風 舟行七日及到 日本程途 順西風 舟行十八日乃到”(위의 책)

울러 특이한 남방의 풍속·제도·물산 등에서도 그들은 뛰어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한편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표현상의 특징은 그들이 유구국에 대해 문화후진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 나라 문화와의 상대적 비교하에서 인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君臣과 상하의 남녀는 모두 冠이나 두건을 쓰지 않는다거나 걸을 때는 맨발로 다니고 신발 따위가 없으며,⁶⁹⁾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갈과 젓가락이 없어 억새풀을 꺾어서 젓가락같이 만들어서 먹는다고⁷⁰⁾ 기술하고 있다. 또한 錢貨를 주조하여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중국에서 얻어다 사용하다가 세조 5년(1457)에야 중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거나⁷¹⁾ 농사를 지으면서도 쟁기가 없어 삼이나 손으로써 매만진다고⁷²⁾ 묘사한다. 특히 중국의 詔勅이나 우리 나라의 書契가 나라에 이르면 왕이 絳衣를 입고 관을 쓰고 절을 한 다음 앉으면 이를 開讀하여 예의를 각듯이 하고 있는데⁷³⁾ 이는 적어도 우리 나라나 중국이 유구국에 비해 상대적 문화선진 의식의 간접적 반영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적 묘사나 문화후진 시각의 표현상 특징은 양성 일행의 〈표류기〉가 풍토 위주의 구성법을 취하도록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류자들의 구술을 통한 간접기록이라는 사실은 일기체 형식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표류지역이 유구국 한정은 노정기적 구성도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2) 肖得誠 일행의 漂流記

① 作品의 構造

肖得誠 일행의 〈漂流記〉도 양성 일행의 〈표류기〉와 마찬가지로 〈世祖實錄〉

69) “君臣上下男女 皆不冠巾 徒跣而行 無靴鞋等物”(위의 책)

70) “其食無匙筯 折蕨草如筯而食”(위의 책)

71) “錢貨 所興用者錢貨 然不知鑄成之法 皆得於中原而用之 丁丑年 中原人始來教之 十文准米一升”(위의 책)

72) “旱田水田 不用耒耜 以手治之”(위의 책)

73) “迎詔勅 中原詔勅 及我國書契 到國船舶 初面以旗幟蓋等物 爲儀仗 又軍士具甲冑出迎 安詔勅書契於轎輦 從傍擊鼓鐃 吹太平簫 迎入王宮 王服絳衣 着冠而拜之 坐 開讀 國王常在層閣不下 使婦人傳命 俗無冠服 皆行膜拜 至此不庭拜跪 略如禮焉”(위의 책)

世祖 8년 2월 辛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상 크게 ‘출범-표류-귀환’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출범’은 출발일시·출발지·일행 등이 나타났고, ‘표류’는 표착일시·표착지역·견문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귀환은 귀환시의 날짜만이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의 대부분은 유구에서의 견문으로 되어 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 世祖 8년 (1462) 1월 24일 2. 출발지 : 羅州 3. 일행 : 肖得誠 등 8인
出 帆	1. 표착일시 : 2월 4일 2. 표착지역 : 유구국 彌阿槐島 3. 견문 (1) 섬 사람들의 供饋 (2) 섬의 形勝과 氣候(섬의 길이 2息 가량, 너비 1식 정도. 2월 보리 수확, 밀이 익음, 참외 열매 맺음) (3) 4월 27일 유구국 本國 도착 (4) 國王의 供饋 (5) 城郭(3겹) (6) 宮室(2층 殿閣에 거함) (7) 國王의 나이(33세) (8) 國王의 아들(4인) (9) 옛 궁궐(宮城의 남쪽에 있음) (10) 國王의 出入 (11) 朝會(5일마다) (12) 人家(조밀함) (13) 衣服(倭服과 같음) (14) 칼을 차는 풍속 (15) 남녀의 신발(맨발) (16) 남녀의 상투 (17) 朝官(5일마다 祿俸 頒賜) (18) 酒庫房과 軍器庫(강가에 있음) (19) 穀類(모두 있음) (20) 家畜·짐승·날짐승(가축은 소·닭·개, 짐승은 노루·사슴, 날짐승은 제비·피꼬리·까마귀·배꾸기·참새)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1) 채소(파·부추·마늘·생강·무우·상치·파초·양하·토란·마)
	(22) 船隻(강가의 草廬에 돛)
	(23) 市場과 交易(시장은 강가에 있음. 南蠻·일본·중국 상선이 교역)
	(24) 南蠻·일본국·중국과의 거리(3개월 거리에 南蠻, 5일 거리에 일본, 20일 거리에 중국)
	(25) 盜賊(다 誅戮함)
	(26) 水産과 陸産(어물·배나무·밤나무·복숭아·종려나무·소나무·상수리나무·왜굴나무)
	(27) 島嶼(彌阿槐島·屈伊麻島·日南浦島·時麻子島·于甘島)
歸 還	○ 7월 6일 출발하여 도착함

출범의 내용과 표류의 (1)섬 사람들의 供饋로부터 (4)國王의 供饋 및 귀환의 내용은 개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5)城郭으로부터 (27)島嶼까지는 한 항목씩 개별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바 2단계의 형식적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초독성 일행이 표류한 것이 세조 8년(1462) 1월 24일이고 유구에 표착한 것이 2월 4일이므로 바다에서 표류한 시간은 10여 일이 된다. 귀환하기는 유구에서 7월 6일 출발하여 돌아왔다고 함으로 표착된 지 5개월여만이다.

① 主要内容

(가) 形勝·氣候: 彌阿槐島의 길이는 2息 가량, 너비는 1식 정도 된다. 2월에 보리를 이미 거두어들이고 밀이 모두 익으며, 참외와 가지도 열매가 맺는다.

(나) 城郭·宮室·人家: 성은 3겹으로 되고 모두 石城인데, 성의 높이는 우리 나라의 都城과 같으나 약간 높으며, 城門도 또한 우리 나라와 같다. 옛 궁궐은 살고 있는 宮城의 남쪽에 있는데, 그 層閣과 城郭의 제도가 거처하는 궁궐과 같다. 백성들의 居住가 조밀하며 길거리가 매우 좁은데 人家에서는 소나무와 종려나무 심기를 좋아한다.

(다) 國王: 국왕은 2층의 殿閣에 거하는데 그 전각은 모두 단청을 입히고

지붕을 판자로 덮고 鷲頭마다 鐵으로써 진하게 칠한다. 국왕은 나이가 33세이고, 아들이 4인 있는데 長子는 나이가 15세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服飾은 朝官과 별 다름이 없다.

(라) 朝官·朝會: 朝官의 祿俸은 5일마다 한 차례 頒賜하고, 5일마다 한 번씩 朝會한다.

(마) 刑罰: 모든 도적은 다 誅戮하는데 국왕이 친히 鞠問한다.

(바) 倉庫: 外城 안에 창고와 內廐가 있고, 강가에 酒庫房과 軍器庫가 있다.

(사) 衣服: 의복제도는 倭服과 같은데, 다만 바지를 입지 않을 뿐이다. 그 복장은 段子·紗綃와 苧布를 쓰는데 남녀가 같은 복장이다.

(아) 市場·交易: 저자는 강가에 있는데, 南蠻·일본국·중국의 상선이 와서 서로 교역한다.

(자) 島嶼: 彌阿槐島·屈伊麻島·日南浦島·時麻子島·于甘島 등이 있다.

(차) 物産: 穀類는 여러 가지가 모두 있으며, 가축은 소·말·닭·개가 있고, 짐승은 노루·사슴이 있으며, 날짐승은 제비·피꼬리·까마귀·뺨꾸기·참새가 있으나, 호랑이와 표범은 없다. 채소는 파·부추·마늘·생강·무우·상치·파초·양파·토란·마가 있다. 水産은 오로지 魚物뿐이고, 육지에 있는 것은 오로지 배나무·밤나무·복숭아·종려나무·소나무·상수리나무·왜굴나무뿐이다.

(카) 風俗: 그 풍속에 항상 크고 작은 칼 두 자루를 차고 다니는데 음식을 먹고 기거할 때에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다. 상하의 남녀는 모두 맨발로 다니며 신발을 신지 않으나, 다만 성 밖에서는 신을 신는데 倭鞋와 같다. 궁성에 들어오면 신지 않으며 비록 성 밖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尊長者를 만나면 벗어 버린다. 남자는 상투를 땡아서 머리의 왼쪽으로 두고, 여자는 상투를 땡아서 머릿골 뒤에 둔다.

③ 表現 形式上的 特徵

양성 일행의 <표류기>와 마찬가지로 같은 15세기 유구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데, 국왕의 묘사에서는 더 사실적이다. 국왕의 나이나 국왕의 아들 4인 및 국왕의 행차할 때의 모습과 국왕이 한가롭게 거할 때 등에 대한 묘사는⁷⁴⁾

74) “國王年三十三歲。國王有子四人 長子年十五許 餘皆幼 長子出入時 軍士十餘人

양성 일행의 <표류기>에는 없는 사실들이다. 土産에 관한 내용에서도 가축·짐승·날짐승·채소·재목 등에 걸쳐 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⁷⁵⁾ 島嶼에 관해서도 彌抄槐島·屈伊麻島·日南浦島·時麻子島·于甘島 등은 처음 언급되는 것들이다.⁷⁶⁾ 그러면서도 양성 일행의 <표류기>에 비해 큰 차이가 나는 내용은 거리감에서인데, 南蠻은 나라의 정남쪽에 있는데 순풍이면 3개월 만에 도착하고, 일본은 나라의 동남쪽에 있는데 순풍이면 5일 만에 도착하며, 중국은 나라의 서쪽에 있는데 순풍이면 20일 만에 도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⁷⁷⁾ 그러나 양성 일행의 <표류기>에 있어서는 일본은 서풍을 따라 18일 동안의 거리에, 중국은 동남풍을 따라 7일 동안의 거리에 있다고 함으로써 거리감의 상대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그러면서 모든 대상을 바라봄에 있어 그 기준이 역시 우리 문화적 감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테면 성의 높이가 우리 나라의 都城과 같다거나 성문이 우리 나라와 같았다고⁷⁸⁾ 하는 사실 및 특이한 남방문화적 풍속들에 대한 묘사는 이국 문물의 향토색을 짙게 한다. 특히 상하의 남녀는 모두 맨발로 다녀 신발을 신지 않으며, 다만 성 밖에서는 신을 신으나 尊長者를 만나면 벗어 버린다는⁷⁹⁾ 사실에 이르면 문화후진 시각임을 느낄 수 있다.

초득성 일행의 <표류기>가 <세조실록>에 양성 일행의 <표류기> 바로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비슷한 시기의 표류사실이라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표류기가 동일인물이나 동일기관에서 간접기록될 가능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성법도 동일한 풍토기적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

侍從之 王子 不與國王同處 別在他所. 國王燕居 或用紅白綃 或用黑綃裹頭 若出入則着倭笠 狀如本國女竹笠 內紅外黑 服飾 與朝官無別”(《世祖實錄》世祖 8년 2월 辛未條)

75) “諸穀皆有 其畜有牛馬雞犬 獸有獐鹿 禽有燕鶯鴉鳩黃雀 無虎豹. 其菜 有蔥薤 蒜薑蘿菹萵苣 芭蕉藕荷芋薯蕷”(위의 책)

76) “初到彌抄槐島 本島人 與隣近屈伊麻島 日南浦島 時麻子島 于甘島 五島人民 互相往來飲酒 每相往時 必請肖得誠等 厚慰之”(위의 책)

77) “南蠻在國正南 順風則可三月乃到 日本國 在國東南 順風則可五日乃到 中原在國西 順風則可二十日乃到云”(위의 책)

78) “城高如我國都城而稍高 城門亦如我國”(위의 책)

79) “上下男女 竝皆徒跣而無靴鞋 但城外着鞋 如倭鞋 入宮城 不着 雖城外若見 尊長則亦脫去”(위의 책)

(3)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① 形成 背景

김비의 일행의 <표류기>는 생환인 金非衣·姜茂·李正 등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濟州牧使 鄭亨의 명을 받아 진상할 감귤을 鼻居刀船에 싣고 운반하는 책무를 띤 뱃사공들이었기에 스스로 표류기를 적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 만약 그들 생환인 중 한문이나 글 쓰기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崔溥·李志恒·張漢喆처럼 직접 표류사실을 기록한 작품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표류기>는 당시 성종이 弘文館에 명하여 표류의 전말을 써서 아뢰도록 기록된 바⁸⁰⁾ 이는 홍문관에서 생환인들의 구술을 듣고 기록하여 성종께 알리고 이 알린 것이 <成宗實錄>에 전하게 된 것이다.

성종 10년 5월 16일조에 보면 宣慰使 李則이 馳啓하여 유구국 사신 上官人 新時羅, 副官人 三末三甫羅, 押物 要時羅·也而羅, 船主 皮古仇羅, 伴從人, 格人 등 219인과 제주 표류인 김비의·강무·이정 등이 세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鹽浦에 도착한 내용과⁸¹⁾ 표류자들의 표류사실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성종 10년 6월 10일조에는 앞서 성종 10년 5월 16일조보다 더 자세하게 표류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노정 중의 일부 섬의 명칭에 있어서는 표기가 다른데, 이를테면 6월 10일조에는 유구 풍속에 의하면 섬(島)을 ‘是麼’라 한다 하여⁸²⁾ 閩伊是麼·所乃是麼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섬의 명칭에 있어서도 표기를 달리하고 있는데⁸³⁾ 이는 일부 표류자들

80) “上 令弘文館 書其言以啓”(〈成宗實錄〉成宗 10년 6월 乙未條)

81) “宣慰使李則 馳啓云 令來琉球國使臣 上官人新時羅 副官人三末三甫羅 押物要時羅也而羅 船主皮古仇羅及伴從人格人等 合二百十九人”(〈成宗實錄〉成宗 10년 5월 辛未條)

82) “其俗 謂島爲是麼”(〈成宗實錄〉成宗 10년 6월 乙未條)

그런데 梁成 일행의 <漂流記>에서는 ‘吾時麻島’라 하여 ‘時麻’로 되어 있고, 李景稷의 <扶桑錄>의 8월 12일조에는 ‘倭音以島爲時麻’라 하여 ‘時麻’로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張德順은 ‘是磨’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張德順, “紀行·日記의 白眉「漂海錄」”, 《韓國隨筆文學史》, 새문社, p.125.)

83) 이런 사실은 閩伊是麼(允伊島)·捕月老麻是麼(倬突麻島)·捕刺伊是麼(勃乃伊

의 인명에서도 나타나는 차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⁸⁴⁾

② 作品의 構造

〈成宗實錄〉成宗 10년 6월 乙未條에 기록된 金非衣 일행의 〈표류기〉는 내용상 ‘출범-표류-귀환’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출범’에 관한 내용에서는 출발일시·출발지·일행·출발동기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표류’에 관한 내용에서는 표류일시, 첫 표류지역, 표류원인,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표착지역, 노정과 견문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견문 부분이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귀환’에 관한 내용도 출발일시와 출발지역 및 출발노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 成宗 8년 (1477) 2월 1일 2. 출발지 : (濟州) 3. 일행 : 金非衣 · 姜茂 · 李正 · 玄世守 · 金得山 · 李靑敏 · 梁成突 · 曹貴奉 4. 동기 : 柑子를 進上하기 위해
漂 流	1. 표류일시 : 2월 1일 2. 첫 표류지역 : 楸子島 근해 3. 표류원인 : 홀연히 동풍이 크게 일어나 4.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1) 처음 서쪽으로 표류 (2) 6일째는 바닷물이 맑고 푸르름 (3) 7,8일째는 바닷물이 혼탁함 (4) 9일째는 남쪽으로 표류 (5) 14일째 날 섬 기슭에서 배가 파손되어 玄世守 · 金得山 · 李靑敏 · 梁成突 · 曹貴奉 등은 익사

島) · 欸尹是麼(后伊是麻島) · 他羅馬是麼(脫羅麻島) · 伊羅夫是麼(伊羅波島) · 覓高是麼(悖羅彌古島) 등에서 나타난다.

84) 표류자들의 이름 표기에 있어 成宗 10년 5월 辛未條와 成宗 10년 6월 乙未條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해 金非衣 · 李靑敏 · 梁成突 · 曹貴奉 등이 金非乙介 · 李清密 · 梁成石伊 · 曹怪奉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 (6) 金非衣·姜茂·李正 등은 한 판자에 타서 홀러다님
- (7) 고기잡이 배에 구조
5. 漂着地域：閩伊是麼
6. 路程과 見聞
- (1) 閩伊是麼에서 여섯 달을 머물음
- 1) 人家·形勝(인가는 섬을 둘러가며 삶. 주위를 도는 데 2일 걸림)
 - 2) 廬幕에 머물음. 섬 사람들의 음식 접대
 - 3) 容貌(우리 나라와 같음)
 - 4) 靑小珠(남녀의 귀와 목에 장식)
 - 5) 鞋(맨발로 신이 없음)
 - 6) 남자의 머리와 턱수염 및 부인의 머리와 나무빗
 - 7) 器用(가마·술·술갈·소반·밥그릇·자기·와기가 없음)
 - 8) 쌀의 專用(조는 있어도 심기를 좋아하지 않음)
 - 9) 밥과 밥상 및 식사하는 법
 - 10) 鹽醬과 瓠자그릇
 - 11) 濁酒와 술잔 및 안주
 - 12) 떡(쌀을 디딜방아에 찼고 뭉쳐 종려나무 잎에 싸서 삶음)
 - 13) 居室(1실을 만들되 내실이나 창이 없음)
 - 14) 冠帶(관대는 없고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삿갓 모양의 것을 씌)
 - 15) 衣服(삼·목면이 없음. 직령의 옷과 같음. 염색함)
 - 16) 家畜(소·닭·고양이를 기름. 소와 닭고기를 먹지 않음)
 - 17) 材木과 雜獸
 - 18) 날짐승(비둘기·黃雀)
 - 19) 곤충(거북·뱀·두꺼비·개구리·모기·파리·박쥐·벌·나비·사마귀·잠자리·지네·지렁이·개똥벌레·게)
 - 20) 田結(쟁기 없음. 논은 12월 파종, 정월에 이앙, 4·5월 수확, 7·8월 다시 수확)
 - 21) 낚과 도끼와 鑊子
 - 22) 장례(관 속에 앉혀 바닷가 바위 밑에 둠)
 - 23) 기후(따뜻함)
 - 24) 채소(마늘·가지·참외·토란·생강)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5) 나무 (烏梅 · 뽕나무 · 대나무) 26) 과일 (청귤 · 작은 밤) 27) 燈燭이 없음 (헛불 사용) 28) 뒷간이 없음 29) 베짜기 30) 升數와 麤細 31) 우물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표나 병을 사용 물을 길음) 32) 선박 (키와 상앗대만 있고 노가 없음) 33) 도적이 없음 34) 酋長이 없고 文字를 모름 (2) 所乃是麼에서 다섯 달을 머물음 1) 形勝 (좁으면서도 긴 섬, 주위를 도는 데 4,5일 걸림) 2) 言語 · 飲食 · 衣服 · 居室 · 風土 (閩伊是麼와 같음) 3) 부인의 黑木과 小青珠 4) 농작물 (벼 · 조) 5) 가축 (소 · 닭 · 고양이 · 개를 기름, 쇠고기는 먹으나 닭고기는 먹지 않음) 6) 멧돼지 (산에 있음) 7) 과일 (유자 · 작은 밤 · 도토리) 8) 채소 (토란 · 늦오이 · 생강 · 마늘 · 가지 · 호박) 9) 材木 (많음, 타도에 팔음) 10) 미 (삶아 먹음) 11) 날짐승 (까마귀 · 비둘기 · 바다가마우지 · 갈매기 · 해오리 · 黃雀) 12) 곤충 (모기 · 파리 · 두꺼비 · 개구리 · 뱀 · 달팽이, 달팽이를 삶아 먹음) (3) 捕月老麻伊是麼에서 한 달을 머물음 1) 山川과 形勝 (땅은 평평하고 沙石의 땅, 산이 없음, 所乃島보다 조금 작음) 2) 言語 · 飲食 · 衣服 · 居室 · 風土 (閩伊島와 같음) 3) 농작물 (기장 · 조 · 밀 · 보리, 쌀은 所乃島에서 사음) 4) 전결 (밀과 보리를 가울에 파종하여 2,3월 수확) 5) 날짐승 (비둘기 · 黃雀 · 갈매기)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6) 가축(소·닭·고양이를 기름, 쇠고기는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않음) 7) 채소(가지·토란·마늘·박) 8) 小青珠(남녀의 귀에 장식) 9) 材木과 과일나무가 없음 10) 곤충(모기·파리)
	(4) 捕刺伊是麼에서 한 달을 머물음 1) 山川·形勝·人家(지형은 평평하고 산이 없음. 주위를 도는 데는 2일 걸림. 인가 40여 호) 2) 言語·衣服·飲食·居室·風土(閩伊島와 같음) 3) 靑珠(남녀의 팔과 정강이에 장식) 4) 날짐승(비둘기·황작·갈매기) 5) 농작물(기장·조·밀·보리, 쌀은 所乃島에서 사음) 6) 가축(소·닭·고양이를 기름, 쇠고기는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않음) 7) 채소(가지·토란·마늘·박) 8) 材木과 과일나무가 없음 9) 곤충(모기·파리)
	(5) 欽尹是麼에서 한 달을 머물음 1) 山川과 地形(지형은 평평하고 산이 없음. 주위를 도는 데 1일 걸림) 2) 言語·飲食·衣服(閩伊島와 같음) 3) 농작물(기장·조·밀·보리, 쌀은 所乃島에서 사음) 4) 날짐승(비둘기·黃雀·갈매기) 5) 가축(소·닭·고양이, 소는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않음) 6) 채소(마늘·토란) 7) 과일나무와 材木이 없음 8) 곤충(모기·파리·달팽이, 달팽이를 삶아먹음)
	(6) 他羅馬是麼에서 한 달을 머물음 1) 山川·形勝·人家(지형이 평평하고 산이 없음. 주위를 도는 데 1일 걸림. 인가는 50여 호) 2) 言語·飲食·居室·風土(閩伊島와 같음) 3) 농작물(기장·조·밀·보리)

構造的 段階	内 容 主 題
	4) 材木과 과일나무가 없음 5) 의복(苧布 사용. 남색 염색) 6) 날짐승(비둘기·黃雀·갈매기) 7) 곤충과 가축(앞의 섬들과 동일) (7) 伊羅夫是麼에서 한 달을 머물음 1) 山川과 形勝(지형은 평평하고 산이 없음. 주위를 도는 데 2일 정도 걸림) 2) 言語·飲食·居室·風土(閩伊島와 같음) 3) 衣服(他羅馬島와 같음) 4) 水晶 구슬(부인들의 이마에 장식) 5) 농작물(기장·조·밀·보리·벼) 6) 材木(종려나무·뽕나무·대나무) 7) 가축(소·닭·고양이). 집에 쥐가 있음. 술을 빚을 때 쌀누룩 사용 8) 날짐승(갈매기·해오라기·黃雀·비둘기) 9) 곤충(모기·파리·달팽이) 10) 채소(마늘·토란·생강) (8) 覓高是麼에서 한 달을 머물음 1) 山川과 形勝(지형은 평평하고 산이 없음. 주위 도는 데 5, 6일 걸림) 2) 言語·飲食·居室·風土(閩伊島와 같음) 3) 衣服(他羅馬島와 같음) 4) 구슬(부인들이 목에 걸) 5) 뿔간(집에 있음) 6) 가축(소·닭·고양이·개. 개를 기를. 쇠고기는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않음) 7) 날짐승(새·비둘기·黃雀·갈매기·해오라기) 8) 곤충(거북이·뱀·두꺼비·개구리·모기·파리·달팽이. 달팽이는 삶아 먹음) 9) 채소(마늘·수박·가지·토란) 10) 材木(종려나무·뽕나무·대나무·기타 雜木) (9) 琉球國에서 석 달을 머물음 1) 琉球國人と 通事와의 문답(국적·표류원인)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 客館에 머물음
	3) 유국국인들의 음식 대접
	4) 國王母의 出遊
	5) 7월 15일의 幢蓋 풍속
	6) 국왕의 殿閣·人家
	7) 의복(서민은 苧衣를 입음)
	8) 田結(논밭이 반반, 벼는 겨울 파종, 5월 수확, 겨울·가을 2차 수확)
	9) 음식(밥은 쌀을 사용)
	10) 술(청주와 탁주가 있음. 南蠻國 술이 있음)
	11) 寺刹(판자로 덮고 옷칠을 함. 황금불상, 증은 머리를 깎음)
	12) 식기(밥그릇 木器, 국그릇 磁器, 젓가락은 있으나 숟갈이 없음)
	13) 시장(綵緞·縐帛·苧布·生苧·빗·剪刀·바늘·채소·魚肉·소금·젓갈·南蠻國班縐·班綿布·檀香·白經黑緯綿布·藤唐青黑白綿布·瓷器 등을 팔음)
	14) 중국 商人(집은 瓦家)
	15) 맨발 풍속
	16) 通事(일본인)
	17) 江南人과 南蠻國人의 교역
	18) 兵器(궁시·도끼·갈고리·刀劍·낚·삼·갑옷·투구)
	19) 軍士(철로써 정강이를 씌)
	20) 기후(閩伊島와 같음)
	21) 材木(소나무·종려나무·대나무)
	22) 家畜과 家禽(말·소·염소·고양이·돼지·개·닭·짐비 들기·거위·오리), 집에 쥐가 있음, 말과 소는 잡아먹음
	23) 날짐승(까마귀·까치·黃雀·매·제비·갈매기·바다가마 우지·올빼미)
	24) 과일(매화·복숭아·유자·청귤)
	25) 채소(토란·가지·참외·冬瓜·무우·파·마늘·해바라 기·파초)
	26) 곤충(모기·파리·두꺼비·개구리·거북이·뱀·달팽이·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벌 · 나비 · 사마귀 · 잠자리 · 등에 · 지네 · 거미 · 매미 · 빈 대 · 지렁이 · 개똥벌레 · 박쥐) 27) 유구국왕에게 귀환 요청 28) 霸家臺人 新伊四郎과 귀환 동행 허락 29) 돈 1만 5천文, 후추 1백 5십근, 靑染布 · 唐綿布 각각 3 匹, 석달의 糧米 5백 6십斤, 鹽醬 · 왕골자리 · 漆木器 · 밥 상 등을 줌
歸 還	1. 8월 1일 출발 4일 만에 薩摩州 도착 한 달을 머물음 (1) 金非衣의 두통 (2) 新伊四郎의 供饋 (3) 州 太守의 供饋와 板屋 (4) 9월 打家西浦에 도착 (5) 霸家臺에 도착 여섯 달을 머물음 1) 人家(우리 나라 都城과 같음) 2) 시장(우리 나라와 같음) 3) 新伊四郎의 집에 머물음 4) 大内殿 主將의 대접 5) 大内殿의 小二殿 공격 (6) 成宗 10년 2월 軾駕島 도착 하룻밤 지냄 (7) 一岐島에 도착 3일 머물음 (8) 對馬島 草那浦에 도착 두 달을 머물음 (9) 4월 沙浦에 도착 2일 머물음 (10) 都伊沙只浦에 도착 3일 머물음 (11) 鹽浦에 도착 (12) 서울에 도착

성종 8년(1477) 2월 1일 표류당하여 성종 10년(1479) 5월 3일 염포에 돌아
오기까지는 무려 2년 3개월여가 경과된 셈이다. 그 간의 노정을 보면 추자도
근해에서 바람을 만나 14일 만에 閨伊是麼에 처음 표착하여 所乃是麼 · 捕月老
麻伊是麼 · 捕刺伊是麼 · 欸尹是麼 · 他羅馬是麼 · 伊羅夫是麼 · 覓高是麼 · 琉球
國을 거쳐 일본의 薩摩州 · 打家西浦 · 霸家臺 · 軾駕島 · 一岐島 및 對馬島의

草那浦・沙浦・都伊沙只浦를 경유하여 염포에 도착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형승・언어・의복・음식・거실・풍토・농작물・가축・날짐승・곤충・채목・채소 등은 물론 유구국에서의 國王母의 出遊 장면이나 霸家臺에서의 大内殿과 小二殿의 싸움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③ 主要内容

(가) 形勝・山川・人家・氣候：閩伊是麼는 人家가 섬의 주위에 둘러가며 살고 있고 섬의 주위를 도는 데 2일 정도 걸리며 기후는 따뜻하여 겨울에도 서리와 눈이 없다. 所乃是麼는 좁으면서도 긴 섬인데 주위를 도는 데 4, 5일 정도 걸리고, 捕月老麻伊是麼는 땅이 평평하여 산이 없고 모두 沙石의 땅으로 주위는 소내도에 비하여 조금 작다. 捕刺伊是麼・欽尹是麼・他羅馬是麼・伊羅夫是麼・覓高是麼는 지형은 평평하여 넓고 산이 없다. 유구국은 기후가 윤이도와 같으며 인가는 기와로 덮기도 하나 板屋이 매우 많고, 霸家臺는 인가가 우리 나라 都城과 같다.

(나) 宮室・國王：국왕이 죽고 대를 이을 왕자가 나이 10여 세로 어리기 때문에 母后가 臨朝하고 있는데 김비의 일행은 국왕모의 出遊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

(다) 言語・文字・居室：閩伊是麼는 사람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언어가 통하지 않다. 居室은 1실을 만들되 内室이나 창이 따로 없으며 前面은 조금 높이고 後面은 처마가 땅에 드리워져 있으며 대개 띠를 사용하는데 기와는 없다. 또한 所乃是麼・捕月老麻伊是麼・捕刺伊是麼・欽尹是麼・他羅馬是麼・伊羅夫是麼・覓高是麼 등은 언어・거실・풍토가 대개 윤이시마와 같다. 유구국에는 중국 상인이 왔다가 거주하는 자가 있는데 그 집은 모두 瓦家이고 채도와 규모는 宏麗하다.

(라) 軍兵・兵器・攻戰：유구국의 군사는 첩로써 정강이를 싸고 혹은 가죽에 옷칠을 한 것을 사용하는데 行纏과도 같으며, 병기로는 궁시・도검・갑옷・투구 등이 있다. 일본의 霸家臺에 이르니 大内殿과 小二殿의 兵亂이 계속되다.

(마) 通事・交易：유구국의 通事는 일본인이고, 유구국에는 시장이 있는데 綏段・繪帛・苧布・生苧・빋・剪刀・바늘・채소・魚肉・소금・젓갈・南蠻國

班繪・班布・檀香・白經黑緯綿布・藤唐青黑白綿布・瓷器 등의 물건이 있으며, 江南人과 南蠻國人이 와서 장사를 한다.

(바) 佛宇 : 유구국의 사찰은 판자로 덮여 있고, 불상이 있는데 모두 황금이
고, 居僧은 머리를 깎으며 검은 옷도 입고 백의도 입으며 가사는 우리 나라와
같다. 7월 15일에는 모든 사찰에서 幢蓋를 만드는데 彩段을 사용하기도 하고
彩繪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위에 人形이나 鳥獸의 형상을 만들어 왕궁에
보낸다. 居民은 남자 少壯者를 골라 황금가면을 쓰고 피리를 불며 북을 치면
서 왕궁으로 나가 그 날 밤 크게 雜戲를 벌인다.

(사) 衣服・飲食 : 閼伊是麼의 경우 오직 모시를 짜서 베를 만들어 옷을 만
드는데 直領과 같으며 옷깃과 주름은 없고 소매는 짧고 넓다. 염색은 藍靑을
쓰고 속옷은 白布 세 폭을 사용하여 불기에 둘러맨다. 부인의 옷도 같으나 다
만 치마를 입고 속옷이 없으며 치마도 역시 청색을 물들인다.

유구국의 경우는 서민은 모두 하얀 苧衣를 입고 부인은 머리 뒤로 쪽을 끼
고 모두 하얀 苧布를 입으며 적삼은 하얀 저포로 하고 치마는 흑 하얀 저포
긴 옷을 입는다. 만일 존귀자는 비단으로 된 저고리와 도포가 있고 아이는 저
고리 치마가 있다. 수령은 얼룩무늬 비단으로 상투를 싸고 白細苧布를 입으며
衣帶는 붉은 물을 들인 비단이다.

윤이시마에는 가마・술・술갈・소반・밥그릇 등이 없고 흙으로 술을 만드
는데 5, 6일이면 곧 파열하다. 쌀을 전용하는데 비록 조는 있어도 심기를 즐
기지 않고 밥은 대나무 상자에 채워 넣되 丸을 만들어 주먹 크기만하고, 밥상
은 없다. 鹽醬은 없고 해수에 채소를 넣어서 국을 만든다. 술은 탁주는 있으
나 청주는 없다.

所乃是麼・捕月老麻伊是麼・捕刺伊是麼・欸尹是麼 등은 의복과 음식이 윤
이도와 같고, 他羅馬是麼・伊羅夫是麼・覓高是麼 등은 음식은 윤이도와 같으
나 의복은 苧布를 사용하여 藍色으로 물들여 다듬이질하고 옷을 만들어 그 빛
깔이 彩段과 같아 윤이도와 다르다. 유구국의 경우 밥은 쌀을 사용하고 또 염
장을 사용한다. 젓가락은 있으나 숟가락은 없으며 젓가락은 나무이다. 술은
청주와 탁주가 있고, 또 南蠻國의 술이 있는데 빛은 누렇고 맛은 소주와 같으
며 매우 독하다.

(아) 田結 : 閩伊是麻는 鐵冶는 있으면서도 쟁기를 만들지 않고 작은 삼을 사용한다. 水田은 12월에 파종하며, 정월에 이앙하나 풀을 베지 않는다. 올벼는 4월에 수확을 마치고 늦벼는 5월에 수확을 마친다. 수확한 다음에는 뿌리에서 다시 순이 자라나서 7, 8월에 다시 수확한다. 捕月老麻伊是麼는 밀과 보리를 심는데 2, 3월에 수확한다. 수확 후에 밭을 갈고 모든 곡식 씨를 심는데 10월에 파종하고 2, 3월에 수확하며, 다시 파종하여 7, 8월에 또 수확한다. 유구국은 논과 밭이 서로 반반인데 밭이 조금 많으며, 논은 겨울에 파종하여 5월에 벼가 모두 익어서 수확을 마치고, 또 소로 다시 밟아서 파종하여 7월에 이앙하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수확한다. 밭은 작은 삼으로 이를 일구어서 조를 심는데 겨울에 처음 파종하고 5월에 수확하면 6월에 다시 파종하여 8월에는 처음으로 이삭을 드리우고 익어간다.

(자) 土産 : 윤이시마는 집에 소·닭·고양이를 기르나 소와 닭고기는 먹지 않고 죽으면 곧 물어 버린다. 산에는 材木이 많고 雜獸가 없으며, 날짐승으로는 비둘기와 黃雀이 있고, 곤충은 거북·뱀·두꺼비·개구리·모기·파리·박쥐·벌·나비·사마귀·잠자리·지네·지렁이·개똥벌레·게 등이 있다. 소내시마는 산에 멧돼지가 있고 달팽이를 삶아 먹는다. 큰 뱀의 길이는 5,6척이나 되고 크기가 서까래만 한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구렁이를 보고서 아이의 발을 구렁이 위에 올려 놓고 쓰다듬는다. 흘윤시마·이라부시마·떡고시마에서는 달팽이를 삶아먹는다. 유구국은 말과 소는 잡아먹기도 하고 시장에서 팔기도 하며 또 닭도 먹는다. 메뚜기와 비슷한 것으로 큰 것은 사람들이 잘 먹으므로 시장에서 팔기도 한다.

(차) 風俗 : 윤이시마 섬 사람의 용모는 우리 나라와 동일한데 귀를 뚫어 靑小珠를 2, 3촌쯤 드리우고 또 구슬을 꿰어 목에 3, 4점으로 둘러서 1척쯤 드리우며, 남녀가 같이 장식한다. 남자는 머리를 묶고 구부려 포개어 삼베끈으로 묶으며 목가에 상투를 짓고 망건은 쓰지 않는다. 턱수염은 길이가 배꼽을 지나며, 묶고 둘러서 상투 켜 것이 몇 겹씩 된다. 부인의 머리도 역시 길어서 일어서면 발뒤꿈치에 미치고, 짧은 것은 무릎까지 이르는데 상투를 끼지 않고 머리 위에 두르며 옆으로 나무빗을 귀밑머리에 꽂는다. 冠帶는 없고 더우면 종려나무 잎으로 샛갓 모양의 것을 만드는데 우리 나라의 僧笠과 같다. 사람

이 죽으면 棺 속에 앉혀서 바닷가 바위 밑에 두는데 만약 바닷가 바위가 넓으면 5, 6개의 관을 함께 둔다.

④ 表現 形式上의 特徵

金非衣 일행의 <표류기>에 나타난 하나의 문예적 특징으로는 극히 세심한 관찰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려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표류자들은 유구와 일본의 이색적인 풍토와 여행 중에 마주친 여러 지역의 인간들의 모습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서술하려는 노력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풍토 서술은 이역 만리의 낯선 땅에 표류된 그들의 처지를 실감나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노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의 배경으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예컨대 그들 일행이 유구국 沖繩島에서 國王母의 出遊 장면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사실적이다.

俺等適見國王之母 出遊 乘漆輦 四面垂簾 昇者幾二十人 皆着白苧衣 以帛囊首 軍士持長劍 佩弓矢 擁衛前後幾百餘人 吹雙角雙太平囂 放火砲美婦四五人 着綵段衣 表着白苧布長衣 俺等出道傍拜謁 駐輦以二鐵瓶 盛酒酌以髹木器 俺等其味與我國同 有小郎稍後別行 年可十餘歲 貌甚美 髮垂後 不髻着紅綃衣束帶 乘肥馬 執轡者皆着白衣 騎馬前導者四五人 扶擁左右者 亦甚衆 衛士持長劍者 二十餘人 持傘者 竝馬而行 以障日 俺等亦拜謁見 小郎下馬 以鐵瓶盛酒饋之 飲訖 小郎上馬去 國人云 國王薨 嗣君年幼 故母后臨朝 小郎年長 則當爲國王⁸⁵⁾

적어도 위 예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락은 母后에 대한 서술 부분이고, 둘째 단락은 그 아들 小郎에 대한 서술 부분이며, 셋째 단락은 성년이 되면 소랑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그 나라 사람이 말한 부분이다. 교자를 든 자나 아름다운 부인들의 복장은 말할 것 없고 전후로 호위하는 군사들에 대한 서술 역시 매우 사실적이다. 악기의 편성이라든지 화포를 쏘는 일, 衛士들의 숫자나 그들의 갖고 있는 무기, 그리고 술병이나 술잔까지도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모후나 소랑이 木器에다 술을 부어 주는 부분에

85) <成宗實錄> 成宗 10년 6월 乙未條

이르면 그들의 표정까지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다. 부분에서 전체로, 중심에서 그 배경으로 서술하면서 대상을 실지로 보는 것과 같이 느끼게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행문학적 지방색이나 향토색 위주의 사실적인 서술은 김비의 일행의 〈표류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노정 중에서 보았던 物産이나 시장에서의 물품 등에서는 물론 霸家臺에서의 大內殿과 小二殿의 兵亂 묘사⁸⁶⁾ 등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시선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와의 간접적 비교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서술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閨伊是麼의 경우 남녀가 모두 맨발로 신이 없이 다닌다거나⁸⁷⁾ 흙으로 만든 술이 5, 6일이 지나면 파열한다는⁸⁸⁾ 사실들은 그들의 문화가 우리들의 문화보다 후진이라는 시각이다. 심지어 집 안에는 칩간이 없어 뒤뜰에서 용무를 본다는가,⁸⁹⁾ 鹽醬이 없고 채소를 넣어서 국을 끓이며,⁹⁰⁾ 청주는 없고 탁주만이 있는데 쌀을 물에 불렀다가 여자로 하여금 씹게 하여 죽 같이 만들고 나무통에서 발효시키는데 누룩은 사용하지 않았음을⁹¹⁾ 서술하는 대목에서는 더욱 그들의 문화 수준이 우리들보다 못하다는 의식이 확연해진다. 특히 간접적이기는 하나 일본인들에 대한 유구국왕의 부정적 인식을 통해서 일본을 알 수 있게 하는데 표류자들이 유구국에 석 달 가량 체류하다가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 유구국왕은 일본인의 성질이 간악해서 그들에게 보호를 청할 수 없으니 표류자들을 江南으로 보내어 돌려보내겠다고⁹²⁾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마침 일본 霸家臺 사람 新伊四郎 등이 장사하러 이곳에 들렀다가 일본이 조선국과 우호가 있으니 표류자들을 잘 보호해서 무사히 귀국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김비의 일행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받는다. 이로 미루어 유구국의 일본인들에 대한 부정

86) “俺等 見主將 往攻小二殿 擁兵而出 軍士持槍劍小旗者 三四萬人 凡四月 戰勝而還 斬六級 梟首於竿”(〈成宗實錄〉 成宗 10년 6월 乙未條)

87) “男女 皆徒跣無鞋”(위의 책)

88) “無釜鼎匙箸盤盂 磁瓦器搏土作鼎 曝日乾之 熏以藥火炊飯 五六日輒破裂”(위의 책)

89) “家無廁 遺矢於野”(위의 책)

90) “無鹽醬 以海水 和菜作羹”(위의 책)

91) “酒有濁而無清 漬米於水 使女嚼而爲糜 釀之於木桶 不用麴藥”(위의 책)

92) “國王答曰 日本人性惡 不可保欲遣你江南”(위의 책)

적 시각이 강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유구 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우호적 시각을 아울러 알 수 있다.

김비의 일행의 〈표류기〉는 시간에 따른 순차적 구성을 취하면서 그들의 견문을 형승·언어·의복·음식·거실·물산·풍토 등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풍토기적 구성법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많은 海槎錄類 작품들이 날짜순에 의한 노정을 서술한 외에 부록격으로 〈見聞雜錄〉·〈聞見摠錄〉·〈聞見別錄〉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 聞見別單들이 이러한 서술법을 취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⁹³⁾

(4) 李暹 일행의 漂流記

① 形成 背景

〈成宗實錄〉 成宗 14년 9월 丙申條에 보면

御臺講訖 參贊官金宗直啓曰 臣 近撰李暹行錄 而觀其事跡 至爲可嘉

라고 하여 參贊官 金宗直이 李暹 일행의 〈표류기〉를 편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성종실록〉 성종 14년 8월 壬午條에는

命弘文館直提學金宗直 因李暹行錄 又採其言書啓

라 하여 弘文館 直提學 金宗直이 李暹의 行錄을 따라 그의 말을 뽑아 글로 아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섬 일행의 〈표류기〉는 김종직이 이섬의 구술을 토대로 간접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旌義縣監 李暹과 訓導 金孝胖 등 47명은 성종 14년(1483) 봄에 표류하여 해상에서 밤낮 열흘을 떠다니다가 中原 楊州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는 굶어 죽은

93) 이와 같은 사실은 申維翰의 〈海遊錄〉 중 〈附見聞雜錄〉, 姜弘重의 〈東槎錄〉 중 〈聞見總錄〉, 金世濂의 〈海槎錄〉 중 〈見聞雜錄〉, 黃辰의 〈東槎錄〉 중 〈聞見總錄〉, 李鎮泳의 〈東槎日記〉 중 〈聞見錄〉, 曹命采의 〈奉使日本時間見錄〉 중 〈聞見總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이 14명이었고, 이섬과 김효반 등 33명이 北京에 도착하였는데, 千秋使 朴堧이 데리고 돌아온다. 이에 조정에서는 坡陵君 尹甫를 사신으로 삼고 朴堧을 副使로 삼아 謝恩使를 보내었다.⁹⁴⁾

이섬이 돌아오자 성종은 다섯 資級을 가하고 役을 면해 주어 표창하고 있는데, 司憲府 掌令 李從允, 司諫院 獻納 楊沔, 사헌부 持平 李祿崇 등은 단지 표류하다가 돌아온 것뿐이기 때문에 다섯 자급을 뛰어올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아뢰는가 하면,⁹⁵⁾ 김종직은 성상의 은혜와 영광이 지극하다고 칭송할 뿐 아니라 일행 중 중국사람과 시로 창화하여 조선의 聲教를 떨어뜨리지 않은 훈도 김효반과 이섬이 바다에서 표류 중 자살하려고 하자 끊어앉아 말로 진술하여 죽지 못하게 한 戶長 韓進에게도 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고 있다.⁹⁶⁾

이섬의 표류 사실은 崔溥의 <표해록>에도 여러 곳에 언급되었는데⁹⁷⁾ 특히 崔溥는 桃渚所에 이르렀을 때에 이섬이 체류한 楊州府가 얼마의 거리에 있는가고 묻고 있다.

② 作品의 構造

이섬 일행의 <표류기>는 크게 ‘출범-표류’의 2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출발’은 출발일시·출발지·출발동기 등의 내용이 나타났으며, ‘표류’는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표류원인, 표류과정, 표착지역, 노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끝 부분에는 바다에서의 표류상황을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 成宗 14년(1483) 2월 29일 2. 출발지 : 濟州 3. 일행 : 旌義縣監으로 있다가 遞任되어 가다가

94) <成宗實錄> 成宗 14년 8월 壬申條

95) <成宗實錄> 成宗 14년 9월 乙未條·丙申條

96) <成宗實錄> 成宗 14년 9월 丙申條

97) 崔溥의 <漂海錄> 戊申年 윤정월 14일조, 2월 23일조, 4월 20일조, 5월 19일조 등에 나타난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漂 流	1.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 楸子島 10리 근해에서 2. 원인 : 동북풍을 만나 雲霧가 사방에 짙 차고 빗줄기가 물 붓는 것 같았으며 노도가 산과 같아서 3.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 10일을 표류 4. 표착지역 : 中國 長沙鎮 5. 노정 (1) 長沙鎮에서 2일을 머물음 1) 千戶 桑鎧가 李暹 등을 反接해감 2) 巡檢官 聶摠의 審問 (2) 掘港指揮所에서 2일을 머물음 1) 桑鎧 등의 供狀과 李暹의 扣頭 2) 摠兵官 郭摠의 審問 (3) 楊州에 도착 1) 指揮僉事 劉胤의 審問 2) 謝士元과 詩 和答 (4) 淮陰縣에 도착 1) 陳鑑 사위와의 문답 (5) 6월 10일 北京에 도착 1) 兵部郎官에게 글 5, 6수를 보냄 6. 바다에서의 표류상황

李暹 일행의 <표류기>는 '5. 路程'을 전후해서 형식상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이섬이 성종을 직접 복명하면서 아뢰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후반부는 金宗直이 이섬의 行錄을 따라 그의 말을 뽑아서 글로 아뢰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시간구조면에서도 '6. 바다에서의 표류상황'이 '3. 바다에서의 표류과정'과 별도로 끝부분에 기술되므로 전반부의 시간의 순차적 구성부분과 이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섬 일행이 성종 14년(1483) 2월 29일 표류하여 6월 10일 북경에 도착하기까지는 3개월여가 걸린 셈이며, 千秋使 朴堧을 따라 돌아와 성종께 復命한 것이 성종 14년 8월 22일이니 우리 나라에 귀국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경과된 셈이다. 그 노정도 濟州-長沙鎮-楊州-淮陰縣-北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主要内容

(가) 이섬 등이 처음 長沙鎮에 배를 정박하니 千戶 桑鎧가 병졸을 거느리고 와서 이섬 등을 反接하고 巡檢官 聶摠도 이섬 등을 심문하면서 변방을 범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장사진에 도착한 2경쯤해서는 將卒들이 갑옷을 입고 북을 치며 나오면서 이섬 일행을 죽이려 하는데 巡檢이 큰 소리를 쳐 겨우 죽음을 면한다.

(나) 掘港指揮所에서의 상개 등의 供狀에서도 중국 경계를 침입한 것으로 하는가 하면 吏卒까지도 이에 가담된 행동을 보여 준다.

(다) 摠兵官 郭銃과의 심문에서 成化 15년 윤12월 중국 詔書를 받들어 여진을 북벌한 애기와 성화 16년과 17년에 중국 사신이 계속해서 본국에 들어오니 본국에서는 世子の 誥命을 청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신이 중국에 간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이섬 등의 項鎖와 手縛을 풀어 준다.

(라) 指揮僉事 劉胤의 심문에 仁義에 의한 정치, 農桑에 의한 養民함을 말하고, 朝服·工商의 服, 儒者의 官服, 僧人의 服이 중국과 같다고 한다.

(마) 楊州를 떠날 때 謝士元과 시를 주고 받는다.

(바) 淮陰縣에서 중국인과 《皇華集》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 6월 10일 北京에 도착하여 兵部郎官에게 시 5, 6수를 보낸다.

(아) 발선하던 다음날 풍랑이 몹시 거칠어 물이 배 안에 가득 차니 旌義訓導 金孝胖 등 사람들이 다투어 蓬屋에 목을 매니 이섬과 첩 順非도 목을 매는데 邑吏 韓進이 이를 말린다. 사람들이 힘을 합해 물을 퍼내니 배가 안정된다.

(자) 발선한 지 6일 만에 許生 등 여섯 사람이 굶주림 끝에 포식했다가 죽고, 9일 만에 姜山 등 7인이 죽으며, 10일 쯤 되던 날 夫繼義 등 4인이 죽는다.

④ 表現 形式上的 特徵

이 표류기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대부분의 표류기들과는 달리 이섬의

楊州를 떠날 때 중국인 謝士元과 주고 받은 시까지 수록되어 이채롭다.

江南勝地是楊州
青雀黃龍戴書樓
叩柅張帆浮碧水
暮天涼月逐人流

楊州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쓸쓸한 달이 떠 있는 저문 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發船 직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崔溥의 <표해록>만 하더라도 시를 주고 받았다는 기록은 보이나 실제로 작품 속에 시가 삽입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이 <표류기> 속에 시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섬의 行錄을 뽑아 글로 아뢰 金宗直의 문학적 태도를 엿보게 해 준다.

그런가 하면 표류라는 극한상황이 주어졌을 때 일행이 대처하는 모습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처음 발선했던 다음 날 풍랑으로 돛대와 노가 부러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차자 旌義訓導 金孝胖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蓬屋 위에 목을 매는데, 李暹은 물을 퍼내어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도 또한 봉옥 아래에 목을 매고 있으며, 그의 첩 順非도 두 아이와 함께 목을 매고 있다. 그런 중에도 呂吏 韓進은 이섬 앞에 꿇어앉아 “배 안에 있는 물은 밑바닥에서 새어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밀려서 들어오는 것이므로 힘을 다한다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고 하면서 이섬·김효반·순비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목 맨 것을 풀어 주고, 그들은 힘을 합해 물을 퍼내어 극한상황을 이겨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풍토에 대한 전문은 일체 언급이 없으며 長沙鎮·掘港指揮所·楊州·淮陰縣·北京 등의 노정에 따른 노정기적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

(5) 根廻伊의 漂流記

① 作品의 構造

<燕山君日記> 燕山君 7년 정월 己巳條에는 禮曹에서 아뢰기를

頃者平順治 使送而羅多羅 率來漂流人濟州居內瞻寺奴 根廻伊

라고 기록하여 일본에 표류했던 정회이의 <표류기>가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크게 ‘출범-표류-귀환-후기’ 등의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출범’의 내용은 출발일시가 언급되었고, ‘표류’의 내용은 표착지역·노정 등이 나타나고 있고, ‘귀환’의 내용은 귀환시의 날짜 및 노정 등이 기록되었으며, ‘후기’의 내용은 풍토에 대해 기술하였다.

構造的 段階	内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 燕山君 5년 (1499) 정월
漂 流	1. 표착지역 : 일본 해변 2. 노정 (1) 而羅多羅를 따라 嶺島에 도착 (2) 10일 후 烏叱浦里에 도착 1) 島主 平順治의 환대 2) 平順治는 아들 而羅多羅로 하여금 귀환에 동행케 함
歸 還	1. 귀환시의 날짜 : 연산군 6년 (1500) 정월 12일 2. 路程 (1) 于奇島에 도착 3일을 머물음 (2) 化可大島에 도착 17일을 머물음 (3) 壹岐島에 도착 4일을 머물음 (4) 對馬島에 도착 여섯 달을 머물음 (5) 연산군 6년 7월에 行狀을 받고 30일 齊浦에 도착
後 記	1. 見聞 (1) 平順治는 노루·사슴·멧돼지·꿩·물개 등을 사냥 (2) 왜인들은 고등어·오징어·방어·도미·대구·청어·상어·전복·해삼·홍어·조기·숭어 등을 철에 따라 잡아서 島主의 집에 바침 (3) 논을 소로 갈고 4월 파종, 5월 이앙, 7월 수확, 9월 2차 수확 (4) 田穀은 보리·콩·조·피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5) 도주의 집은 30여 칸의 기와 板屋
	(6) 혼인은 신랑 집에서 交婚한 뒤 밤새도록 酒禮를 행함
	(7) 길 가는 사람은 항상 環刀와 小刀를 참
	(8) 尊長이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신발을 벗고 지나감
	(9) 화내어 싸울 때 環刀로 목을 자르나 檢察하지 않음

정희이가 표류한 것은 연산군 5년(1499) 정월이고 그가 濟浦에 도착한 것은 이듬해 6월 30일이니 고국에 귀환하기까지는 대략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된 셈이다. 아울러 그 간의 노정을 보면 濟州-日本 海邊-旆島-烏叱浦里-于奇島-化可大島-壹岐島-對馬島-濟浦 등으로 나타난다.

② 主要内容

(가) 宮室 : 島主 平順治의 집은 30여 칸이나 되는데 모두 기와로 덮고 나무 판자로 벽을 하였으며, 그 나머지 麾下人들은 長行廊 초가의 각 칸에 入接하고 있는데 본국 시장의 左右行廊과 같다.

(나) 田結 : 논을 소로 갈고 벼씨를 물에 담갔다가 싹이 트면 4월에 씨를 뿌려서 싹이 자란 뒤 5월에 모내기를 하고 제초는 하지 않으며 7월에 수확한다. 그 穀草의 길이는 二把쯤 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익으면 9월에 다시 수확한다. 田穀은 5월 중에 보리·콩·조·피 등을 일시에 씨를 뿌리고 소로 反耕하며 싹이 자란 후에 두 번 제초하여 수확하면 다시 갈거나 씨를 뿌리지 않는다.

(다) 風俗 : 도주 平順治가 사냥할 때마다 말을 타고 環刀와 화살을 허리 사 이 内外에 차고 小刀도 차며 활은 보행인으로 하여금 가져 있게 하는데, 살고 있는 곳의 군사를 모두 모이게 하여 노루·사슴·멧돼지·땃·물개 등의 짐승을 사냥한다. 수렵은 해변에 사는 왜인 등이 고등어·오징어·방어·도미·대구·청어·상어·전복·해삼·홍어·조기·숭어 등을 철에 따라 잡아서 도주의 집에 바친다.

혼인은 여자의 부모가 무늬 있는 옷감으로 그 딸의 머리를 싸서 말에 태워 먼저 가게 하고 부모와 노비가 가며, 신랑 집에서 交婚한 뒤에 밤새도록 酒禮

를 행하고 이튿날 아침에 신부의 부모와 노비는 집으로 돌아간다.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환도와 소도를 차고 다니는데 만약 尊長을 만나면 신발을 벗고 지나가며, 비록 서로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 신을 벗지 않고 지나가면 곧 화를 내어 따라가 잡고서 목을 자른다. 또 사사로이 서로 화내어 싸우면 환도로 서로 쳐서 목을 자르는데 도주는 비록 알더라도 전혀 檢察하지 않는다.

③ 表現 形式上的 特徵

정희이의 <표류기>에 나타난 일본을 보는 시각은 문화후진적 시각이다. 尊長이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신발을 벗고 지나가거나 화내어 싸울 때 環刀로 목을 자르나 檢察하지 않음은⁹⁸⁾ 중앙집권적인 형벌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길 가는 사람은 항상 환도와 小刀를 차고 다닌다고 했는데 지방분권적인 당시 일본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왜인들은 해산물 등을 철에 따라 잡아서 島主의 집에 바치며,⁹⁹⁾ 도주는 사냥을 하면서 지낼 뿐만 아니라 정희이의 귀환 결정도 그의 아들 而羅多羅를 동행시킬 만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정기적 구성을 취하면서 작품 후반에는 도주 平順治를 중심으로 한 견문을 기술하고 있다.

(6) 金紀孫 일행의 漂流記

① 形成 背景

〈中宗實錄〉中宗 29년 11월 丙戌條에 보면

傳于政院曰 濟州漂流人 淮安府止泊 歷南北京而來 邊方備禦 男女服色 所過風俗山川 接待節次 凡道路所觀 欲引入思政殿而問之 然有識之人如 李詹者 親問可也 此乃迷劣之人 但歷過而已 不知山川國俗等事也 承政院乃招問其中 更事者 先問首末而啓可也

98) “行路人常佩環刀與小刀 若過尊長 脫鞋過行 雖不會相知者 若不脫鞋過行 則發怒 追捕斬頭 又私相發怒相鬪者 以環刀相驅斬頭 島主雖知 專不檢察” (〈燕山君日記〉燕山君 7년 정월 己巳條)

99) “隨節漁取 獻島主之家” (위의 책)

라고 하여 표류의 시말을 아뢰도록 하고 있다. 이에 承政院에서는 제주 표류인 金紀孫 등 12인을 모두 招問하여 淮安府 萬戶道에 표박하여 배를 타고 南京을 지나 忠州에 이르면서 남경에서 본 문물과 접대 절차 및 의복 등의 일을 물어서 回啓하고 있는데, 표류자들이 迷劣하고 무지하여 풍속이나 산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듯하다.

② 作品의 構造

김기손 일행의 〈표류기〉는 내용상 크게 ‘출범-표류’의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출범’은 출발일시, 출발지, 일행, 발선 동기 등이 기록되었고, ‘표류’는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표류원인, 표착일시, 표착지역, 노정 및 견문 등이 기술되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中宗 29년 (1534) 2월 20일 2. 출발지: 羅州 3. 일행: 金紀孫·萬珠 등 12인 4. 동기: 身貢을 싣고
漂 流	1.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楸子島 근해 2. 표류원인: 바람을 만나서 3. 표착일시: 윤2월 1일 4. 표착지역: 南京 땅 淮安府 지경 5. 노정 및 견문 (1) 南京의 淮安府 1) 六司의 巡視와 留置 2) 七司의 官員과 服色 3) 刑罰 4) 남녀의 服色 5) 城中的 大伽藍과 官府 및 도로 6) 6월 13일 刑曹官이 甘吐 등을 줌 (2) 6월 14일 浙江에 도착 ○ 彩色된 배 (3) 7월 26일 通州江에 도착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 표류자 13명이 우리 나라 使臣 吳準을 謁見 (4) 다음날 北京에 도착

김기손 일행이 제주를 출발한 것이 중종 29년(1534) 2월 20일이고 중국 南京 曄 淮安府에 표착한 것이 윤2월 1일이니 바다에서의 표류시간도 10여 일이 된다. 그리고 6월 14일 浙江에 도착하고, 7월 26일에는 通州江에 도착하며, 다음날인 7월 27일에는 北京에 도착한다. 김기손 일행의 표류사실에 대해 승정원에 보고토록 한 것이 중종 29년 11월 24일이고 보면 대략 귀환 날짜를 이날을 전후해서 기준을 삼을 때 고국에 돌아오기까지는 10개월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③ 主要内容

(가) 제주 표류인 金紀孫·萬珠 등은 2월 20일 제주에서 身貢을 신고 발선하여 楸子島 근해에 이르렀는데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윤2월 1일 南京 曄 淮安衛 지경에 표착한다.

(나) 어선 5척을 만나 밥과 물을 얻고, 官員이 표류자 12인을 淮安府에 데려간다.

(다) 회안위에는 六司가 있는데, 육사는 표류자들을 司倉에 留置하여 먹여 준다. 七司에는 관원이 각각 한 사람 있다.

(라) 죄인은 大竹과 圓木으로 형벌을 주고, 여자들은 花冠을 쓰며 남자들은 검은 옷을 항상 입는다.

(마) 성중에는 大伽藍이 있는데 모두 벽돌탑으로 되어 있다.

(바) 6월 13일에 刑曹官이 감투 등을 주고, 14일 浙江에 도착한다.

(사) 7월 26일 午時에 通州江에 도착하고 우리 나라 使臣 吳準을 謁見한다.

(아) 다음날 당나귀를 타고 北京에 도착한다.

④ 表現 形式上的 特徵

김기손 일행의 <표류기>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문화선진적 시각이다. 淮安府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성중에는 大伽藍이 있는데 모두 벽돌탑으로

되어 있고, 官府는 장려하고 階庭의 걸어다니는 부분들은 모두 벽돌이었으며, 시가지 도로도 역시 벽돌로 포장되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⁰⁰⁾ 浙江에 이르렀을 때에도 옆에는 채색된 배가 많이 있었는데 기이한 꽃과 좋은 나무가 잡다하게 배 속에 심어져 있고, 사면의 窓戶에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채색한 발이 내려져 있어 금색이 현란하다 하여¹⁰¹⁾ 표류자들이 시선이 그 화려함에 머물고 있다. 이는 바로 事大 시각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史臣曰 漂流外人 蠶鄙不足顯也 而上國之優待 下人之擁觀 至於如此 非貴其人也 我殿下事大之誠 有以致之也 誠之効至矣哉¹⁰²⁾

표류인들이 上國에서 우대받은 것은 우리 전하의 事大之誠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다.

〔2〕 燕行錄選集 所載 崔溥의 漂海錄

(1) 作者

崔溥는 字가 淵淵이고 號는 錦南이며 羅州 태생으로 進士 澤의 아들이다. 24세 때 진사 제삼에 급제하였고, 29세 때인 성종 13년(1482)년 봄 謁聖取人 할 때 제삼에 등제하였다. 그로 인해 上舍生이 되고 후에 典籍이 되어 《東國通鑑》 편찬에 참여하였다. 1486년에 重試 亞元에 등제하여 司憲府 監察, 弘文館 副修撰·修撰, 副校理를 거쳐 1487년 9월 濟州推刷敬差官이 되고, 이듬해 윤정월 부친상을 듣고 도해하다가 중국 台州에 표류, 그 해 7월에 환국하여 왕명으로 《漂海錄》을 저술했다. 1492년 持平에 재수되었고, 이 해에 書狀官의 임무를 띠고 중국 북경에 갔다 1483년 봄 世子侍講院文學에 임하고, 4월에 弘文館 校理에 재수되었다. 5월에 承文院 교리로 옮겼다가, 1494년 5월에 다시

100) “城中大伽藍 罔知其數 而皆爲雙塔 官府皆壯麗 階庭承步者” (〈中宗實錄〉 中宗 29년 11월 丙戌條)

101) “榜有彩船無數 奇花好樹 舳舻舟中 四面窓戶 粧金施移垂簾 金色眩亂” (위의 책)

102) 위의 책.

홍문관 교리로 옮겼다. 8월에는 副應敎 겸 藝文館 應敎로 승진되었고, 1495년 봄에는 生員會試參考官이 되며, 5월에는 호서지방의 大旱에 燕山君의 명을 받아 水車 제조방법을 가르쳐 11월에 司諫으로 옮겼다. 1497년 11월 연산군의 실정을 極諫하는 상소문을 기초하였다가 相禮로 좌천되고 聖節使의 質正官으로 중국 북경에 파견되었다가 禮賓寺正이 되었다. 1498년 戊午土禍 때 金宗直의 문인으로 朋黨을 조직하여 국정을 비방했다는 죄로 端川에 유배, 1504년 甲子土禍에 참형당하였다. 최부는 博覽載籍으로 해박하였고 특히 《周易》을 깊이 연구하였다. 海南縣은 그의 妻宅으로 이 곳에서 尹孝貞·林遇利 같은 제자를 가르쳤다. 京洛에서 벼슬할 때에도 朴闇 등은 그를 좇아 끝내 벼슬하지 않았고, 端川 적소에 있을 때에도 權遇巒 등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¹⁰³⁾ 李元鎮의 《耽羅志》와 金尚憲의 《南槎錄》에는 그의 〈耽羅詩〉 칠언절구 35수가 수록되어 있다.¹⁰⁴⁾

(2) 形成 背景

崔溥의 〈표해록〉이 3권으로 나오기까지는 문사로서 그가 겪은 사실들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摘記한 것이 그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¹⁰⁵⁾ 그러나 〈표해록〉이 기록된 직접적인 까닭은 성종의 撰進 명령이었다.¹⁰⁶⁾ 이러한 찬진 명령은 비단 성종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며, 金紀孫·裨廻伊·肖得誠·梁成 일행의 〈표류기〉에서도 당시의 世祖·燕山君·中宗 등에 의해 찾아

103) ① 〈成宗實錄〉 成宗 19년 4월 戊申條

② 柳希春, “금남선생사실”, 《금남선생표해록》, 崔基泓 譯, 敎養社, 1989, pp.12~15

③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IV, 민족문화추진회, 1989, p.530.

④ 李載浩, 앞의 글, pp. 30~31.

⑤ 《錦南先生文集》(延世大圖書館所藏本)의 〈錦南先生年譜〉

104) ① 李元鎮, 《耽羅志》,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影印), 1989, pp.96~102.

② 金尚憲, 〈南槎錄〉(《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p.61-68. 《南槎錄》, 金禮東 譯, 永嘉文化社, 1992, pp.72~81.)

105) 高柄翊, “崔溥의 錦南漂海錄”,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p.127.

106) 〈成宗實錄〉 成宗 19년 6월 甲寅條

볼 수 있는데, 특히 성종의 경우 金非衣나 李暹의 <표류기> 경우에도 직접 표류의 전말을 보고하도록 承政院이나 弘文館 등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리하여 崔溥는 남대문 밖 靑坡驛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중국에서 견문한 것을 일기로 찬진하였다. 이때 그는 初喪이라서 조문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따금 引接 담화하며 자신이 표류하여 고생스러웠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로써 비방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을 당한 崔溥가 아무리 君命이라 할지라도 도중에서 한가롭게 일기나 쓰고 있었던 것은 君子の 도리에 어긋나며 喪主의 예를 다하지 못했다 하여 끊임없는 시비거리가 된다.

(3) 異本

① 漢文本 : '錦南先生漂海錄'이란 제목의 木版本인 通行版本(1571년 柳希春 序文刊本) 외에도 4년 늦은 刊本이 金澤文庫에 있다.

② 國譯本 : 제목이 '표히록'으로 되어 있는데 3권이 전해진다. 1권은 '표히록', 2권은 '표히록이', 3권은 '표히록 삼 止菴公朴夫人遺墨¹⁰⁷⁾'이라고 기록되었으나 한문본 2권의 3월 15일까지만 언해되었다. 3권에 올수록 노정 등의 지명이 많이 생략되었고, 전체적으로 한자음까지도 틀린 부분이 간혹 보인다.

③ 日譯本 : 清田君錦(1721-1785)이 일본어로 번역하여 <唐土行程記>라고 제목을 붙여 1769년에 출간한 것이다.

④ 영역본 : 메스킬(John Meskill)이 금남 <표해록>을 영역하고 주석을 붙인 <錦南漂海錄譯註(Choe Pu's Diary,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가 있다.

이 외에도 崔溥의 <표해록>은 <成宗實錄>·<稗官雜記>·<海東野言>·<海東雜錄>·<談聞瑣錄> 등 여러 문헌에 그 내용이 압축되어 전해지고 있다.¹⁰⁸⁾

107) <표히록>(國立中央圖書館所藏 筆寫本)

108) ① <成宗實錄> 成宗 23년 정월 乙酉條

② <稗官雜記>二(《국역대동야승》Ⅰ, 민족문화추진회, 1985, pp.473~474.)

③ <海東野言>二(《국역대동야승》Ⅱ, 민족문화추진회, 1985, p.362.)

④ <海東雜錄>一(《국역대동야승》Ⅴ, 민족문화추진회, 1985, pp.80~86.)

⑤ <談文瑣錄>(《국역 대동야승》Ⅰ, 민족문화추진회, 1985, pp.397~398.)

(4) 作品의 構造

崔溥의 <漂海錄>은 내용상 크게 ‘虛頭-出帆-漂流-歸還-後記’의 구조로 되어 있다. ‘허두’는 제주추쇄경차관의 명을 받음과 조천관에 도착한 내용 및 아버지의 부고를 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출범’은 출발일시·출발지·일행·발선동기·선박 등의 내용이며, ‘표류’는 표류일시,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표류과정, 표착일시 및 표착지역, 노정 등의 내용이고, ‘귀환’은 귀환일시·귀환장소·노정 등의 내용이다. 또한 ‘후기’는 里數, 산천, 제방 및 수문제도, 토산, 第宅, 服飾, 인심과 풍속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虛 頭	1. 성종18년(1487) 9월 17일 濟州三邑推刷敬差官으로서 대궐 하직 2. 11월 11일 아침 海南縣에서 배를 타서 12일 저녁 朝天館에 도착 유숙 3. 성종 19년(1488) 정월 30일 羅州로부터 아버지의 訃告를 받음
出 帆	1. 출발일시 : 成宗 19년(1488) 윤정월 3일 2. 출발지 : 濟州牧 別刀浦 3. 일행 : 崔溥 등 43명 4. 동기 : 아버지의 訃告를 받고서 5. 선박 : 水精寺의 중 智慈의 배 6. 濟州牧使 등의 弔喪客을 맞이함
漂 流	1. 표류일시 : 윤1월 3일 저녁 2. 첫 표류지역 : 草蘭島 근해 3.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1) 4일-11일 바다에서 표류 (2) 12일 寧波府 경계에서 도적을 만남 (3) 13일-15일 다시 바다에서 표류 4. 표착일시 : 16일 5. 표착지역 大唐國 台州府 臨海縣界의 牛頭外洋 6. 노정 (1) 17일 육지에 상륙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 18일 千戶 許淸을 노상에서 만남 (3) 19일-22일 桃渚所에 도착하여 머물음 (4) 23-24일 桃渚所를 출발 健跳所에 도착 (5) 25-29일 越溪巡檢司·西店驛·連山驛·寧波府를 지남 (6) 2월 1일-4일 慈溪縣·餘姚縣·上虞縣을 지나 紹興府에 도착 (7) 5일 西興驛에 도착. 會稽郡에서 王羲之의 蘭亭修禊處 등의 유적을 관람 (8) 6일-12일 杭州에 도착하여 머뭄. 《皇華集》에 대해 문답. 吳山の 伍子胥墓 등의 유적을 관람 (9) 13일-30일 杭州를 떠나 崇德殿·嘉興府·吳江縣·蘇州府·姑蘇驛·常州府·呂城驛·鎮江府·楊子江·廣陵驛·楊州府·孟城驛·高郵州·淮陰驛·淮安府·桃源縣·古城驛·宿遷縣을 지남. 淮陰驛 부근의 韓信이 악소년에게 受辱했던 胯下橋, 桃源驛의 劉備·關羽·張飛가 결의했던 三結義廟 등의 유적 관람 (10) 3월 1일-25일 邳州·房村驛·徐州·劉城鎮·沛縣·兗州府·魯橋驛·濟寧州·開河驛·東平州·東昌府·清陽驛·臨清縣·武城縣·恩縣·德州·良店驛·東光縣·滄州·興濟縣·靜海縣·天津危를 지나 河西驛에 도착. 徐州의 楚霸王 項羽의 도읍지 沛縣의 漢高祖 劉邦의故里, 兗州府의 孔子가 탄생한 尼丘山 등을 봄 (11) 26일-29일 蕭家林里. 滌縣을 지나 北京의 玉河館에 도착 兵部에 나아감 (12) 4월 1일-17일 玉河館에 머물음 (13) 18일-20일 禮部에 나아가 皇帝를 謁見 (14) 21-23일 玉河館에 머물음

歸 還

1. 귀환시의 날짜: 4월 24일

2. 장소: 北京 會同館

3. 노정

- (1) 24일-27일 會同館에서 發程하여 白河·公樂驛을 지나 漁陽驛에 이르러 謝恩使臣을 만남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 28일-30일 陽樊驛·玉田縣·豐潤縣을 지나 義豐驛에 도착 (3) 5월 1일-19일 灤州·永平府城·灤河驛·撫寧衛·榆關驛·石河·山海關·前屯衛·東關驛·曹莊驛城·寧遠衛·五里河·凌河驛·十三山驛·閭陽驛을 지나 廣寧驛에 도착 聖節使臣을 만나고 머물음 (4) 20일-5월 3일 盤山驛·沙嶺驛·在城驛·遼陽驛·連山河·分水嶺·斜哨大嶺을 지나 鳳凰山에 도착 (5) 4일 鴨綠江을 건너 義州城에 도착
後 記	○ 見聞 (1) 里數 (2) 산천 (3) 제방·수문제도 (4) 토산 (5) 第宅 (6) 服飾 (7) 인심과 풍속

崔溥 일행이 제주를 출발한 것이 성종 19년(1488) 윤정월 3일이고 중국 台州府 臨海縣界의 牛頭外洋에 표착한 것이 이 달 16일이니 바다에서의 표류시간은 14일 정도이다. 또한 우리 나라 義州城에 도착한 것이 같은 해 5월 4일이니 귀환하기까지는 대략 반 년 정도가 경과된 셈이다. 그 간의 중요한 노정을 보면 濟州-草蘭島-牛頭外洋-寧波府-紹興府-杭州-嘉興府-蘇州府-常州府-鎮江府-楊州府-淮安府-徐州-東平州-德州-滄州-北京-公樂驛-玉田縣-山海關-東關驛-閭陽驛-遼陽驛-鳳凰山-鴨綠江-義州城-靑坡驛 등이다.

(5) 主要內容

① 성종 18년(1488) 1월 濟州推刷敬差官이던 崔溥는 부친상으로 일행 42명과 제주를 출범했다가 풍랑으로 표류하여 중국 浙江省 寧波府에 표착한다.

② 牛頭外洋에 정박하기 전에 도적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중국 관원들에게 왜구로 오인되기도 하나 문답을 통해 조선인임을 입증시킨다.

- ③ 북경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유적들을 관람한다.
- ④ 북경 玉河館에 머문지 수일 만에 조선국 표류인임이 완전 판명되고 賞賜의 恩典이 주어지고 이에 이튿날 대궐에 들어가 皇帝의 은혜에 사례한다.
- ⑤ 山海館·遼東·鴨綠江을 건너 義州城에 도착한다.
- ⑥ 우두외양에서 桃渚所를 거쳐 杭州까지, 항주에서 북경 會同館까지 합계 하면 6천여 리가 된다. 회동관에서 여러 곳을 지나 遼陽驛까지가 1천 7백여 리가 되고, 요양역에서 압록강까지가 3백여 리가 된다.
- ⑦ 산천·물산·풍속 등이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많다.

(6) 表現 形式上의 特徵

崔溥의 <漂海錄>은 예로부터 東國의 小說로 인정되었던 작품이다.¹⁰⁹⁾ 이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의 하나로서는 바다에서의 표류상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발선 직전의 의견 대립, 폭풍우치는 극한상황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자세, 굶주림과 갈증을 이겨내려는 몸부림, 죽음 앞에서 신에게 간구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도적을 만나 봉변당하는 상황 등 표해류 작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생생한 체험들이 형상화되고 있다.

제주를 출발하는 戊申年 윤1월 3일은 흐리다 비오다 하면서 동풍이 조금 불고 바다 물빛이 짙은 청색이었기 때문에 발선의 문제부터 대립하고 있다. 濟州學長 金存麗, 軍人 權山·許尚理 등은 출항을 만류하는가 하면 鎭撫 安義, 朴重幹, 崔仲衆 등은 떠날 것을 권하고 있다. 결국 해가 중천에 떠오른 후에야 別刀浦를 출발하는데 愁德島를 통과하면서부터는 날씨가 점차 험악해지므로 草蘭島에 도착하여서는 닻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점차 강해지는 북풍에 닻은 끊어지면서 마침내 표류하게 되는데, 그 이튿날은 폭풍우가 더욱 거세진다.

109) “東國少小說 唯高麗李大諫仁老破閑集 崔拙翁滋補閑集 李益齋齊賢樸翁稗說 本朝姜仁齋希顔養花小錄 徐四佳居正太平閑話 筆苑雜記 東人詩話 姜晉山希孟村談解頤 金東峯時習金熬新話 李青坡劇談 成虛白堂倪儒齋叢話 南秋江孝溫六臣傳 秋江冷話 曹梅溪偉梅溪叢話 崔校理溥漂流記 鄭海平眉壽閑中啓齒 金冲庵淨濟州風土記 曹適庵仲諤聞瑣錄 行于世”(《稗官雜記》四)

漂入大洋中 是日雨雹大風 驚濤畏浪掀天鼓海 帆席盡破 舟以二檣高大 尤易
傾極勢將覆壓¹¹⁰⁾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 하늘 높이 치솟는 파도가 바다를 쳐서 소리를 내고, 돛자리로 만든 돛이 모두 부서져서 곧 전복될 것 같은 상황 묘사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더욱이 이런 상황 속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실제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병이 나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리, 바다에 표류된 이후로 줄곧 누워서 일어나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독려하여도 귀담아 듣지 않는 무리, 열 번 부르면 한 번 대답하여 마지 못해서 일하는 무리, 처음이나 낮에는 부지런하다가도 나중이나 밤에는 게으름을 피우는 무리 등 부정적인 인간형들도 있는가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배를 운행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던 사람들, 몸소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배를 수리하는 일을 검사 독려하면서 일을 완수하는 사람 등 긍정적인 인간형들도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굶주림과 갈증을 이겨내는 대목에 이르면 눈물겹기까지 하다.

孝子視人之唇焦口爛者 均分飲食之止令沃舌 數日柑酒俱盡 或細嚼乾米 掬其溲溺以飲 未幾溲尿又竭 胸膈乾燥 不出聲氣 幾至死域 至是因雨下 舟人或以手擎蓬榮 取其潛滴者 或以笠帽若鼎器貯器滲漉者 或屈席子奉其灑汎者 或建桅樁中約紙繩承其淋瀝者 期得些少一勺以舌舐之¹¹¹⁾

술 두 동이를 가지고 입술이 타는 사람들에게 헛바닥만 적시게 하였다가 그마저도 바닥이 나자 오줌을 받아서 먹게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오줌마저 없어지고 만다. 때마침 비가 오는데 뜰집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으로 받기도 하고, 모자로 그릇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돛자리에 뿌린 물을 받기도 하고, 돛대와 노를 세워 중간에 종이 끈을 묶어 거기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기도 하면서 한 잔 물이라도 얻어서 헛바닥으로 핥으려는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하기 그지없다. 그러기에 崔溥는 喪服 차림으로 손

110) <漂海錄>卷之一 戊申年 윤정월 4일조

111) 위의 책, 윤정월 10일조

을 비비고 무사하기를 하늘에 축원하지 않을 수 없어 일행의 무사함을 기원하나 설상가상으로 寧波府 경계에서는 도적을 만나 큰 봉변까지 당하면서 또 다시 큰 바다로 표류하는 신세가 된다. 그러다가 4일 만에야 겨우 牛頭外洋에 표착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지나온 노정 및 고사와 관련된 유적들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過呂城驛 至鎮江府 是日晴午後雲晴 朝過長店鋪 呂城鎮 巡檢司 泰定橋 至呂城驛 過呂城壩 呂城鋪 清徽觀 青龍橋 唐家溝 柵口鋪 陸朝鋪 慈雲寺 聖墅鋪 七星橋 長樂鋪 定善院 惠政橋 到雲陽驛 河名即潤河 又過雲陽橋 承恩門 鬼神壇 寧眞觀 新橋 新河橋 至丹陽縣 縣枕河邊 過縣經新廟 廣福橋 七星廟 柏岡廟 夜過減水閘 萬景湖 新豐鎮 大雨徹夜 行至鎮江府新門¹¹²⁾

이와 같이 지나온 州縣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음은 그때그때 기록해둔 것에 바탕을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成宗의 撰進 명령을 받고 靑坡驛에서 수일 동안에 반년의 노정들을 한꺼번에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권과 3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국역본의 경우는 이들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부 자신이 文臣이었을 뿐만 아니라 儒者라는 의식과도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는 매일 같이 전개되는 이국 땅에서의 돌발적인 사태 속에서도 항상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喪服의 윤리에 집착하고 있는 그의 자세는 철저한 유자로서의 면모이며,¹¹³⁾ 중국 관인과의 문답에서 자기는 조선국 사람으로 文科에 두 번 올라 국왕의 近臣으로 海島를 순찰하던 중 표류를 당했다는 모습은 문신으로서의 면모라고 할 것이다.¹¹⁴⁾

112) 〈漂海錄〉卷之二 2월 20일조

113) 高柄翊, “崔溥의 錦南漂海錄”,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pp.117~120.

114) “臣曰我乃朝鮮國人 再登文科爲 國王近臣 奉國事巡海島”(《漂海錄》卷之一 戊申年 윤정월 18일조)

그러면서도 그는 사대주의적인 당시 이데올로기의 인식을 그대로 지닌 인물이었다. 刑制는 大明律을 따르고, 喪制는 朱子家禮를 따르고, 冠裳은 중국 제도를 따라 행한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¹¹⁵⁾ 우리 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계층적 관계에 있으며 중국이 그 정점을 이루는 문화선진 시각을 드러낸다.

〔3〕稗官雜記 所載 朴孫 일행의 琉球風土記

(1) 形成 背景

《稗官雜記》四에 보면

嘉靖壬寅 濟州人朴孫等 漂到琉球國 留四年 轉鮮中國 因得回還 柳大容採其語 作琉球風土記¹¹⁶⁾

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박손 일행이 琉球國에 표도한 것은 中宗 37년(1542)이고 4년 동안 그 나라에 머물다가 중국을 거쳐 돌아왔는데 柳大容이 그 말을 채취하여 〈琉球風土記〉를 지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유구국의 견문을 중심으로 대략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稗官雜記》四에 수록된 박손 일행의 〈유구풍토기〉는 유대용이 그 말을 듣고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 作品의 構造

朴孫 일행의 〈琉球風土記〉는 제목 그대로 유구에 대한 견문기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표류에 관한 내용이나 귀환 등의 얘기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출범-표류-귀환-후기’의 내용적 구조로 볼 때 ‘후기’적 성격의 聞見別單이다.

115) “刑制從大明律 喪制從朱子家禮 冠裳遵華制”(《漂海錄》卷之一 戊申年 2월 4일 조)

116) 《국역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85, p.779.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後 記	○ 見聞 (1) 왕궁(中山에 있음) (2) 산천(산 위가 평평함) (3) 수목(소나무·삼나무) (4) 田結(정월 모내기, 4월 수확, 8월 재수확) (5) 기후 1) 항상 따뜻하여 겨울이 우리 나라 8월과 비슷 2) 소와 말이 늘 푸른 풀을 먹음 3) 나무는 묵은 잎이 지기 전에 새 잎이 남 4) 서리·우박·얼음·눈이 없음 (6) 居室(집은 판자로 마루를 만들고 온돌방이 없음) (7) 의복 1) 겨울 옷은 모두 겹옷이고 숨저고리가 없음. 여름에는 焦布나 苧布를 짜서 옷을 만듦) 2) 갓(야자수로 만듦) 3) 남자의 바지와 여자의 훌치마 (8) 상투(남자는 우편, 여자는 뒤에 함) (9) 신발(귀한 자만 짚신이고 나머지는 맨발) (10) 수염(남자는 수염 긴 사람이 많음) (11) 수레와 가마(없음) (12) 개(집에서 기르지 않음) (13) 범·이리·여우·삿갓이·평·술개·올빼미·까치(없음) (14) 반찬(해산물이 많고 미나리가 없음) (15) 탁주(누룩을 쓰지 않음) (16) 錢貨(동전) (17) 金銀(많이 산출되나 귀신이 꺼린다고 사용하지 않음) (18) 學舍(없음. 중에게 番文을 배움) (19) 風俗 1) 元日과 節日(先祖에게 제사) 2) 정월 8일-15일(밤새껏 등불을 켜고 남녀가 놀) 3) 3월 3일(선비와 서민들이 모여 잔치함) 4) 5월 5일(용 모양의 배를 만들고 배마다 20명씩을 태운 뒤 금은으로 채색하고 노를 저으면서 놀이함)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5) 7월 15일(집집마다 등불을 켜고 남자는 여복, 여자는 남복으로 서로 내왕하면서 놀이함)
	6) 동짓날(팔죽을 먹음)
	7) 장례(부자는 돌을 파서 관을 넣어두고, 가난한 자는 석굴에 넣어둠)

다시 이를 구분하면 (8), (9), (12) 등은 (19)품속에 속하는 것들이며 (3), (13), (14), (17) 등은 物産과 관계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의 주된 항목들은 왕궁·산천·田結·기후·의복·음식·物産·풍속·錢貨·學舍 등이다.

(3) 主要内容

① 王宮·山川·氣候：中山 위에 왕궁을 지었는데 산 위가 평평하고, 일기는 항상 따뜻하여 겨울 몹시 추운 때라야 우리 나라 8월과 같으며, 서리·우박·얼음·눈이 없다.

② 居室·衣服·飲食：집은 모두 널조각으로 다락을 만들고 온돌을 설치하지 않으며, 겨울 옷은 모두 겹옷이고 여름에는 焦布나 苧布를 짜서 옷을 만든다. 남자의 갓은 우리 나라 중의 굴갓과 같고, 여자의 갓은 우리 나라의 둥근 광주리 같은데 朝官의 아내만 쓴다. 또한 남자는 바지가 있고 여자는 흠치마로 두 겹을 두르며, 귀한 자만 짚신을 신고 나머지는 모두 맨발이다. 탁주를 만드는데 누룩을 쓰지 않고 다만 쌀을 찹아서 침과 섞어 그릇에 담아 하룻밤을 지내면 달기가 꿀과 같다.

③ 田結：정월에 모를 심고 4월이면 수확하며, 5월에 또 심고 8월에 수확한다.

④ 物産：들에는 범·이리·여우·삿갓이·뽕·솔개·올빼미·까치가 없고, 반찬은 해산물이 많고 미나리가 없다. 금과 은이 많이 나는데 귀신이 꺼린다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⑤ 錢貨·學舍：물건의 매매에는 모두 동전을 쓰며, 학당을 세우지 않고 아

이들은 중에게 番文을 배우고 經書를 배우는 자는 모두 福州에 입학한다

⑥ 風俗: 남녀가 모두 상투를 하는데 남자는 우편에, 여자는 좌편에 하며, 수레와 가마 등속이 없고 집에서 개를 기르지 않는다. 정월 1일과 8월 15일에는 선조에 제사하고, 정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밤이 새도록 논다. 3월 3일에는 선비와 서민이 모여 잔치하고, 5월 5일에는 용의 모양을 한 배로 놀이하며, 7월 15일에는 서로 남녀가 여복과 남복을 하고 즐기며, 동짓날 팔죽을 먹는다.

(4) 表現 形式上的 特徵

전체적으로 보아 유구에 대한 문화후진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직 귀한 자만이 짚신을 신고 나머지는 모두 맨발이며,¹¹⁷⁾ 탁주를 만드는데 누룩을 쓰지 않고 다만 쌀을 찹아서 찜과 섞어 그릇에 담아 하룻밤을 지내면 달기가 꿀과 같다고¹¹⁸⁾ 하는데 원시적에 가깝다. 학당을 세우지 않고 아이들이 절 중에게 나가서 番文을 배우고 經書를 배우는 자는 모두 福州에 입학한다고 함으로써¹¹⁹⁾ 학교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梁成·尙得誠·金非衣 일행의 유구 표류 전문 사실과 유사하며 시기적으로도 이들보다 가장 앞선 작품으로 전체적으로는 풍토기적 구성법을 취한다.

[4] 晝永編 所載 高商英 일행의 漂流記

(1) 形成 背景

鄭東愈의 《晝永編》上에 보면

英宗丁未譯學李齊聃 在濟州見州民高商英 是曾漂海生還者 詳問漂海顛末作一記¹²⁰⁾

117) “唯貴者着草履 餘皆跣足”(《국역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89 p.779.)

118) “釀濁酒不用麴 只嚼米和涎 盛器經宿 其甘如蜜”(위의 책)

119) “不立學舍 童穉就寺僧學番文 其學經書者 皆入學於福州”(위의 책)

120) 鄭東愈, 《晝永編(上)》, 南晚星 譯, 乙酉文化社, 1974, p.238.

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영조 3년(1727) 譯官 李齊聃이 제주에 갔다가 그곳 주민 高商英을 만나 安南에 표류한 顛末을 듣고 기록한 것이 다시 鄭東愈가 옮겨 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고상영의 일행의 安南 표류와 귀환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 全羅道觀察使權是經狀言 濟州人金泰瑱 於丁卯九月 領牧使李尚齡 所進馬 行船至楸子島前 爲風所漂 三十一日方到 安南國會安地 安南國王假公廨 而待之 賜錢米以餬口 適遇 浙江商船 以戊辰七月載歸本州 所資安南國公文 是其國遣臣 明德侯吳所成 而不用印只用國書 浙江商船則持寧波府票文(清人行商 皆持票文 卽 公文也)矣 泰瑱之得載也 約與米六百包 而泰瑱不能償其言 自朝家宜有以濟之 上下其事于廟堂 睦來善金德遠以爲此事殊可疑 然既約與米 則不可不與 而清人漂到我界 輒皆從陸領還 今不領還 則恐後日爲清人所覺也 須許從陸 而且戒牧使 毋使自逃 上可之 是夏自濟州押商人朱漢源等二十八口至都下 計其船直米價糧資以銀與之 仍命譯官 領入燕京 胡皇曰 何必押致也 遂放遣之 仍使我國 凡遇漂到者 有船則從海放遣 無船則領付鳳城以爲式¹²¹⁾

이로 보아 고상영 이외의 인물로 金泰瑱이 일행이었으며, 그들은 배를 타고 올 때 약속한 쌀 육백 包를 보상할 능력이 없어 조정에서 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朱漢源 등 28인은 수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 돌아가고 있다.

(2) 作品의 構造

고상영 일행의 〈표류기〉는 내용상 크게 ‘출범-표류-귀환-후기’ 등의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출범’은 출발일시·일행·발선동기 등이 기록되었고, ‘표류’는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표류원인,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표착일시, 표착지역, 노정과 견문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귀환’은 귀환시의 날짜, 귀환노정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후기는 安南國 移文을 실고 있다.

121) 〈肅宗實錄〉 肅宗 15년 2월 辛亥條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 肅宗 13年(1687) 2. 일행 : 高商英 등 本州의 吏民 24인 3. 발선동기 : 무역을 위해(移文에 근거)
漂 流	1.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 楸子島 근해 2. 표류원인 : 큰 바람을 만나 3.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1) 12일 동안 바람에 불려가다가 바람이 조금 잠잠함 (2) 6일 동안 바다 가운데 있었음 (3) 다시 동북풍을 만나 17일 동안을 표류 4. 표착일시 : 숙종 13년(1687) 10월 5. 표착지역 : 安南國 會安郡 明德府 6. 노정과 전문 (1) 흑의관원의 심문 (2) 錦衣佩玉 부인의 배려로 한 섬에 거주 (3) 토지가 비옥하고 논이 많음 (4) 자녀(아들 셋, 딸 다섯을 행복한 것으로 여김) (5) 기후(항상 따뜻하여 사계절이 늘 봄과 같음) (6) 의복(언제나 소매 없는 훌쩍삼을 입고 바지를 입지 않은 채 비단으로 앞뒤만 가림) (7) 풀어헤친 머리에 맨발 (8) 男賤女貴 (9) 養蠶 (10) 벼농사(3모작) (11) 丹樓와 彩閣(制度가 화려) (12) 家禽(집집마다 이상한 새와 짐승을 기름) (13) 寶具(도처에 있음) (14) 樹木(丹木·烏木·白檀木) (15) 果實(오렌지·杜椒·새양·토란·사탕수수·버섯·檳榔·종려·파초) (16) 소(항상 水中에 잠기어 있음) (17) 원숭이(쇠사슬로 목을 매어 집에서 기름) (18) 코끼리(파초를 잘 먹고 훈련을 시킴)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19) 孔雀 (20) 燭(나무의 가지로 십지 없는 초를 만듦. 길이는 한 자나 되며 하룻밤을 켤 수 있음) (21) 파초(길이가 십여 장이 되고 밑동의 크기는 기둥과 같음) (22) 종려(잎 사이의 실로 우의를 만듦) (23) 檳榔(열매는 大肚子보다 작으나 土人들이 피곤할 때 먹음) (24) 국왕과의 문답(초청으로 대표 5인이 6일 만에 수도에 도착. 주식과 쌀 한 섬 및 돈 삼백 냥을 하사받음) (25) 국왕께 송환 간청 (26) 중국 상인 朱漢源과 船主 陳乾 등과 송환 계약(매인당 大米 30석씩) (27) 安南國에서 돈 6백 냥을 보상하고 國書를 줌
歸 還	1. 귀환시의 날짜 : 숙종 14년(1688) 8월 8일 2. 귀환노정 (1) 5개월 만에 중국 寧波府에 도착 (2) 普陀山에 도착 (3) 12월 13일 발선하여 3일 만에 大靜縣에 도착
後 記	○ 安南國 移文

숙종 13년(1687) 제주를 출발하여 한 달여 만인 10월에 安南國 會安郡 明德府에 표착하였다가 숙종 14년(1688) 8월 7일 안남국을 떠나 5개월 만에 중국 寧波府에 도착하고 12월 15일 大靜縣에 생환하고 있다. 표류하여 돌아오기까지는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 그 간의 노정을 보면 濟州-安南 會安郡 明德府-中國 寧波府-普陀山-大靜縣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3) 主要內容

① 肅宗 13년(1687) 濟州의 吏民 24인과 함께 배를 타고 楸子島 근해에 이르렀을 때에 큰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그 해 10월에 安南國 會安郡 明德府에 표착한다.

② 黑衣官員이 말하기를 안남 태자가 조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장차 표류자 일행을 죽이겠다고 할 무렵 錦衣佩玉 부인의 배려로 죽음을 면하고 한 섬에 거주하도록 허락받는다.

③ 뱃머리에서 냉수를 마신 세 사람은 이미 목숨을 잃고 나머지 21인만이 살아남아 거리의 인가에 나가 구걸한다.

④ 그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논이 많으며 아들 셋, 딸 다섯을 두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후는 항상 따뜻하여 사계절이 늘 봄과 같고 언제나 소매 넓은 홀적삼을 입고 바지를 입지 않은 채 한 자 정도의 비단으로 앞뒤만 가리며, 머리털은 풀어헤치고 발은 맨발로 남자는 천하고 여자는 귀하다. 丹木·烏木·白檀木 등의 수목과 오렌지·杜椒·새양·토란·사탕수수·버섯·빈랑·종려·파초 등의 과일 및 소·원숭이·코끼리·공작 등이 있다.

⑤ 부름이 있어 대표 5인이 국왕께 나아가 알현하고 송환을 요청한다.

⑥ 중국 상인 朱漢源과 船主 陳乾 등과 매인당 쌀 30석씩을 조건으로 송환 계약을 맺고, 숙종 14년(1688) 8월 7일 안남을 떠나 중국 寧波府·普陀山 등을 거쳐 12월 15일 大靜縣에 귀환한다.

(4) 表現 形式上的 特徵

표류자들에게 있어 이국의 새로운 세계는 낯섬과 신비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만났던 여러 부류의 인간들의 모습은 말할 것 없고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환경 등도 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대부분의 표해류 작품들이 언제 돌아갈지 모를 불안한 현실의 반영이지만 그들의 이국생활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그들은 모든 대상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두 나라 사이에 내왕이 별로 없는 낯선 땅일 뿐만 아니라 문화가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날 때 표류자들의 관심과 관찰은 더욱 깊어지게 마련이다.

고상영 일행의 <표류기>에도 전반적으로 특이한 남방문화적 요소들에 대해 사실적 묘사를 하고 있다. 그들의 풍속은 말할 것 없고, 기후나 의복·물산에 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후는 항상 따뜻하여 사계절이 늘 봄과 같아 언제나 소매 넓은 홀적삼을 입고, 큰 키에 바지를 입지 않은

채 다만 한 자 정도의 비단으로 앞뒤만 가린다거나¹²²⁾ 공작은 학보다 매우 크며 날개의 털은 오색으로 찬란하고, 그 수놈은 정수리에 두어 개의 것이 있는 것이 해오라기 같으며, 꼬리의 길이는 두어 자 남짓하여 말단에 돈과 같은 무늬가 있는데 붉고 푸른 빛이 비단보다 훨씬 곱다고¹²³⁾ 하여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을 통해 안남인들의 문화후진 모습과 우호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머리는 풀어헤쳤으며 발은 맨발이고, 바지를 입지 않고 비단으로 앞뒤만 가린다고 하여 문화가 낙후된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국왕이 표류자들을 불러 술과 음식 및 쌀 한 섬씩과 돈 삼백 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상인 朱漢源 등과 송환계약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移文까지 써 보내고 있다.

[5] 海行摠載 所載 李志恒의 漂舟錄

(1) 作者

작품의 서두에 보면 작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글이 있다.

李先達名志恒字茂卿 先祖以永川學士 寓居萊府 乙卯別試武科 丁巳夏薦守門將 病不得取才 屬水禦軍官 仍授本廳將官 資至六品¹²⁴⁾

이름은李志恒이고 字는 茂卿으로 東萊에 살았으며, 乙卯年 別試 武科에 급제, 丁巳年 여름 守門將에 천거되었으나 병으로 取才에 들지 못하고 水禦廳將官을 제수받아 벼슬이 六品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¹²⁵⁾ 그는 비록 무인이었지만 문예에도 상당히 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를 잘 짓고 글씨에도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 가운데 그의 시작품은 보이지 않음

122) “節侯常暖 四時長春 恒着單衫廣袖 長身不着袴子 但以尺錦董掩前後 其髮披 其足跣”(위의 책, p. 239.)

123) “其孔雀則比鶴甚大 一身翎毛五色燦爛 其雉者頂上有數枝翎鷺尾 長數尺許 末端有文如錢 朱翠之色遠勝錦繡”(위의 책, p. 240.)

124) 《국역해행총재》Ⅲ, 민족문화추진회, 1989, p.65.

125) ① 文璇奎, 앞의 글, p.403.

② 趙洙翼, 앞의 글, pp.81~83.

나 시와 글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눈에 뜨인다.¹²⁶⁾

(2) 作品의 構造

〈漂舟錄〉은 내용상 크게 ‘虛頭-出帆-漂流-歸還-後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허두’에서는 간략한 작자 소개를, ‘출범’에서는 출발일시·출발지·일행·발선동기·행장 등이 언급되었으며, ‘표류’에서는 바다에서의 표류일시와 시간, 표류원인,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표착일시, 표착지역, 노정과 견문 등이 기록되었다. 또한 ‘귀환’에서는 귀환시의 날짜, 귀환시의 장소, 귀환노정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후기’에서는 《看羊錄》의 저자 姜沆의 이야기와 丁酉倭變 때 일본에 사로잡혀 安南을 세 번이나 왕복한 趙完壁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언급되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虛 頭	○ 작자 소개
出 帆	1. 출발일시 : 英祖 32년 (1756) 4월 13일 2. 출발지 : 釜山浦 3. 일행 : 李志恒 등 8인 4. 발선동기 : 寧海에 왕래할 일이 있었던 차에
漂 流	1.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 4월 28일 申時경 2. 표류원인 : 橫風이 크게 일어나 3.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1) 북동쪽으로 표류 (2) 7일째는 바닷물로 증류수를 만들어 기갈을 품 (3) 8일째는 물개를 만남 4. 표착일시 : 5월 12일 5. 표착지역 : 蝦夷 서해안 6. 노정과 견문 (1) 蝦夷 諸毛谷에 도착 (2) 占毛谷에 도착

126) 趙洙翼, 위의 글, p.83.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3) 至谷에 도착 (4) 小有我에 도착 5일을 머물음 (5) 蝦夷의 溪西隅에 도착 (6) 新谷十郎兵衛의 숙소에 도착 (7) 7월 1일 신곡십랑병위와 함께 배를 타고 다음날 石將浦에 도착 (8) 7월 23일 曳沙峙에 도착 邊將을 만남 (9) 7월 27일 宋前에 도착 48~49일 간을 머물고 후대받음
歸 還	1. 귀환시의 날짜 : 8월 30일 2. 귀환시의 장소 : 松前 3. 귀환노정 (1) 9월 27일 강호에 도착 對馬島主에 移管 (2) 10월 17일 大阪城에 도착 3일을 머물음 (3) 12월 14일 對馬島에 도착 (4) 정축년 2월 2일 釜山浦에 도착
後 記	1. 姜恒의 이야기 2. 趙完璧의 이야기

李志恒 일행이 釜山浦를 출발한 것이 英祖 32년(1756) 4월 13일이고 바다에서 처음 표류일시가 4월 28일이며 일본 蝦夷 서해안에 표착한 것이 5월 12일이니 바다에서 표류된 시간만도 14일 정도이다. 그리고 對馬島에 도착한 것이 12월 14일이고 부산포에 되돌아온 것이 이듬해 丁丑年 2월 2일이니 귀환하기까지는 9개월 정도가 걸린 셈이다. 그 간의 노정을 보면 釜山浦-蝦夷 諸毛谷-占毛谷-至谷-小有我-蝦夷 溪西隅-曳沙峙-松前-江戸-大阪城-對馬島-釜山浦 등으로 나타난다.

(3) 主要内容

① 李志恒 등 8인이 寧海로 갈 일이 있어서 英祖 32년(1756) 4월 13일 釜山浦를 출발하여 4월 28일 橫風을 만나 표류하기 시작하여 14일째에 일본 蝦夷 서해안에 표착한다.

② 蝦夷의 해안을 타고 南下하여 5월 28~29일경에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金鑛 책임자 新谷十郎兵衛가 찾으러 보낸 두 일본인을 만나 배를 타고 그들의 숙소로 간다.

③ 7월 1일 新谷十郎兵衛와 배를 같이 타고 松前을 향해 출발 7월 23일 曳沙峙에 당도하여 邊將을 만난 후 7월 27일 송전에 도착하여 48~49일 간을 체류하며 후대를 받는다.

④ 8월 30일 松前을 출발 9월 27일 江戸에 도착하여 우리 나라와 通商과 外交를 전담하는 對馬島主에게 移管된다.

⑤ 10월 초 江戸를 출발 10월 17일 大阪에 도착하고, 12월 14일에는 對馬島에 도착하며, 다음해 丁丑年인 2월 2일에는 대마도를 출발 3월 5일에 釜山浦에 도착한다.

(4) 表現 形式上的 特徵

하급무관의 글로서는 제법 잘 되어 위급한 상황의 표현이나 관찰이 매우 세밀하며 유머러스한 것으로 보아 문학성이 매우 짙게 풍긴다.

第八日酉時量 適一海狗泛船數里 或舉足船杉 或向東躍去而還來 金北實欲
擔刀刺殺 余挽其手止之 仍以海狗之從船作卦 得天地否卦 卦雖不吉世帶才爻
日辰福德 必得免死以此喻之 衆人仍誦觀音菩薩¹²⁷⁾

표류한 지 8일째 되는 날 물개 한 마리가 배를 따르자 金北實이 칼로 찌르려 했을 때 李志恒이 이를 말리고 있는데 天地否卦의 점괘를 이유로 들면서 日辰은 福德에 닿으니 일행은 죽음을 면한다는 것이다. 이에 모두가 계속해서 관음보살을 외우는데 그 어리석음에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표류 중에 마주친 여러 부류의 인물이나 풍속을 아주 생생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노력을 뚜렷이 보여 준다.

男女或着木皮所織黃布長衣 或着熊皮與狐皮貂皮毛依 頭毛只長寸餘 鬚髯皆
勒 或尺或把 耳懸大銀環 身生黑毛 目眦皆白 男女不着鞋襪¹²⁸⁾

127) 《국역해행총재》Ⅲ, 민족문화추진회, 1989, p.65.

128) 위의 책.

蝦夷地方에서 만난 인물에 대한 묘사인데 나무껍질로 짠 벚옷, 곰가죽과 여우가죽으로 만든 털옷, 한 치 남짓한 머리칼과 한 자 혹은 한 발 정도의 수염, 귀에 장식한 은고리, 몸에 난 검은 털, 흰 눈자위, 남녀 모두 신발을 신지 않음 등 극히 사실적이다.

그런가 하면 짧은 글이지만 전편에 흐르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善隣友好精神을 볼 수 있다. 조선의 하급무관을 松前太守가 친히 불러 시를 酬唱하고 많은 여비까지 주어 보내는 것이나 고국에서도 타보지 못했던 가마를 일본 관원들의 호의로 타는 장면들은 바로 이러한 정신의 표현들이다. 특히 송전태수의 시 6수와 瑞流라는 중의 시 5수를 수록하고 있어 이 작품의 문학성을 높게 한다. 뿐만 아니라 蝦夷語通事에게 하이 원주민들과 나눈 말이 무슨 뜻인 지를 묻고 그 음을 한자로 적지 않고 한글로 적고 있다.

마즈마이云者 何言也 曰謂松前稱也 又問앙그랍에何也 曰平安也 빌기의何也 美也 악기何也 水也 아비何也 火也 憑以倭語則大相不同¹²⁹⁾

마즈마이〔松前〕·앙그랍에〔平安〕·빌기의〔아름답다〕·악기〔물〕·아비〔불〕 등의 말을 수록하고 그것을 倭語와 대조해 보니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6〕張漢喆의 漂海錄

(1) 作者

張漢喆은 호가 鹿潭居士이고¹³⁰⁾ 海州人으로 張次房의 아들로¹³¹⁾ 현 北濟州郡 涯月邑 涯月里에서 출생한 張一就의 七世孫이다.¹³²⁾ 그는 英祖 51년(1755) 濟州 道科에서 姜鳳瑞·金慶會 등과 함께 합격하고,¹³³⁾ 이어 같은 해에 文科別試에 幼學으로 뽑히고 있으며, 大靜縣監·夾谷縣令 등을 역임하고 있다.¹³⁴⁾

129) 위의 책, p.67.

130) 작품의 말미에 鹿潭居士 지음이라고 적혀 있다.

131) 《國朝文科榜目》2, 太學社(影印), 1988, p.1278.

132) 鄭炳昱, 앞의 글, p.175.

133) 〈英祖實錄〉英祖 51년 정월 戊寅條

134) ① 李源祚, 《耽羅誌》卷二 宦科條

작품 속에서도 그는 향시에 응시하여 여러 번 합격하였으며,¹³⁵⁾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仲父인 雙梧堂 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랐음을 알 수 있다.¹³⁶⁾ 영조44년(1768) 南濟州의 山房山에 오른 일이 있었고,¹³⁷⁾ 이듬해에는 漢拏山에 오른 일도 있었다. 영조46년(1770) 12월 25일 과거를 보기 위해 배를 탔다가 표류하여 다음해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낙향하여 이 <漂海錄>을 쓰게 된 것이다. 표류하였을 당시 그에게는 처자와 어린 아들 鳳得이 있었다.¹³⁸⁾

(2) 作品의 構造

이 작품의 구조는 내용상 크게 ‘출범-표류-귀환-후기’ 등의 4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완결된 형태를 보여 준다. 다시 출범의 내용은 출발일시·출발지·일행·발선동기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표류의 내용은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표류원인, 표류과정, 표착일시, 표착지역, 노정과 견문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또한 귀환의 내용은 서울에서 과거를 보고 고향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후기의 내용은 귀환자 중 고인의 무덤에 곡함과 객과의 대화 내용으로 되어 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 英祖 46년(1770) 12월 25일 2. 출발지 : 제주

② 南萬里 編, 《耽羅誌》

③ 金錫翼, 《耽羅紀年》

135) “余之從前屢中鄉試”(《漂海錄》, p.2)

136) “蓋雙梧 仲父堂號也 噫 余幼而孤養於雙梧堂膝下”(12월 26일조)

137) “耽羅之漢拏西南 有石峯甚高 登之考 攀藤緣枝 猿狖而上數百仞 則有石窟窈而廓周遭石壁 自作石室 名之曰 山房 中有一介石佛 帶得前劫古色 又有木器 容長如槽 而水滿其中 仰看窟上有水石間滲漏涓涓 點滴于槽中 滴之不息 水無羸焉 人多登臨 掬而飲之掬之無已 水不減焉 不亦異哉 余於戊子之春 登是峯見槽之大”(초3일조)

138) “又念弱妻孤孩 何以延活 若蒙天佑 使鳳得無病而成立 則先人之祠可托 而蠻海之魂可招矣”(12월 27일조)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3. 일행 : 張漢喆 등 29인 4. 발선동기 : 서울로 과거 보러
漂 流	1.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 12월 25일 해질 무렵 2.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 鰲魚島 근해 3. 표류원인 : 풍랑을 만나 4.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 12월 27일 南極老人星을 봄 5. 표착일시 : 12월 28일 새벽 6. 표착지역 : 琉球列島の 虎山島 7. 노정과 견문 (1) 호산도에 표착 1) 무인도임을 알고 양식을 구함 2) 그믐날 밤 용왕에게 제사 (2) 왜구의 습격 1) 정월 초하루 날의 윗놀이 2) 저녁 무렵 왜구의 습격 (3) 安南 商船에 구조 1) 정월 2일 안남 상선에 구조 2) 5일 안남인들에게 봉변 (4) 靑山島 근해에서의 조난 1) 6일 청산도 근해에서 조난 8명이 생존 2) 7일 시체들을 장사지냄 3) 9일 사망자 21명의 제를 지냄 4) 趙氏女와 관계함
歸 還	1. 13일 當村에 도착 2. 14일 馬頭鎮에 도착 3. 15일 康津의 南塘浦에 도착 4. 2월 3일 서울에 상경. 과거에 낙방 5. 5월 8일 고향에 돌아옴
後 記	1. 귀환자의 고인 무덤에 곡함 2. 객과의 대화

장한철 일행이 제주를 출발한 것이 영조 46년(1770) 12월 25이고, 그 날 해 질 무렵 표류하여 3일 만인 12월 28일 새벽에 호산도에 표착하였다. 그리고 2월 3일 서울에 도착하고 5월 8일에야 고향에 귀환하니 제주를 떠나 되돌아오기까지는 1년 5개월 정도가 걸린 셈이다. 그 간의 노정을 보면 濟州-琉球 虎山島-靑山島-當村-馬頭鎮-康津 南塘浦-서울-濟州로 나타난다.

(3) 主要内容

① 英祖 46년(1770) 12월 25일 일행 29인(선비 2명, 선원 10명, 상인 15명, 陸商 2명)이 제주를 출발한다.

② 도중에 고래를 만난 일행은 저녁 무렵 鰲魚島 앞바다인 所安島 서쪽에서 동풍에 표류하여 26일 하루 종일 남쪽으로 흘러간다.

③ 12월 27일 저녁 겨우 날이 활짝 개이고 南極老人星을 보고, 12월 28일 유구열도의 虎山島에 표착한다.

④ 12월 29일 대끝에 옷을 찢어 매달아 旗를 만들고 薪柴를 마련하여 산 꼭대기에서 불을 지르게 하여 지나가는 배에 구원을 청하는 신호를 한다.

⑤ 12월 30일 선원 한 사람이 잡아온 生鰓에서 진주가 나왔는데 상인 白士廉이 50金を 주겠다 100金を 내라 하며 흥정한다.

⑥ 정월 초하루 날 客愁를 덜기 위해 웃놀이를 시키고, 저녁 왜구의 來襲을 받는다.

⑦ 2일 安南 商船에 구조되었으나, 5일 張漢喆 등이 제주인임을 알고 옛날 耽羅王이 安南世子를 죽인 일로 원수를 갚겠다 하여 상황이 험악해지자 일행 29명은 큰 배로부터 작은 배로 옮겨 탄다.

⑧ 6일 靑山島 근해에서 조난당하여 청산도에 표착하는데 이튿날 일행을 점검하니 李昌成 등 8인이 살아남고, 9일에는 21명의 幽魂에게 제문을 지어 제사한다.

⑨ 11일 밤 趙氏女와 雲雨의 기쁨을 나누고 5년 이내로 과거에 합격하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

⑩ 13일 청산도를 떠나 智島의 當村, 14일 馬頭鎮, 15일 康津의 南塘浦를 거쳐, 2월 3일 서울에 도착하여 과거에 낙방하고, 5월 8일 고향에 돌아온다.

(4) 表現 形式上的 特徵

장한철의 〈표해록〉 작품에도 그에게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을 한 폭의 그림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바다에서의 표류상황을 서술한 대목을 보면

朝來雨作 午後仍大灑 諸人皆卷入幕中 不得出入 而雨漏床床 坐無乾處 景色愁慘 如在漏船上 忽看天黑海昏 波濤鼎沸 一場雷霆 出者波間 閃爍晦暝光 搖山岳 碎劄震博 聲動天海 俄而一團黑雲 挾雷電而起於海上 初短漸長 滾滾而上 終看撐天而插海 未見端 雷聲電影 轟樺于黑雲之中鯨鯢鼉鼉之族 踴躍奔突於波間誠人世間所未見之壯觀也¹³⁹⁾

라고 묘사하는데, 소나기 구름이 일어나서 뇌성과 함께 폭우를 쏟아내는 가운데 고래·자라·거북 등이 물결 사이로 뛰어 오르며 달려가 부딪치는 장면 등은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하여 현장감이 넘치고 있다.

또한 몇 가지의 꿈 이야기는 앞일을 미리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余聞此言 驚魂飛越 不能自定 欲哭而聲不出 仍嘔血數掬 昏仆不省 已作冥途人矣 濟州人 金振龍 金萬石者 余之同里閭 而曾於己丑秋 漂沒於海中者也 今於昏倒中 卽見兩人在前 而振龍謂余曰 所着宕巾 何不惠我乎 萬石曰 若以食物餽我 則當爲之執蓋而陪行矣 蓋萬石生時 以執蓋爲役 而振龍生時 爲千總之任者也 其他魍魎之怪 千態萬狀 而皆接于眼 蓋是時 神不守舍 身在幽明間矣 非夢似夢間 又有一美娥 服素進食于余 余乃勵精開眼¹⁴⁰⁾

비몽사몽간에 한 미녀가 소복을 하고 음식을 갖다 주는데, 이는 현실화되어 장한철이 靑山島에 표착하였을 때 趙氏女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⁴¹⁾ 따라서 이러한 연애담은 미래에 대한 암시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작품 속으로 유인하는 장치로써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139) 12월 30일조

140) 정월 6일조

141) 정월 11일조

장한철은 작중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구조를 통해 그들의 심리를 잘 표현하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 예컨대 장한철과 동행한 김서일이 배가 표류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執事嘗自言 男兒生此島中 無異釜中之魚 安得西泰人 四十里棕櫚船 周遊四海 壯觀天地間耶 平日所願 每如是矣 今幸駕一葉之扁舟 泛萬里之滄波 興趣如何 志願已伸乎¹⁴²⁾

라고 빈정거리면서 그들의 후손 사에는 戴天之怨讎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풍랑과 고래의 습격에서 겨우 살아나 다행스럽게 無人絶島에 표착했을 때 조개와 전복을 따먹으면서 초조히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을 발견하고 이 섬에 다다른 것은 왜놈의 해적선이었다. 해적들은 섬에 올라와서 일행을 모두 나무에 꺼꾸로 매달고 옷을 벗기고 조금 남은 물건과 그 섬에서 얻은 진주까지 모조리 빼앗아 저희들만 도망갔던 것이다. 그러기에 ‘倭奴讐也 不可共戴天’이라고 말하면서 ‘범이나 뱀같이 악한 놈도 그 가족으로 몸을 덮을 수 있고, 그 고기로 병을 고칠 수가 있으나 오직 저 일종의 왜놈은 사람에게 一毛之利도 없다. 하나님은 왜 요런 물건을 만들었느냐’고¹⁴³⁾ 하늘을 원망하는데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어떤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저주요, 욕이다.¹⁴⁴⁾ 이러한 갈등과 대립 구조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작품의 표현적 특징이 되는 셈이다.

〔7〕燕巖集 所載 書李邦翼事

(1) 作者

李邦翼은 前五衛將과 萬頃縣令을 지낸 李光彬의¹⁴⁵⁾ 아들로 英祖 38년

142) 12월 26일조

143) “雖以泰虎之惡焉 而獲其皮則可以全吾軀 永蛇之毒焉 而用爲餌則可以已吾疾 而惟彼一種倭奴 則於人無一毛之利而其爲害也 有甚於泰虎永蛇 天胡生此生此 直欲罪眞宰 而不可得也”(辛卯年 正月 1일조)

144)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p.186.

145) ① 李源祚, 《耽羅志》,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影印), 1989, p.146. “武科

(1757) 제주에서 출생하였다. 1784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1786년에는 守門將이 되며, 1787년에는 武兼 宣傳官이 되었다. 1791년에는 元子宮의 첫 돌을 맞이하여 대궐 안에서 활쏘기를 하여 으뜸의 기록을 얻어 忠壯將이 되고, 1796년에는 표품으로 인하여 중국을 구경하고 이듬해에 돌아와서 五衛將을 거쳐 全州中軍이 되었던 인물이다.¹⁴⁶⁾ 바로 이러한 표류 사실을 歌辭化한 <漂海歌>가 전해진다.

(2) 形成背景

燕巖 朴趾源이 正祖 21년(1797) 沔川郡守로 임명되어 謝恩次 입시했을 때 정조는 李邦翼의 표류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文體의 變改의 의미에서 撰進하도록 명하고 있다.

吾向以文體變改之意爲飭矣 果變改乎 吾近得一好題目 欲使汝製出一編 好文字者久矣¹⁴⁷⁾

연암은 이에 따라 <書李邦翼事>를 지어 바치고 있다.¹⁴⁸⁾ 특히 이방익의 아

官至萬頃縣令”

② 南萬里 編, 《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影印), 1989, p.220. “武科官至萬頃縣令”

146) ① <正祖實錄> 正祖 21년 윤6월 戊午條

② 朴趾源, 《燕巖集》, 景仁文化社(影印), 1989, p.102.

③ 李源祚, 앞의 책.

④ 南萬里 編, 앞의 책.

⑤ 金錫翼, 《耽羅紀年》卷之三

⑥ 朝鮮總督府, 《朝鮮人名辭書》, 圖書出版 民族文化(影印), 1983, p.508.

⑦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p.84.

⑧ 姜銓燮, 앞의 글, p.98.

⑨ 최강현, “漂海歌의 지은이를 살핌”, 《語文論集》, 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研究會, 1982, pp.73~74.

147) 朴宗采, 《過庭錄》下(奎章閣所藏本); 《韓國漢文學研究》 第6輯 附錄, 1982, p.7.

148) “上特召見邦翼 問以所經山川風俗 命史官錄其事 同舟八人 惟邦翼曉文字然僅其程途 又追憶口奏 往往失次 臣趾源 以沔川郡守 陞辭入侍于熙政堂”(朴趾源, 앞의 책, p.98.)

버지 李光彬도 일본 長崎島에 표류하였기에 父子가 표류한 셈인데 이와 같은 부자의 특이한 표류사실이 정조가 연암에게 한 소재로 제공하게 된 듯하다.

(3) 作品의 構造

〈書李邦翼事〉는 《燕巖集》 卷之六 別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또 다시 이본 격으로 李邦仁의 漂海錄으로 필사되어 전해지기도 하고 있으며,¹⁴⁹⁾ 《恩暉堂筆記》 卷之六에도 〈李邦翼漂海日記〉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¹⁵⁰⁾

〈서이방익사〉의 구조는 내용상 크게 ‘虛頭-漂流-後記’의 3단계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허두’는 왕명으로 인한 撰進과 이방익의 아버지 李光彬의 표류사실이 기록되었고, ‘표류’는 중국 福建省 澎湖府에 표착하여 山東省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이 나타났으며, ‘후기’는 귀국 후 우대받음과 그 간의 路程과 里數가 언급되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虛 頭	1. 王命으로 李邦翼의 표류사실의 撰進 (1) 正祖 20년(1796) 9월 21일 표류 정조 21년(1797) 윤6월 귀국 (2) 正祖의 撰進 명령 2. 李邦翼의 父 李光彬의 일본 長崎島 표류 (1) 한 醫師의 女婿 요청 (2) 濟州의 소개
漂 流	1. 中國 福建省 澎湖府에 표착 (1) 처음 일본으로 표류하다 중국으로 표류

149) 최강현, “漂海歌의 지은이를 살핌”, 《語文論集》 第23輯, 高麗大學校國語國文學研究會, 1982, pp.69~71.

沙汀洞 주인 전사본 李邦仁의 漂海錄은 〈書李邦翼事〉에 비해 몇 가지 변이된 양상을 보여 준다. 李邦翼이 李邦仁 또는 李邦億으로 표기하여 자체적으로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坤德配天堂’이 ‘大德天堂’으로, ‘馬宮大人’이 ‘麻宮大人’으로, ‘臺灣府’가 ‘大鸞府’로, ‘法海寺’가 ‘法護寺’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서이방익사〉보다 나중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150) 柳得恭, 《古芸堂筆記》 卷6, 亞細亞文化社(影印), 1986, pp.197~199.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 큰 고기가 배 가운데 뛰어듦 (3) 澎湖地方에 표착 (4) 澎湖島의 소개 2. 馬宮大人을 만남 3. 臺灣府에 도착 (1) 臺灣府의 소개 (2) 海環府의 소개 (3) 鹿耳門의 소개 (4) 嘉義縣의 소개 (5) 安平鎮의 소개 (6) 赤嵌城의 소개 4. 廈門에 도착 (1) 紫陽書院에 拜禮 (2) 朱子の 소개 5. 정월 5일 福建省에 도착 (1) 法海寺 구경 (2) 漳州의 新羅縣 6. 浙江省에 도착 (1) 黃津橋·西陽嶺을 지남 (2) 仙霞嶺의 소개 7. 江南省 江山縣에 도착 ○ 江山縣 소개 8. 龍游縣을 지나 嚴州登子陵臺에 도착 ○ 龍丘山 소개 9. 杭州로부터 蘇州에 도착 (1) 寒山寺·姑蘇臺·岳陽樓·虎邱寺 등이 주위에 있음 (2) 太湖 소개 (3) 虎邱山 소개 10. 金山寺 구경 ○ 金山의 소개 11. 山東省에 도착
後 記	1. 李邦翼의 귀환 후 우대받음 2. 路程記

李邦翼이 정조 20년(1796) 9월 21일 표류하여 10월 6일 澎湖地方에 표착하기까지는 16일 정도가 걸린 셈이며, 이듬해 윤6월 귀환하기까지는 9개월 정도가 경과한 셈이다. 路程記와는 별도로 작품의 표류 내용 속에 나타난 중요한 노정만 보더라도 澎湖地方-臺灣府-廈門-福建省-浙江省-黃津橋-西陽嶺-江南省江山縣-龍游縣-嚴州登子陵臺-杭州-蘇州-金山寺-山東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4) 主要內容

① 李邦翼 일행은 正祖 20년(1796) 9월 21일 표류하여 10월 6일 澎湖地方에 표착하고 臺灣府·福建·浙江·江南·山東·北京·遼陽을 거쳐 정조 21년(1797) 윤6월 귀국하는데 정조가 燕巖에게 이 표류 사실을 撰進 명령한다.

② 이전에 이방익의 아버지 李光彬도 서울에서 武科試를 보려고 배를 탔다가 일본 長崎島에 표류하는데 그곳의 한 醫師가 이광빈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한 후 女婿가 되어 주기를 간청하나 이를 거절한다. 그 의사는 이광빈 일행의 귀환을 적극 돕는다.

③ 이방익 일행은 처음 10여일 동안은 일본으로 표류하다 다시 중국으로 표류하는데 도중에 큰 고기가 배 가운데로 뛰어들어 일행이 이를 잡아 굶주림을 채우고 澎湖地方에 표착하여 馬宮大人을 만난다.

④ 臺灣府에 이송되고, 廈門에 도착하여 紫陽書院을 拜禮하고, 정월 5일 福建省에 도착하여 法海寺를 구경한다. 浙江省에 도착하여 黃津橋·西陽嶺을 지나 江南省 江山縣·龍游縣·杭州·蘇州를 지나 金山寺를 구경하고 山東省에 도착한다.

⑤ 이방익은 武科에 급제하여 守門將·宣傳官·全羅道中軍의 벼슬에 오른다.

(5) 表現 形式上的 特徵

〈書李邦翼事〉는 燕巖이 正祖에게 文體의 變改의 의미에서 撰進해 바친 작품이므로 우리 나라나 중국에 대한 연암의 지식이 부분적으로 삽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방익의 표류 사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들로서 濟州

의 소개를 비롯해서 澎湖島・臺灣府・海環府・鹿耳門・嘉義縣・安平鎮・赤崁城・朱子・新羅縣・仙霞嶺・江山縣・龍邱山・太湖・金山 등의 소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 후반부의 路程記에서도 뒷받침되는데 상세한 州縣과 里數가 표현되어 있다. 이를테면 里數의 표현에 있어서

澎湖至臺灣 水路二日 臺灣至廈門 水路十日 廈門至福建省城 一千六百里
福州至燕京 六千八百里 燕京至我境義州 二千七十里 義州至王京 一千三十里
王京至康津 九百里 耽羅北抵康津 南距臺灣 水路不論 合一萬 二千四百里¹⁵¹⁾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익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연암의 지식의 반영이다.

〔8〕柳菴叢書 所載 文淳得 일행의 漂海錄

(1) 形成 背景

文淳得의 〈漂海錄〉은 원래 1801년에서 1816년까지 14년 간 黑山島에서 유배생활하던 茶山 丁若鏞의 형인 巽菴 丁若銓이 문순득의 구술을 토대로 소록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손암이 기거가 불안하여 玆山(大黑山島)으로 옮기게 되고 나중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 柳菴이 문순득의 말과 손암의 소록을 참조하여 일편을 저술한 것이 바로 이 《柳菴叢書》 소재 〈표해록〉인 것이다. 유암은 순조 18년(1818) 玄洲書院에서 〈표해록〉을 집필했는데 牛耳島에 유배온 한학자로 서당을 두고 한학을 가르쳤던 인물이다.¹⁵²⁾

(2) 作品의 構造

全羅南道 新安郡 都草面 牛耳島 文彩玉의 집에서 崔德源에 의해 발굴 소개된¹⁵³⁾ 문순득의 〈표해록〉은 내용상 크게 ‘출범-표류-귀환-후기’의 4단계 구조

151) 朴趾源, 앞의 책, p.103.

152) 崔德源, “文淳得의 漂海錄: 琉球 및 呂宋 漂流記”, 《論文集》第14輯, 木浦海洋專門大學, 1980, pp.2~3.

153) 그 전문이 崔德源 교수의 위의 논문에 부록으로 영인 소개되었다.

로 되어 있다. '출범'은 출발일시·출발지·선박·목적지·일행·발선동기 등이 나타났고, '표류'는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표류원인, 표류과정, 표착일시, 표착지역, 노정 등이 언급되었으며, '귀환'은 귀환시의 날짜, 귀환지의 장소, 귀환 노정 등이 기록되었다. 또한 '후기'는 琉球와 呂宋의 風俗·宮室·衣服·海舶·土産·言語 등이 기록되었는데, 특히 유구어 81어휘와 여송어 54어휘가 한글로 기록되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 純祖 1년 (1801) 12월 2. 출발지 : 牛耳島 (小黑山島) 3. 선박 : 백여 가마니를 실을 수 있는 작은 배 4. 목적지 : 大黑山島 남쪽 수백 리에 있는 苔土島 5. 일행 : 文淳得 등 6인 6. 발선동기 : 흥어를 사러
漂 流	1.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 순조 2년 (1802) 정월 18일 2.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 弁島 근해 3. 표류원인 : 거센 서북풍을 만나 4. 표류과정 (1) 24일 동풍을 만나 濟州島로 향함 (2) 25일 서북풍을 만나 동남쪽으로 표류 5. 표착일시 : 정월 29일 정오쯤 6. 표착지역 : 琉球列島の 中山島 7. 노정 (1) 2월 2일 羊寬村에 도착 (2) 3월 20일 禽村前에 도착 (3) 3월 29일 德地島를 출발 洋永府를 지나 立沙島에 도착 (4) 4월 4일 白村에 도착 (5) 순조 2년 (1802) 10월 7일 중국을 향해 출발 馬齒山島에 도착 (6) 10월 16일 출항하였다가 17일 표류하여 11월 1일 呂宋 馬宜地方에 도착 (7) 11월 12일 출항하여 6일 만에 一咾嚙에 도착 (8) 순조 3년 (1803) 2월 文好謙·李白根·朴無磻·李中原이 귀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환길에 오름 (9) 9월 9일 廣東 澳門에 도착 (10) 12월 7일 香山縣에 도착 (11) 12월 11일 廣東府에 도착 제주에 표류했던 安南人을 만남 (12) 3월 28일 南雄府 浚昌縣에 도착 (13) 4월 5일 梅嶺을 지나 南安府에 도착 (14) 6월 康州府에 도착 滕王閣에 오름 (15) 9일 출항 4일 만에 江西府에 도착 (16) 14일 南京에 도착 (17) 20일 上元縣 金陵에 도착 燕自己碑를 구경 (18) 21일 燕湖縣에 도착 (19) 22일 楊州府에 도착 (20) 三浦를 지나 26일 沙島를 건너 淮陰館에서 투숙 (21) 山東界를 지나 5월 19일 皇城에 도착 (22) 20일 順天府를 지나 大興縣에 도착 (23) 22일 禮部에 알현하고 高麗館에 머물음
漂 流	1. 귀환시의 날짜 : 11월 4일 2. 귀환시의 장소 : 皇城 高麗館 3. 노정 (1) 24일 柵門을 지나 27일 義州에 도착 (2) 12월 16일 서울에 도착 (3) 30일 多慶浦에 도착
後 記	1. 風俗 2. 宮室 3. 衣服 4. 海舶 5. 土産 6. 言語 (琉球語 81 어휘, 呂宋語 54 어휘)

文淳得 일행이 牛耳島를 출발한 것이 순조 1년(1801) 12월이고 苔土島에서
홍어를 사고 돌아오다가 弁島 근해에서 표류한 날은 이듬해 정월 18일이다.

그리하여 처음 琉球列島の 中山島에 표착한 것이 정월 29일 정오쯤이니 표류한 날로부터는 12일 정도가 지난 셈이다. 또한 10월 16일 유구를 출발했다가 11월 1일 呂宋 馬宜地方에 도착했으나 15일 정도를 다시 바다에서 표류하였다. 그리하여 순조 5년(1805) 1월 8일에야 고향에 도착하고 있으니 집을 나간 지 4년여가 경과된 셈이다. 그 간의 중요 노정을 보면 牛耳島-苔土島-弁島 근해-琉球國 中山島-羊寬村-禽村前-德地島-洋永府-立沙島-白村-馬齒山島-呂宋國 馬宜地方-一咾呢-廣東 澳門-香山縣-廣東府-南雄府 仔昌縣-梅嶺-南安府-康州府-江西府-南京-上元縣 金陵-蕪湖縣-楊州府-三浦-山東界-皇城-順天府-大興縣-高麗館-柵門-義州-서울-多慶浦-고향 등이다.

(3) 主要內容

① 純祖 1년(1801) 12월 文淳得 일행 6명은 牛耳島에서 작은 배를 타고 苔土島에 홍어를 사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1802년 1월 29일 琉球의 中山島에 표착한다.

② 순조 2년(1802) 10월 7일 중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가 또 다시 표류하여 11월 1일 呂宋의 馬宜地方에 표착한다.

③ 11월 12일 一咾呢에 도착하고 이듬해 2월 文淳得·金玉紋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귀환길에 오른다.

④ 순조 3년(1803) 9월 9일 廣東 澳門에 도착하고, 이어 香山縣을 지나 廣東府에 도착하여 제주에 표류했던 安南人을 만난다. 계속해서 南雄府 仔昌縣, 梅嶺, 南安府, 康州府, 江西府를 지나 순조 4년(1804) 5월 19일 중국 皇城에 도착하여 高麗館에 머물다.

⑤ 11월 4일 귀환길에 올라 義州를 지나 12월 16일 서울에 도착한다. 12월 30일 多慶浦에 이르고 이듬해 1월 8일 고향에 도착한다.

⑥ 琉球와 呂宋의 風俗·宮室·衣服·海舶·土産·言語 등에 대해 기록한다.

(4) 表現 形式上的 特徵

문순득의 <표해록>은 작품 전반부의 일기체적 구성법과 후반부의 풍토기적

구성법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의 일기체적 구성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나온 노정과 상황변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후반부의 풍토기적 구성법은 琉球와 呂宋에서 전문한 사실들을 風俗·宮室·衣服·海舶·土產·言語 등의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의 전문한 내용들을 통해서 유구와 여송의 남방문화적 모습과 문화후진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유구의 경우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손바닥에 놓고 입으로 빨아 먹는데 젓가락을 입에 넣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 이를 싫어한다거나¹⁵⁴⁾ 여송에서 가슴이 답답하면 빗물을 마시어 설사를 한다고¹⁵⁵⁾ 하는 사실들은 문화후진 시각이다.

더욱이 琉球語 81어휘와 呂宋語 54어휘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송어는 실제로 呂宋人에게 시험했더니 절절이 꼭 맞았다고 할 정도이다.¹⁵⁶⁾ 이를테면 ‘牛’의 경우 유구어는 ‘우시’, 여송어는 ‘마ㅅ오’로 표기하고 있으며, ‘馬’의 경우 유구어는 ‘마’, 여송어는 ‘가마’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의 기록은 다른 표해록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문순득 <표해록>의 표현상의 한 특징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 유구와 여송의 언어 연구에도 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9] 罷睡篇 所載 崔斗燦의 乘槎錄

(1) 作者

崔斗燦은 正祖 3년(1779) 大丘 출신으로 자는 應七, 호는 江海山人이다. 純祖 17년(1817) 장인이 大靜縣監으로 부임하자 그를 따라 濟州에 가서 학문을 닦다가 이듬해 귀로에 폭풍으로 중국 浙江에 표류, 청국 관원의 보호로 귀국했다.¹⁵⁷⁾

154) “與人會食以箸 拈饌置諸掌 以口吸之(嫌箸人口汚)”(위의 글, p. 27.)

155) “胸膈煩鬱 飲雨水泄下”(위의 글, p. 31.)

156) “至是羅州黑山島人文淳得 漂人呂宋國 見該國人形貌衣冠 其方言 亦有所錄來者而漂留人容服 大略相似 試以呂宋國方言問答 則節節 合”(《純祖實錄》 純祖 9년 6월 乙卯條)

157)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80, p. 938.

(2) 形成 背景

〈乘槎錄〉卷之一 5월 초2일조에 보면

在館留一日 無以自適 歷敘漂海之狀 名之曰乘槎錄 取張騫窮河源之義也 越
中士大夫 日相經過 有抄錄以去者 余以覆醬甌 麾手止之辭 不獲則輪覽 甚可
愧也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寧波府 城市館에 있을 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
동안 겪은 표해 상황을 글로 적어 〈乘槎錄〉이라 하였고 이는 張騫의 고사에서
취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중국 선비들이 날마다 그 글을 읽고 베껴 가기도
하고 또는 그 글을 읽고서 崔斗燦의 문장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3) 異本

① 乘槎錄 :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 《罷睡篇》에 수록된 필사본이다. 〈乘槎
錄序〉가 1장, 〈乘槎錄卷之一〉이 42장, 〈乘槎錄卷之三〉이 59장, 〈乘槎錄卷之
三〉이 49장 등으로 되어 있고, 卷之三 끝장에는 ‘大韓光武元年陰曆陽月初九
日 崔福述抄’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최두찬이 직접 쓴 원본이 아니라
1897년에야 최복술이 새롭게 필사한 이본인 듯하다. 1권부터 3권까지 일기체
로 되어 있으며 詩賦들을 별도로 독립해서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문답한 상황 속에 제대로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규장각본의 바탕이
되는 원본이나 또 다른 이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江海乘槎錄〉
에 비해 여러 곳에서 誤字나 脫字가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1권 첫 부분의 〈輓
夫使君宗仁〉이라는 오언고시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乘 槎 錄	江海乘槎錄
崧高維漢擘	崧高維漢擘
往往降異人	往往降異人
誕生三乙那	誕生三乙那
開國南海濱	開國南海濱

乘 槎 錄	江海乘槎錄
姓名通羅代	姓名通羅代
舟楫入耽津	舟楫入耽津
麗朝崇文德	麗朝崇文德
高氏觀國賓	高氏觀國賓
千里遂仕宦	千里遂仕宦
三世蘊經綸	三世蘊經綸
公昔香案吏	公昔香案吏
騎龍下三神	騎龍下三神
嬋媛古氏族	嬋媛古氏族
才德世無倫	才德世無倫
章奏唐賢懇	章奏唐賢懇
政籍漢吏循	政籍漢吏循
如何南極宿	如何南極宿
不照內臺臣	不照內臺臣
落日都門外	落日都門外
送葬盡時賢	送葬盡時賢
江海引舟桃	江海引丹桃
魚龍護靈□	魚龍護靈輜
□□三姓國	蕭條三姓國
□□淚四隣	春歌淚四隣

앞의 것은 규장각본인 〈輓夫使君宗仁〉이고, 뒤의 것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본인 〈輓夫使君〉으로 6구의 ‘舟楫入耽津’과 ‘舟楫入耽津’은 전자가 오자임을 알 수 있고, 21구의 ‘江海引舟桃’와 ‘江海引丹桃’는 후자가 오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는 후자에 비해 22구에서 ‘楸’, 23구에서 ‘蕭條’, 24구에서 ‘春歌’ 등의 탈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이들 이본들은 또 다른 밑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江海乘槎錄：成均館大學校 도서관 소장 판본이다. 詩賦만을 따로 모아 卷之一에 넣고, 卷之二에 표해일기를 실어 2권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판본으로 간행하면서 원본과는 달리 編差의 錯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作品의 構造

崔斗燦의 〈乘槎錄〉¹⁵⁸⁾은 내용상 크게 ‘虛頭-出帆-漂流-歸還-後記’의 5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허두’에는 〈乘槎錄序〉와 〈濟州觀德亭次板上韻〉·〈別刀浦得高字〉·〈輓夫使君宗仁〉·〈三姓國〉 등의 한시가 기록되었고, ‘출범’은 출발일시·출발지·일행·발선동기·목적지 등이 언급되었다. ‘표류’에는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표류원인,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표착일시, 표착지역, 노정과 견문 등이 나타났고, ‘귀환’에는 귀환시의 날짜와 장소 및 노정 등이 표현되었다. 또한 작품의 끝에는 ‘후기’로 室廬說·衣服說 등이 기록되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虛 頭	1. 濟州觀德亭次板上韻 2. 別刀浦得高字 3. 輓夫使君宗仁 4. 三姓國
出 帆	1. 출발일시: 純祖 18년(1818) 4월 10일 2. 출발지: 濟州 別刀浦 3. 일행: 崔斗燦 등 50명 4. 발선동기: 從姉兄인 張翼을 만나러 가다가 5. 목적지: 羅營
漂 流	1.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4월 10일 哺時쯤에 2. 표류원인: 대풍우를 만나 3. 바다에서의 표류과정 (1) 신고 있던 公私馬를 바다에 던짐 (2) 4월 12일 紅衣島(可佳島) 근해를 지나감 (3) 25일 중국 어부들의 구조 4. 표착일시: 4월 26일 5. 표착지역: 中國 浙江省 寧波府 定海縣 (1) 5월 2일 寧波府 城市官에 머무름 (2) 15~19일. 鎮海縣·慈谿縣·餘姚縣을 지나 上虞縣에 도착

158) 이 글의 밑본이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楊子江을 봄 (3) 20~22일, 紹興府 會稽縣을 지나 蕭山縣에 도착 제주 표류인을 만남 (4) 6월 9~11일, 浙江 清波門을 출발 新安縣·石門縣을 지나 嘉興府 秀水縣에 도착 (5) 13~19일, 江蘇省 姑蘇城·長洲縣·無錫縣·丹陽縣을 지나 鎮江府 丹都縣에 도착 (6) 19~24일, 楊州府 江都縣·高郵州·寶應縣·清江浦·黃河를 건너 王子營 清河縣에 도착 (7) 25~26일, 桃源縣·太安縣을 지나 徐州府 河集縣에 도착 (8) 27~30일, 剡城縣을 지나 沂州府 蘭山縣에 도착 (9) 7월 2~5일, 沂水縣을 지나 泰安府 新泰縣에 도착 (10) 9~10일, 長清縣·濟河縣을 지나 濟南省 山東府 禹城縣에 도착 (11) 12~15일, 德州府·高明里·清河縣을 지나 河間府에 도착 (12) 16~22일, 任丘縣·抵雄縣·新城縣·良鄉縣을 지나 皇城에 도착 제주 표류인을 만남
歸 還	1. 귀환시의 날짜 : 8월 16일 2. 귀환시의 장소 : 皇城 3. 노정 (1) 16~25일, 通州府·三河縣·蘇州縣·玉田縣·豐潤縣·盧龍縣을 지나 山海館에 도착 (2) 27~29일, 奉天府 葉紅旅를 지나 錦府 高橋駟에 도착 (3) 9월 3~13일, 廣寧縣·瀋陽·二道境子를 지나 巨流河에 도착 (4) 16~10월 2일, 瀋京·鳳凰城을 지나 柵門에 도착
後 記	1. 室廬說 2. 衣服說

崔斗燦 일행이 제주를 출발한 것이 純祖 18년(1818) 4월 10일이고 중국 浙江省 寧波府 定海縣에 표착한 것이 4월 26일이니 17일이 지난 셈이다. 또한

8월 16일 皇城을 출발하여 義州에서 120리에 있는 柵門까지 도착한 것이 10월 2일이니 표류한지 6개월 정도가 경과되었다.

그 간의 중요노정을 보면 濟州-寧波府 定海縣-鎮海縣-慈谿縣-餘姚縣-上虞縣-紹興府 會稽縣-蕭山縣-新安縣-石門縣-嘉興府 秀水縣-江蘇省 姑蘇城-長洲縣-無錫縣-丹陽縣-鎮江府 丹徒縣-楊州府 江徒縣-高郵州-寶應縣-清江浦-清河縣-桃源縣-太安縣-徐州府 河集縣-剡城縣-沂州府 蘭山縣-泰安府 新泰縣-長清縣-濟河縣-山東府 禹城縣-德州府-河間府-任丘縣-抵雄縣-新城縣-良鄉縣-皇城-通州府-三河縣-蘇州縣-玉田縣-豐潤縣-盧龍縣-山海館-奉天府 葉紅旅-錦府 高橋駟-廣寧縣-瀋陽-二道境子-巨流河-瀋京-鳳凰城-柵門 등이다.

(5) 主要內容

① 崔斗燦 일행 50인은 純祖 18년(1818) 4월 10일 제주 別刀浦를 출발하여 羅州에 있는 從姉兄 張翼을 만나러 가다가 표류하여 4월 26일 중국 浙江省 寧波府 定海縣에 표착한다.

② 寧波府 城市館에 머물며 표류상황을 글로 적어 乘槎錄이라 하고 縣主 沈使姚 등과 시를 문답한다.

③ 鎮海縣·慈谿縣을 지나 餘姚縣에서 嚴子陵 古里를 생각하며 시를 짓고, 上虞縣에 도착 楊子江을 구경하며, 紹興府 會稽縣을 지나 蕭山縣에 이르러 金光顯 등 제주 표류인을 만난다.

④ 新安縣·江蘇城·丹徒縣·寶應縣·桃源縣·河集縣·沂州府·濟河縣·山東府·德州府·河間府 등을 지나며 시를 짓고 皇城에 도착한다.

⑤ 通州府·玉田縣·山海館·奉天府·瀋陽 등을 지나며 시를 짓는다.

⑥ 二道境子·巨流河·瀋京·鳳凰城 등을 지나 10월 2일 柵門에 도착한다.

(6) 表現 形式上的 特徵

崔斗燦의 <乘槎錄>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詩賦들의 삼입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비교적 긴 분량의 崔溥의 <漂海錄>에는 한 편의 한시도 수록되어 있지 않는 데 반해 <승사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인들과 주고받은 시는 말할 것 없고 여러 州縣을 지나면서 느낀 감상 등을 시로써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卷之一의 〈濟州觀德亭次板上韻〉이나 卷之三의 9월 26일조에 大高嶺(摩天嶺)을 지나면서 느낀 정서를 각각 노래한 칠언율시와 오언절구 등은 시로 시작해서 시로 끝난다는 느낌을 준다.

亭名觀德不觀兵
客子登臨萬古情
滄海波濤春後晏
蓬萊雲霧曉來清
居人皮服島夷俗
游女春歌古國聲
防禦營中日無事
狼烟夜夜報昇平

谷湏人無語
風寒樹有聲
車徒相慰勉
東指鳳凰城

그가 많은 중국 사대부들로부터 한문 문장실력을 인정받지만 事大精神은 그를 지배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데올로기였다. 그러기에 조선은 중국의 小邦이며 小中華라고 인식하기에 이른다.¹⁵⁹⁾ 이는 그의 많은 시편들이 중국의 여러 유적들을 시로써 형상화하는 결과로 나타나며 결국 중국이 上國이라는 기본축으로 인식하는 시대정신의 발로라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여러 풍물들을 이국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이와 감탄의 사실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扶病曳脚寸寸前進 到觀音寺 則佛像之蟠據 名山盡非虛語也 沙門五里 皆以
孰石布地 地多紫竹林房舍之多 至於三百六十四刹 一房爲一刹 康熙皇帝 以銀
百萬兩 重修者也 華人所謂天下第一道場也¹⁶⁰⁾

159) “余答之曰 春秋之義夷而進於中國 則中國之小邦 亦小中華也”(〈乘槎錄〉卷之三 6월 30일조)

160) 〈乘槎錄〉卷之一 4월 26일조

浙東省 寧波府 定海縣 普陀山에 있는 觀音寺를 구경하고 묘사한 것으로 沙門까지 5리가 넘는데 모두 구운 돌을 땅바닥에 깔았고 竹林房舍는 364찰이나 되는데 康熙 皇帝가 은 백만 냥을 들여 중수한 것으로 천하제일 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0] 心田稿 所載 金光顯 일행의 耽羅漂海錄

(1) 形成 背景

金光顯 일행의 〈耽羅漂海錄〉은 朴思浩가 지은 《心田稿》에 수록되었다.¹⁶¹⁾ 박사호는 純祖 28년(1828) 謝恩兼冬至正使 洪起燮의 幕裨로 燕京에 다녀와서 그 연행 기록인 《심전고》를 남긴 것이다.¹⁶²⁾ 그는 〈탐라표해록〉 끝부분에

余於旅燈之下 問其所經歷其言 作漂海錄

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행 중에 표류 사실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비단 김광현 일행의 표류 사실은 박사호만이 들은 바가 아니라 최두찬의 〈승사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蘇州漂流人金光顯 以明日起程 故載書兩度一付羅營一付大靜¹⁶³⁾

이로 미루어 김광현 일행의 표류 사실은 당시 중국에 간 우리 나라 사람에게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생각된다.

(2) 作品의 構造

161) 《국역연행록선집》Ⅸ, 민족문화추진회, 1989, pp.184~186.

162) 李廷燮, 위의 글, p.9.

163) 〈乘槎錄〉 卷之三 8월 7일조. 이 밖에 8월 8일조에도 ‘金光顯等十二人 起程 回國絕域相送懷緒不佳 至有出門失聲者’라고 하여 金光顯 일행을 12인으로 기록하였는 데 반해 〈耽羅漂海錄〉에서는 김광현 일행을 7인으로 기록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

〈耽羅漂海錄〉은 내용상 크게 ‘출범-표류-후기’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출범’은 출범일시·일행·발선동기·목적지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표류’는 바다에서의 표류일시·표류원인·표착지역·노정 등이 기록되었다. 또한 ‘후기’는 바다에서의 표류상황과 普陀山 및 錢塘의 풍물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純祖 28년(1828) 9월 7일 2. 일행: 金光顯 등 7인 3. 발선동기: 고기를 잡으러 4. 목적지: 楸子島 근해
漂 流	1.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9월 10일 2. 표류원인: 큰 바람을 만나 3. 표착지역: 중국 南海 普陀山 4. 노정 (1) 定海縣에 8일 동안 머무르다 육로로 鎮海·寧波·慈谿·餘姚·上虞·山陰·蕭山을 거쳐 錢塘에 이르러 47일 동안 머물음 (2) 이어 수로로 石門·嘉興·吳江·吳縣·無錫·常州·丹陽·丹徒·楊州·高郵·寶應·淮安·清江을 거쳐 12월 16일 물에 내림 (3) 17일 육로로 山東·桃源·洪花·蘭山·李家莊·板城·蒙陰·新泰·泰安·濟河·禹城·平原·德州·景州·交河·河間·新雄·涿州·良縣을 거쳐 7일 皇城에 도착
後 記	1. 바다에서 9일 동안 표류하며 고래 등을 만남 2. 普陀山の 아름다움 3. 錢塘 풍경의 아름다움, 의식의 풍족함, 풍속의 돈후함

金光顯 일행 7인이 純祖 28年(1828) 9월 7일 楸子島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10일 바람을 만나 9일 동안 표류하여 중국 南海 普陀山에 표착하고 이듬해 정월 7일에 皇城에 이르니 제주를 출범한 후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된 셈이다. 그 간의 노정을 보면 濟州-普陀山-定海縣-鎮海-寧波-慈谿-餘姚-上虞-山陰-蕭

山-石門-嘉興-吳江-吳縣-無錫-常州-丹陽-丹徒-楊州-高郵-寶應-淮安-清江-山東-桃源-洪花-蘭山-李家莊-板城-蒙陰-新泰-泰安-濟河-禹城-平原-德州-景州-交河-河間-新雄-涿州-良縣-皇城 등이다.

(3) 主要內容

① 純祖 28년(1828) 9월 7일 제주 사람 金光縣 등 7인이 고기를 잡으러 楸子島로 향했다가 10일에 큰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9일 만에 중국 南海 普陀山에 표착한다.

② 定海縣에 머무르다 수로로 鎮海·寧波·慈谿·餘姚·上虞·山陰·蕭山을 거쳐 錢塘에 이르러 47일 동안 머무른다.

③ 수로로 石門·嘉興·吳江·吳縣·無錫·常州·丹陽·丹徒·楊州·高郵·寶應·淮安·清江을 거쳐 12월 16일 물에 내린다.

④ 17일 육로로 山東·桃源·洪花·蘭山·李家莊·板城·蒙陰·新泰·泰安·濟河·禹城·平原·德州·景州·交河·河間·新雄·涿州·良縣을 거쳐 7일에 皇城에 도착한다.

⑤ 그 사이 山川·樓臺·人物·謠俗 등은 적지 못했는데 普陀山이 명산이고 錢塘의 경치가 아름다우며 풍속이 돈후하다.

(4) 表現 形式上的 特徵

〈耽羅漂海錄〉의 표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 문물과 그들 풍속의 돈후함을 예찬하는 문화선진 시각이다.

普陀山海中名山 寺刹精麗 花卉繁華 可謂仙境 而錢塘形勝天下所無 今見北京大不如錢塘矣 湖水如鏡 二十四橋各設虹霓 錦帆畫船出入於其中彩閣丹樓 一層二層三層四層至五層聯絡湖上 冬暖如春 花樹交映 居人皆飯稻羹 魚錦衣珠佩 聞東國漂人 皆競引還家 各設酒饌 慰問勞苦 驢行頗厚或醉於笙歌之樓 或遊於珠璣之市¹⁶⁴⁾

164) 《국역연행록선집》Ⅸ, 민족문화추진회, 1989, p.62.

普陀山에 있는 절의 아름다움과 화초가 변화한 모습 그리고 錢塘의 二十四橋와 彩閣·丹樓들이 5층에 이르는 것까지 호수에 즐비한 모습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그 고장 사람들의 생활의 풍족함과 인심의 돈후함 등에 천하의 낙원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런 반면 작품 전반부에는 풍물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나온 노정을 나열하는 노정기적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

〔11〕 燕輶直指 所載 濟州漂人問答記

(1) 形成 背景

〈濟州漂人問答記〉는 1832년에서 1833년 사이에 冬至使 겸 謝恩使 徐耕輔의 書狀官으로 다녀온 金景善의 使行記錄인 《燕輶直指》 卷之三 중의 〈留館錄〉 상의 12월 2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¹⁶⁵⁾ 이미 〈유관록〉상의 12월 23일조에는 저녁에 琉球國 사신이 도착하였는데 제주 표류인 26명을 데리고 와서 禮部에 넘겼는데 金景善 일행에 압송되어 와서 대자리로 엮어 만든 긴 집에 거처케 하고는 回程을 기다려서 데리고 가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⁶⁶⁾ 그리하여 12월 25일 밤에 유구에 표류했던 제주 사람들을 불러 그 始末을 물어 보았더니 그들이 지내온 일들이 대단히 들을 만하고 또 작은 책자 하나를 바쳤는데 聖申에게 그 기록한 것과 대답한 것을 토대로 하여 일통의 문자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제주표인문답기〉이다.¹⁶⁷⁾

(2) 作品의 構造

이 작품은 내용상 크게 ‘출범-표류-후기’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출범’의 내용은 출발일시·일행·발선동기·목적지 등이 나타났고, ‘표류’의 내

165) 《국역연행록선집》 X, 민족문화추진회, 1989.

166) “夕間 琉球國使臣來到(別有琉球館記) 率我國濟州漂流人二十六人 到付禮部自本部押送于行中 以簾席構成長室以處之 待回程將携去云”(《국역연행록선집》 X, 민족문화추진회, 1989, p.109.)

167) “夜招濟州漂人等 問其始末則其所經歷 多可聞者 又納一小冊子 蓋其日記也 雜以眞諺語 無端緒 使聖申因其所錄又以所答 以補之遂成一通文字(別有濟州漂人問答記)” (위의 책, p.111.)

용은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표류원인, 표착자, 표착지역, 표착일시, 노정과 견문 등이며, '후기'의 내용은 표류자들의 진술내용이 史牒에 기록된 것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고의로 표류한 무리들 같다고 기록되었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1. 출발일시 : 純祖 31년 (1831) 11월 23일 戌時쯤 2. 일행 : 33인 3. 발선동기 : 장사하러 4. 목적지 : 本土
漂 流	1.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 다음날 午時쯤 2. 표류원인 : 逆風이 갑자기 일어나 3. 표착자 : 26인 4. 표착일시 : 12월 7일 5. 표착지역 : 유구국 伊江島 6. 노정과 견문 (1) 12월 11일 通官과 문답 (2) 언덕 위의 墳墓 (3) 伊江島의 형승 (4) 12월 24일 國城으로 감 (5) 磚總驛 (6) 王畿의 형승 (7) 田結(선타에 모내기하고 다음해 5,6월 수확) (8) 交易(일본인들이 와서 교역함) (9) 賓客·제사·혼인·喪葬(高禮를 쓰되 國制를 참작) (10) 市肆(매매는 여자들이 주관) (11) 귀신(숭상함) (12) 宮室(중국과 비슷함) (13) 服飾(홀바지에 두루마기를 걸침) (14) 버선과 신발(평소에 신지 않음) (15) 머리쓰개(輻布冠 및 샷갓과 비슷) (16) 음식(甘譜를 恒食) (17) 物産 1) 해물·곡물·채소 등 우리 나라에 있는 것들이 많음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 석류 · 감자 · 꿀 · 유자 3) 금 · 은 · 동 · 주석이 풍족 (18) 朝貢 (3년에 한 번씩 중국에 조공) (19) 8월 24일 邦霸浦 출발 (20) 9월 그믐 福建省에 도착 (21) 9월 6일 閩縣에 도착 (22) 10월 5일 閩中の 館所를 출발 여러 곳을 지남 (23) 酒樓 (24) 西湖十景 (25) 錢塘十景 (26) 石門梁 등을 지나 12월 23일 皇城에 도착
後 記	1. 史牒에 기록된 것과 차이가 남 2. 고의로 표류한 무리 같음

일행 33인이 제주를 출발한 것이 純祖 31년(1831) 11월 23일 戌時쯤인데 그 다음날 逆風을 만나 표류하여 유구열도의 伊江島에 표착한 것이 12월 7일이므로 바다에서의 표류기간도 14일 가까운 셈이다. 또한 그들이 유구의 邦霸浦를 출발한 것이 8월 24일이고 중국 皇城에 도착한 것이 12월 23일이니 4개월여가 경과된 셈이다. 즉 제주를 출발하여 1년 1개월여 만에 중국 황성에 도착하고 있다. 그 간의 중요 노정을 보면 濟州-琉球國 伊江島-清江島-北江島-東北島-磚總驛-邦霸浦-中國 福建省-閩縣-古田縣-南平縣-建安縣-建陽縣-浦城縣-龍遊縣-蘭縣-杭州府-獅子港-嘉興縣-無錫縣-楊州驛-山陽縣-桃源縣-蘭山縣-泰安縣-長清縣-德州府-音現縣-新城縣-宛平縣-皇城 등이다.

(3) 主要內容

① 純祖 31년(1831) 11월 23일 戌時쯤에 제주 사람 33인이 장사하러 本土로 가다가 표류하여 12월 7일 유구국 伊江島에 표류하였는데 26인만이 생존한다.

② 12월 11일 한 通官과 문답 후 12월 24일 통사가 일행을 國城으로 압송하는데 清江島 · 北江島 · 東北島를 지난다.

③ 歲時의 절차는 우리 나라의 풍속과 대략 같은데, 王畿는 사방이 각각 3백 리가 되지 못하고, 왕성의 둘레는 10리에 불과하며 날씨가 봄과 같아 설달에 모내기를 하여 다음해 5~6월에 수확한다.

④ 일본 사람들이 늘 와서 교역하고, 賓客·제사·혼인·喪葬에는 모두 古禮를 쓰되 國制를 참작한다. 또한 市肆의 매매는 여자들이 주관하며, 귀신을 심히 숭상하여 산천과 절에 기도드리는데 여자가 많다.

⑤ 宮室의 제도는 대략 중국과 같아서 온돌을 만들지 않고 대자리를 칸 평상이 있을 뿐이다.

⑥ 일반 백성의 服飾은 겨울이나 여름을 가리지 않고 모두 홑바지를 입는데 위에는 두루마기를 걸치며, 평소 버선이나 신발은 신지 않고, 음식은 대개 甘藷를 常食으로 삼는다.

⑦ 물산은 해물·곡물·채소 등 우리 나라에 있는 것들이 많으며, 석류·감자·꿀·유자가 그곳 땅에 적합하고 금·은·동·주석이 풍부하다. 3년에 한 번씩 중국에 朝貢한다.

⑧ 使行人·交易人들과 함께 8월 24일 邦霸浦를 출발 9월 그믐 중국 福建省에 도착한다.

⑨ 10월 5일 閩中の 館所를 출발 여러 州縣을 지나 12월 23일 皇城에 도착한다.

(3) 表現 形式上的 特徵

〈제주표인문답기〉는 전체적으로 문답체적 구성법을 취하면서 노정 중에서 전문한 풍토까지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구국의 국속이나 궁실의 제도¹⁶⁸⁾, 복식·음식·물산¹⁶⁹⁾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국속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168) “宮室之制 大略如中國同 不爲溫突 而只有竹簾平床 廚房則別在他所” (위의 책, p.112.)

169) “服飾則朝士章服已悉於琉球館記 其民庶則無論冬夏 皆則單袴 而上加周衣或有只着單周衣者. 飲食則略如我國 而蓋以甘藷爲恒食 其所產 則海物如禾 穀菜蔬亦多我國所有 而榴柑橘柚充其土 宜金銀銅錫 不可勝用足可謂一區樂土” (위의 책, p.112.)

國俗凡賓客祭祀婚姻喪葬 皆用古禮 而參以國制 凡市肆賣買 皆女人主之 酷尚鬼神 每日祈禱于山川及寺 觀者亦多女人 男子則或事耕耘 或爲船商 男女之別 不甚截嚴 女人行遇男子 則傾手中小傘略蔽其面 男子亦不顧而去¹⁷⁰⁾

라고 하여 賓客·祭祀·婚姻·喪葬에는 모두 古禮를 쓰고, 市肆의 매매는 여자들이 주관하며, 귀신을 심히 숭상하여 매일 산천과 절에 기도드리는데 여기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남자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니기도 하며, 남녀의 분별은 그리 엄격하지 않다고 말한다. 적어도 작품 전반부인 유구에서의 노정은 전문 위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후반부인 중국에서의 노정은 州縣 위주의 나열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작품의 끝부분으로 북경까지 노정을 기록한 대목이다.

又過楊州驛 開泉縣 高郵縣 有張士誠起兵處 平橋鎮 山陽縣 清江驛 漁溝驛 桃源縣 欲尋武陵深處 而忙未往見 蓋平縣 西退驛 遷縣 蘭山驛 蘭山縣 新泰縣 泰安驛 泰安縣 長清驛 長清縣 濟南驛 正源驛 直隸德州府 德州縣 富莊驛 音現縣 河間縣 任邱驛 新城縣 涿州府 良鄉縣 宛平縣 凡陸行六千三百餘里 十二月二十三日 始到皇城¹⁷¹⁾

楊州驛을 거쳐 皇城에 도착하기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30여 주현을 경과한 노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노정기적 구성법이다.

[12] 朴元良의 漂民對話

(1) 形成 背景

〈漂民對話〉¹⁷²⁾는 상하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하권 끝장에는 ‘弘化二年己四月書終 漂民對話下終 朴元良’이라 적혀 있다. 이로 보아 조선 憲宗 11년

170) 위의 책, p.112.

171) 위의 책, p.115.

172) 〈漂民對話〉는 일본 경도대학 문학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진태하 교수가 처음 학계에 발표했다(진태하, 앞의 글). 그러나 여기에는 해제 다음에 부록으로 상권만을 함께 영인하여 보고하였으므로 그 하권은 金一根 교수가 복사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였다.

(1845) 朴元良이라는 사람이 필사한 듯하다. 책의 크기는 가로 19.5cm 세로 25.5cm이며 한지를 접어서 모필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매 페이지 5행으로, 매행 15자 내외로 되어 있고 상권이 54장, 하권이 45장으로 되어 있다. 한자에는 좌측에 한글로 음을 붙여 적고 우측에는 가다까나로 부분적으로 번역구를 적어 놓았다. 모필체는 능숙한 필치였으나 한자의 음은 틀린 곳이 적지 않음으로 보아 특별한 유식자의 기록은 아닌 듯싶다.¹⁷³⁾

(2) 作品의 構造

〈표민대화〉는 내용상 크게 ‘출범-표류-후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출범’의 경우는 출발일시·일행·발선동기·출발지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표류’는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표류원인, 표착일시,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및 표류자들이 傳語官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하고 이에 답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또한 ‘후기’는 일본 관원들이 배를 보수하여 주는 내용과 조선과 일본 배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出 帆 ①	1. 출발일시: 上年 동짓달 2일 2. 일행: 전라도 順天 어부 11명 3. 발선동기: 전상할 대구를 잡으려
出 帆 ②	1. 출발일시: 10월 26일 2. 일행: 전라도 海南 상인 16명 3. 출발지: 해남 4. 발선동기: 동짓달 함경도 德源에서 乾魚類를 사서 강원도 平海에서 팔고 콩을 사 오기 위해
漂 流 ①	1.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그 날 亥時쯤 2. 표류원인: 홀연히 미친 바람이 일어나 3. 표착일시: 초8일 4. 문답 (1) 釋迦如來와 觀音菩薩을 위함

173) 진태하, 앞의 글, p.66.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 韓良만이 戶牌를 가짐 (3) 한량은 조선의 과거하였던 사람의 자손 (4) 일행이 眞書를 모르고 諺文만 읽음 (5) 독약과 焰燄는 없음
漂 流 ②	1. 바다에서의 표류일시 : 금년 정월 27일 2. 표류원인 : 홀연 서북풍이 일어나 3. 표착일시 : 금월 3일 4. 바다에서의 첫 표류지역 : 경상도 長鬐 앞바다 5. 문답 (1) 德源에서 襄陽사람 2인을 平海까지 태워감 (2) 拘役廳의 漂札을 표류 중 잃음 (4) 양식 · 나무 · 식기 入送 요청 (5) 의원과 고약 등의 약품 요청 (6) 이불 · 생고기 · 술 등을 요청 (7) 下陸 요청 (8) 모기장 요청 (9) 배를 修補할 것을 알려줌 (10) 長崎島까지 傳語官 동행 요청 (11) 醬을 요청 (12) 귀환 전 소주와 국수 대접 (13) 승선 전의 제사 요청 (14) 지남침 요청 (15) 발선 전의 搜檢 (16) 이별인사
後 記	1. 일본 관원들의 배 修補 2. 조선과 일본 배의 차이

〈漂民對話〉는 표류자들인 전라도 順天 어부들 및 전라도 海南 상인들과 일본 관원들과의 문답으로 되어 있다. 전라도 순천 어부들은 동짓달 2일에 진상할 대구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 날 亥時쯤에 표류하여 초8일에 표착했으니 7일 정도를 바다에서 표류한 셈이며, 전라도 해남 상인들은 10월 26일 해남을 발

선하여 장기 앞바다에서 정월 27일 표류하여 금월 3일에 표착하였다고 하였으니 역시 7일 정도를 바다에서 표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그 노정도 전자의 경우 順天-일본 해변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 海南-德源-平海-長鬚 앞바다-일본 해변 등으로 나타난다.

(3) 主要內容

① 전라도 順天 어부 11인은 上年 동짓달 2일 진상할 대구를 잡으러 출범했다가 그 날 亥時쯤해서 홀연히 미친 바람이 일어나 초8일에 일본 해변에 표착한다.

② 일본 傳語官과의 문답에서 일행은 석가여래와 관음보살을 위하고 戶牌는 韓良만이 가졌으며 眞書를 모르고 諺文만 알며 독약과 焰硝는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다.

③ 전라도 해남 상인 16인은 상년 10월 26일 해남에서 발선하여 동짓달 9일 함경도 德源에서 乾魚類를 사서 강원도 平海에서 팔고 콩을 사서 돌아오다가 금년 정월 27일 長鬚 앞바다에서 홀연 서북풍으로 표류하여 금월 3일에 높은 산 아래에 표착한다.

④ 도중에 덕원에서 평해로 갈 襄陽 사람 2인을 실어다 주었고, 公文은 없으며 拘役廳의 漂札은 가졌으나 표류 중 잃어 버린다.

⑤ 전어관에게 양식·나무·식기·약품·小柑子·이불·생고기·술·모기장·醬·지남침 등을 요청한다. 또한 환자들을 의원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⑥ 長崎島로 떠나기 전 일본 관원으로부터 소주와 국수 대접을 받고, 승선전의 제사 지낼 제수품들을 요청한다.

⑦ 발선 전 搜檢을 받고 전어관과 작별인사한다.

(4) 表現 形式上的 特徵

〈표민대화〉에 있어서 표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상하권을 통틀어 처음부터 끝까지 문답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상권의 첫 부분이다.

호노죽목지를 나뭇는杉木에서松木이든듯호읍시¹⁷⁵⁾

櫓는 기시나무로 하되 노죽은 삼나무나 소나무 중 어느 것으로 하여도 괜찮고, 두 개는 노죽을 새로 만들어 주며 나머지 네 개는 새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다.

2. 文獻說話類

표해류 작품의 원류는 記事類 작품들이다. 그러나 표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文獻說話 작품들도 표해류 작품으로서도 귀중한 작품들이라 생각한다. 문헌설화류 작품으로는 먼저 《三國遺事》 소재 〈延鳥郎 細鳥女〉·〈敏藏寺〉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 《於于野譚》 소재 〈權可述者恭僖大王朝武士也〉·〈萬曆甲寅東海漁人二十人〉·〈李芝峰晬光爲安邊府使〉 등이 고찰될 것이다.

〔1〕 三國遺事 所載

(1) 延鳥郎 細鳥女

〈延鳥郎 細鳥女〉 설화는 《三國遺事》뿐만 아니라 《新羅殊異傳》¹⁷⁶⁾이나 《筆苑雜記》¹⁷⁷⁾에도 각기 전해지고 있다. 新羅의 延鳥郎과 細鳥女가 일본에 표착하여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고, 이에 日官은 日月의 정기가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75) 朴元良, 《漂民對話》下, pp.27~28.

176) “東海濱有人 夫曰迎鳥 妻曰細鳥 一日迎鳥採藻海濱 忽漂至日本國小島爲主 細鳥尋其夫 又漂至其國 立爲妃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考奏曰 迎鳥細鳥 日月之精 今去日本 故有斯怪 天遣使求二人 迎鳥曰 我到此天也 乃以細鳥所織綃 付送使者曰 以此祭天可矣 遂名祭天所曰迎日 仍置縣 是新羅阿達羅四年也”(《新羅殊異傳》迎鳥細鳥條)

177) 徐居正, 《筆苑雜記》卷之二(《국역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1985, p.321.) 이는 《新羅殊異傳》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鳥郎細鳥女夫婦而居 一日延鳥歸海採藻 忽有一巖(一云一魚) 負歸日本 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 乃立爲王細鳥怪夫不來 歸尋之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國人驚訝 奏獻於王 夫婦相會 立爲貴妃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鳥曰 我到此國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朕之妃有所織細綃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綃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綃於御庫爲國寶 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又都祈野¹⁷⁸⁾

阿達羅王 4년(157)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漂流石 때문이었다. 표류석인 바위가 행위주체와 파송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¹⁷⁹⁾ 신성한 존재인 표류석의 힘에 의해 일본에 표착한 그들은 외래 異人으로서 쉽사리 신격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일본 Hitachi지방의 Noto神祀에는 Ohonamochi와 Sukunahikona의 두 祀神이 있는데, 이 두 신이 곧 神祀 主殿 속의 漂着岩石인 것이다.¹⁸⁰⁾ 꼭 연오랑과 세오녀의 표류석이 Hitachi의 漂着石이 아니라 해도 양국 간에 표류석과 표착석의 일반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듯이 보여지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¹⁸¹⁾

이러한 사실은 일본측 문헌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¹⁸²⁾ 이를테면 《日本書紀》卷第六 垂仁條에¹⁸³⁾ 보면 ‘新羅王子天日槍來歸焉’이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때 ‘天日’은 태양을 상징하는 말이다.¹⁸⁴⁾ 日月의 精氣인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에 가자 신라의 해와 달은 빛을 잃고 있다는 내용과 상통한다.

따라서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표류설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것은 결국 太陽神話의 이동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178) 《三國遺事》卷第一 紀異第二

179) 宋孝燮, 《三國遺事說話와 記號學》, 一潮閣, 1990, p.56.

180)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85, p.237.

181) 위의 책.

182) 이와 관련되는 일본측 문헌들로는 《日本書紀》卷第六 垂仁條를 비롯해서 《古事記》의 應神記條와 《風土記》의 番磨風土記條 등에서도 나타난다.

183) 《完譯日本書紀》, 田溶新 譯, 一志社, 1990, p.108.

184) ①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p.166~171.

② ———, 《韓國文學史》, 同和文化社 1986, p.57.

(2) 敏藏寺

〈敏藏寺〉도 《삼국유사》에 전해지는데 어머니가 표류한 아들을 위해 佛前에 기도하여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다. 그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禹金里貧女寶開 有子名長春 從海賈而征 久無音耗 其母就敏藏寺 觀音前克
祈七日 而長春忽至 問其由緒 曰 海中風飄舶壞 同侶皆不免 予乘隻板歸泊吳
涯 吳人收之 俾耕于野 有異僧如鄉里來 弔慰勤勤 率我同行 前有深渠 僧掖我
跳之 昏昏間如聞鄉音與哭泣之聲 見之乃已屆此矣 日哺時離吳 至此纔戌初 卽
天寶四年乙酉四月八日也 景德王聞之 施田於寺 又納財幣焉¹⁸⁵⁾

長春의 동료들은 바다를 오가며 장사를 하던 중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일어 배가 깨지므로 모두 죽었으나 혼자 한 조각 목판을 타고 표류하여 吳 나라 바닷가에 표착하였다. 이에 어머니 寶開가 아들의 소식이 없자 敏藏寺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이레 동안 기도했더니 돌아오는데, 이야기의 초점을 발원과 호응의 후반부에 둔다면 발원과 호응에 의한 불력의 실현을 이야기의 핵심구조로 하고 있는 셈이 된다.¹⁸⁶⁾ 즉 장춘의 神秘體驗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 나라와 우리 나라를 설정하고 거기에 표류라는 극한상황을 부여하여 大洋을 深渠로, 그리고 바다를 넘는 시간도 극히 축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⁷⁾ 결국 관음의 感應을 표현하여 佛體의 영험을 나타내 보인 설화로 강한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자신 없고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 생활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는 몸부림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⁸⁾ 바로 그것은 장춘이 가난한 여인인 보개의 아들이었으며, 가난하였기에 장사치들을 따라 바다를 오고 갔고, 그로 인해 표류하여 오 나라 사람의 들발을 갈아야 했다는 전반부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설화의 핵

185) 《三國遺事》卷第三 塔像第四

186) 宋孝燮, 앞의 책, p.108.

187) 金錫夏, 《韓國文學의 樂園思想 研究》, 日新社, 1973, p.51.

188) 金鉉龍, 《韓國古說話論》, 새문社, 1984, p.99.

심적 의미는 표류하였다가 어머니 곁으로 무사히 귀환하는 데 있으며, 발원과 감응은 아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민장사〉 설화를 표류설화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於于野譚 所載

(1) 權可述者恭僖大王朝武士也

〈權可述者恭僖大王朝武士也〉는 柳夢寅의 《於于野譚》 卷之一 人倫篇 奴婢條에 수록되어 있다. 유몽인은 文은 좋아했으나 學은 모른다고 평가받고 있는데,¹⁸⁹⁾ 그러면서도 그의 문장은 우아하고도 여유가 있다고 하였다.¹⁹⁰⁾ 그가 〈권가술자공희대왕조무사야〉와 같은 잡록을 《어우야담》 속에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학보다는 문을 좋아하는 稗官의¹⁹¹⁾ 자세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권가술자공희대왕조무사야〉의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權可述者共僖大王朝武士也 嘗渡海遇風 船擊石而破 百餘人盡流屍 而可述與其奴水石 共攀一破板而乘焉 板狹不可容二人 乍沈乍浮 風勢復急 水石謂可述曰板狹不可容二人 而勢急將不免兩死 小人何惜 願大人好保好保小人從此辭矣 遂投水而死 可述獨乘其板 泛泛呼號 被行舟所救得活 告于官 旌其門復其妻子爲良民 後可述官至濟州牧使¹⁹²⁾

이 이야기는 내용상 크게 ‘출발-표류-귀환-후기’의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표해류 작품의 일반적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이를 4단계 구조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出發: 權可述은 共僖大王 때의 무사였는데 일찍이 바다를 건너가게 된다.

② 漂流: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져 백여 명은 다 죽고 可述은 노비 水石과

189) “夢寅好文 而不知學”(〈宣祖實錄〉 宣祖 26년 癸巳條)

190) “夢寅文雅有餘”(〈宣祖實錄〉 宣祖 31년 2월조)

191) “小說家者類 皆出於稗官 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也”(班固, 《漢書藝文志》)

192) 柳夢寅, 《於于野譚》 卷之一, 萬宗齋, 1964, p.38.

함께 판자를 붙들고 표류하다 판자가 작아 두 명이 잡기에 부족하자 노비 수석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다.

③ 歸還 : 가솔이 그 판자를 잡고 표류하다가 지나가는 배에 구조되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관청에 알려 정려문을 세워 주고 처자를 양인으로 복전시켜 준다.

④ 後記 : 후에 가솔은 관직이 제주목사에 이르른다.

현실성이 있는 표류 이야기로 共僖大王 中宗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忠僕인 수석의 행위에 권가솔이 報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¹⁹³⁾

(2) 萬曆甲寅東海漁人二十人

〈萬曆甲寅東海漁人二十人〉은 《於野潭》卷之三 學藝篇 技藝條에 수록되어 있다. 그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萬曆甲寅東海人二十人 同舟入洋中絕遠處 釣巨口魚 值颶風舟覆海中極海無底嶼可薄 二十人皆泗泛泛如鷗鳬 隨風來往激遶波上 或搏或休 肢體不頓 飢則拏攫小鮮而食 足以充腸 但晝夜在波上 皆爲睡所迷 淪于水底驚覺遽波而上升 比至六七日 死者十四 獨六人得活 忽遇釣船攀而登 甚哉睡之迷人也 避倭入山 見倭鼻睡如雷¹⁹⁴⁾

전체적인 내용은 ‘출범-표류-귀환-후기’의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출범’의 내용은 출발일시·일행·발선동기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표류’는 표류원인·표류과정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귀환’은 구조된 내용이며, ‘후기’는 잠이 사람을 미혹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다시 4단계 구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出帆 : 萬曆甲寅년에 동해의 어부 이십 명이 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

② 漂流 :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이십 명은 바다에서 표류한다. 배가 고프면 작은 생선을 잡아먹으면서 깜박 잠이 들면 물 밑으로 가라앉고

193) 徐大錫 編著, 《朝鮮朝文獻說話輯要(Ⅰ)》, 集文堂, 1991, p.55.

194) 柳夢寅, 《於野潭》卷之三, 萬宗齋, 1964, p.67.

잠이 깨면 급히 떠오르곤 하면서 표류한 지 67일 만에 14명이 죽는다.

③ 歸還: 6명이 살아서 어선에 의해 구조된다.

④ 後記: 잠이 사람을 혼미하게 함이 심하다.

전체적으로 표류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萬曆甲寅年인 光海君 6년(1614)이라는 시간 설정에도 불구하고 표류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작품 말미에 ‘避倭入山 見倭鼻睡如雷’라 하여 전체적인 내용에서 반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몽인은 壬辰倭亂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御史로 民政을 살필 수 있었고, 바로 이때 《어우야담》의 자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⁵⁾

(3) 李芝峰晬光爲安邊府使

〈李芝峰晬光爲安邊府使〉는 《於于野譚》 卷之五 萬物篇 人類條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역본인 《於于野談》에도 수록되었다.¹⁹⁶⁾ 그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李芝峰晬光爲安邊府使 其地有一氓漂海而還者曰嘗與三人同小舟漁于海遇戕風直西行 七日七夜不暫息 忽至一處 依岸艤舟而眠 聞有浪聲洶湧漸邇 擡目見巨人腰下水 腰上露於水者 長可三十仞 其頭面肢體極雄無可比 漁子刺船欲

195) 李京雨, “「於于野譚」研究”, 《國文學研究》第33輯, 서울大學校 國文學研究會, 1976, p.96.

196) 니지봉슈광이 안변부수하여실세에 그자빅성이바다히 표풍하엿다가 도라온재이서줄오디 일즉세사람으로더브러 자근비톨토고 바다히고기잡다가 큰브람을 만나 셔호로칠일칠야를힘하야 잠간도쉬디못하고 혼고디니르러 언덕의비톨다히고자더니 물결소리흥용하야 점점갓가와오거늘 눈을드러보니 큰사람이허리아래눈물의들고 허리우흔드러나니 그길이스므남은길이나되고 그머리와눈과몸이 극히웅장하야 비홀디업논디라 세사람이비톨저어 피하려하더니 임의비전을잡아 업티고져하니 창황이큰도치물드러 그물을 썩으니 큰사람이브리고 피호로올나가거늘 세사람이비톨인하야가며 도라보니 피우희섯논양이놓하하늘을썰틸듯하고 크기산악갓흔디라 므일죽드르니 동국통감의하여신디 겨집이죽어흔재이시니 그몸이칠척이라하니 대개 희외에 거인국이잇는가지브니 방풍시장격고녀의 주손인더(柳夢寅 《於于野談》上·下(舊皇室內殿秘藏本), p.21.)

避 已被攀絃欲覆之 蒼黃舉斧斫其臂 巨人棄而上山 三人引舟而去 巨人立山上
 魁梧觸天如山岳 不知何許地人也 三人復遇西風 泊我海南康津之壤歸焉 嘗聞
 東國通鑑 有一女死而浮海 其陰七尺 盖海外有巨人國 其防風氏長狄僑如之遺
 裔也歟¹⁹⁷⁾

내용상 크게 ‘허두-표류-후기’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虛頭 : 지봉 이수광은 안변부사였는데, 안변에 표류해 온 어부들로부터 다음의 이야기를 듣는다.

② 漂流 : 이들 어부는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이레 만에 육지에 닿았는데, 키가 크고 몸이 웅대한 한 거인이 나타나 배에 덤벼드니 어부들이 도끼로 거인을 공격하고 달아난다.

③ 後記 : 음부가 7척이나 되는 여자의 시체가 발견된 일이 《東國通鑑》에 전하는데, 해외에는 거인국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①은 현실 가능한 이야기이나 ②와 ③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전개과정이 漁夫-李睟光-柳夢寅으로 이어지면서 설화적 요소들이 가미되었을 것이며, 특히 유몽인의 문학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사실 이수광의 《芝峰類說》에는 이와 비슷한 글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有海邊人 以漁爲業 遇風七八日漂至一島 島上有樓閣 隱映如宮闕狀 泊舟登岸 從門隙窺之庭 除瑩淨如鋪白玉 有紅花淘開 不識其名 閣中空靜無人 乃入見軒宇甚鮮 楚軒前有綠池 池傍有榻 榻邊有碁局玉子 其下有青草履一雙 其大盈尺 水氣猶濕 其人懼而還舟 遂回抵我境 許學官澂 親聞其語 如此云¹⁹⁸⁾

이 글에 따르면 이야기의 전개과정은 漁夫-許澂-李睟光-柳夢寅으로 더욱 복잡해지며 이야기의 변이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지봉수광위안변부사>를 《지봉유설》의 글에 비교할 때 비슷한 이야기이면서도 많은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유몽인이 견문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여과를 한 뒤에 기술한 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수광의

197) 柳夢寅, 《於于野譚》卷之五, 萬宗齋, 1964, p.5.

198) 李睟光, 《芝峰類說》卷18, 外道部 仙道條

글은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데 반해 <이지봉수광위안변부사>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3. 創作類

창작류 작품으로는 《靑丘野談》의 <赴南省張生漂大洋>과 <識丹邱劉郎漂海>가 있는데, 전자는 원래의 년픽선인 張漢喆의 <漂海錄>에 상당한 허구적 요소가 가미되어 새롭게 창작되고 있으며, 후자는 완전한 창작 작품으로 소설적 성격들이 강한 작품들이다.

〔1〕赴南省張生漂大洋

<赴南省張生漂大洋>은 張漢喆의 <漂海錄>이 실화화된 것으로 《靑丘野談》卷六에 수록되어 있다.¹⁹⁹⁾ 일기체의 형식을 버리고 이야기체로 꾸몄으며, 1인칭 대신에 장한철을 주인공으로 한 3인칭 서술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산만한 느낌을 주는 대목들은 많이 삭제하였으나, 원작의 문장표현까지도 살리면서 소설체로 바꾸었다.²⁰⁰⁾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¹⁾

① 제주 사람인 張漢喆이 禮曹에 會試를 보러 상경하려고 친구인 金生, 상인 등 이십여 명과 함께 배를 탄다.

② 배가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한 섬에 닿는다.

③ 왜인이 탄 배가 지나가기에 구조를 요청했더니, 구조해 주기는 커녕 옷가지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약탈하여 가버린다.

199) 《靑丘野談》卷六(栖碧外史 海外蒐佚本)(李佑成·林煥澤 編著, 《李朝漢文短篇集》(上), 一潮閣, 1984, pp.456~461.)

200) 李佑成·林煥澤 編著, 위의 책, p.340.

201) 徐大錫 編著, 앞의 책, pp.403~404. 그러나 이 책에서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른데 '⑧벼랑을 오르다가 두 사람이 떨어져 죽고 여덟 사람이 인가를 찾아가서 배를 빌려 탐라로 향하다. ⑨11월에 제주를 떠나 다음해 오월에 돌아왔는데 살아온 사람은 겨우 일곱 사람이었다.'로 되어 있어 이야기의 논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漂海錄>과도 내용상 큰 차이가 난다.

④ 일본을 거쳐 明 나라로 간다는 중국 배에 의해 장한철의 일행이 구조되는데, 그 배에는 安南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다.

⑤ 배가 耽羅를 지날 때 사람들이 고향을 바라보며 통곡함으로써 그들이 탐라 사람임이 드러난다.

⑥ 옛날에 탐라 사람들이 안남의 태자를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남 사람들이 장한철 일행을 작은 배에다 실어 바다에 내보낸다.

⑦ 지난 번 풍랑을 만난 지점에서 다시 풍랑을 만나 한 바위섬에 표류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열 사람이다.

⑧ 벼랑을 오르다가 두 사람이 떨어져 죽고 여덟 사람이 살아나는데, 장생은 그 섬에서 趙氏女와 관계를 맺는다.

⑨ 그 후 서울에 상경하여 과거를 보았으나 먹물을 마시고 귀향한다.

⑩ 張生은 후에 등과하여 高城郡守를 지낸다.

이 작품에는 친구 김생 및 뱃사공 등 24인이 한 배에 동승했다고 했으나²⁰²⁾ 실제로는 29인이 일행이었으며, 작품 말미의 張生은 후에 등과하여 高城郡守를 지냈다고 했으나²⁰³⁾ 원래 <漂海錄>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는 실화로 정착하면서 변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異本이라고 할 수 있는 《東野彙集》 卷七 소재 <漂萬里十人全還>²⁰⁴⁾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씨녀를 소실로 삼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²⁰⁵⁾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⁶⁾

① 張漢哲은 제주 사람으로 會試를 보기 위하여 친구인 金生, 상인 등 24명과 함께 배를 탄다.

② 풍랑을 만나 한 섬에 도착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南海佛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물을 빼앗아간다.

202) “濟州人張漢喆 以鄉貢 赴禮部會闈 與友人金生及舟子二十四人登船”(李佑成·林燮澤 編著, 앞의 책, p.456.)

203) “伊後幾年 張生登科 至高城郡守云云”(위의 책, p.461.)

204) 東國大學校附設韓國文學研究所 編, 《韓國文獻說話全集》 4, 太學社(影印), 1991, pp.398~414.

205) “而歸望妻趙女作妾 後幾年等科官至高城郡守”(《東野彙輯》 卷七)

206) 徐大錫 編著, 앞의 책, p.634.

③ 배를 수선하여 타고 가다가 安南에 이주해 살던 중국인 林遵에게 구조되어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게 된다.

④ 다시 풍랑을 만나 14명이 살아 해안에 도착하였는데 그 섬은 薪智島嶼에 소속된 곳으로 본국에서 백 리, 제주도에서 칠백 리 떨어진 곳이다.

⑤ 어느 노파가 별도로 초청하였는데 한 소복한 미녀가 상을 내오니 전에 꿈 속에서 본 여자와 비슷하다.

⑥ 주인집 종인 梅月을 통해서 미녀와 만나 雲雨의 情을 나눈다.

⑦ 다음날 배를 타고 와서 康津에 도착한 후 서울로 가서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한다.

⑧ 전에 만난 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껌으로 삼은 후 몇 년 만에 등과하여 高城郡守가 된다.

주인공인 張漢喆도 張漢哲로 변이되고 있으며, ③에서는 배를 수선하여 타고 가다가 중국인 林遵의 배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표착했던 섬에서 장한철 일행이 구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장한철의 <표해록>이 講談師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2〕 識丹邱劉郎漂海

<識丹邱劉郎漂海>는 《靑丘野談》卷三에 수록되어 있다.²⁰⁷⁾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⁸⁾

① 高城郡에 사는 劉同知는 동네사람 24명과 함께 배를 타고 한 섬에 미역을 따러 가다가 서북풍을 만나 여러 날 표류하여 한 곳에 표착하는데 세 명만 살아남는다.

② 세 사람이 沙場에 누워 있는데 두 동자가 나타나서 선생의 명이라며 羽觴을 주니, 세 사람이 이를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다.

③ 세 사람이 동자를 따라가서 老翁을 만나는데 노翁은 그 섬이 동해의 丹

207) 東國大學校附設韓國文學研究所 編, 《韓國文獻說話全集》2, 太學社(影印), 1991, p.207~213.

208) 徐大錫 編著, 앞의 책, p.488.

邱로서 그곳에서는 물만 마시고 풀로 옷을 입는다고 한다.

④ 세 사람이 노옹을 줄라 삼만여 리 떨어진, 해돋는 곳을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배에 올라 동자가 준 瓊液을 세 번 마시자 배가 이미 언덕에 닿아 日出을 보게 된다.

⑤ 세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자 노인은 섬의 하루가 인간의 일년이니 표류한 지 50년이 지났다고 돌아가도 생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⑥ 그래도 돌아가기를 간청하니 노인은 배를 태워 보내면서 지남철을 주어 갈 방향을 알려 주며, 劉는 배 속에서 경액 세 병을 훔친다.

⑦ 세 사람이 동자의 도움으로 고성에 되돌아와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낮이 설었고 부모와 처자식이 죽은 지 오래되어 손자가 집주인으로 있다.

⑧ 劉는 훔친 경액을 하루 한 번 먹어 200년 동안 병이 없이 지냈는데 고성 원이나 인근 수령 등이 부르면 가서 표류한 이야기를 한다.

내용상 크게 '출범-표류-귀환-후기'의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①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劉同知 일행이 표착한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닌 일종의 이상세계였다. 그러기에 이 작품 속에서는 현실세계-이상세계-현실세계의 공간적 이동을 보여 주는데, 결국 이원적 공간구조이다. 이에 따라 시간구조도 이원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상세계의 하루가 현실세계의 일년이기 때문에²⁰⁹⁾ 그들은 귀환했지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과거 속의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劉郎漂海到丹邱〉라는 제목으로 《東野彙輯》卷七 雜識部에 수록되어 있는데²¹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¹¹⁾

① 僉知 劉某는 高城사람으로 어부인데 젊었을 때 바다에서 풍랑에 표류하여 큰 고기 배 속에 삼킨 바 되었다가 빠져나온다.

209) “此中一日 卽人間一歲也”(東國大學校附設韓國文學研究所 編, 《韓國文獻說話全集》2, 太學社(影印), 1991, p.211.)

210) 東國大學校附設韓國文學研究所 編, 《韓國文獻說話全集》4, 太學社(影印), 1991, p.432~439.

211) ① 徐大錫 編著, 앞의 책, pp.636~637.

② 李康沃, “朝鮮後期野譚集 研究: 敘事體의 장르規定과 敘述視角類型設定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大學院 國文學研究會, 1982, pp.94~95.

(半張缺)

② 혼절했다가 깨어난 후 노인을 만나 그곳이 어딘가 물으니 그곳은 丹邱라 한다.

③ 3명이 며칠 머물면서 보니 아침 해가 바다에서 뜨는데 그 광채가 각별하므로 노인에게 해 뜨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한다.

④ 두 동자의 인도로 그곳으로 가던 중 바닷물로 요기하는데 맛이 신비하여 물어보니 瓊醬玉醴라 한다.

⑤ 목적지에 도달하여 보니 파도 속에 銀山이 만 길이나 솟아 있는 바 거기서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두 동자가 태양의 크기에 대해 논쟁하니 3명이 그것은 孔子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한다.

⑥ 3명이 노인에게 간청하여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데 劉가 몰래 瓊醬을 훔쳐 가지고 나온다.

⑦ 고향에 돌아오니 부모와 처자가 모두 죽고 3명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다.

⑧ 劉가 瓊醬을 먹어 200년을 넘게 살았는데 高城에 군수가 부임하면 반드시 劉를 불러 표류한 이야기를 듣는다.

①의 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모티브는 <識丹邱劉郎漂海>에는 없는 이야기이다. 표류사실에 의탁해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는 셈인데, 바로 이러한 점은 記事類 작품들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하는 데 반해 說話類 작품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현실적 요소를 가미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歌辭類

歌辭類 작품으로는 李邦翼의 <漂海歌>가 있는데, 《青春》·《歌集》·《樂府》·《雅樂部歌集》에 수록되었다. <書李邦翼事> 등이 제삼자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반해 이 작품은 이방익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표해가사류 작품은 아니나 趙熙百의 <도희가>는 바다를 건넌다는 일이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노래하고 있어 이방익의 <표해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다.

[1] 李邦翼의 漂海歌

李邦翼의 〈漂海歌〉는 標題下에 ‘李邦翼 正祖時人’이라 적혀 있고 가사 내용 또한 자기의 중국 표류기를 적은 노래이니 이방익이 작자인 듯하다.²¹²⁾ 우리 말로는 ‘표히가’라고 하였고, 302행의 長篇歌辭이다.

이방익은 武科出身으로 처음에 忠壯將職을 띠고 受由를 얻어 勤親 중 병진 9월 念日에 秋景을 사랑하여 船人 7인과 동승 船遊하다가 일진광풍을 만나 만경창파에 표류하기 시작하여 위험과 기갈을 이기지 못하던 중 10월 4일 福建省 澎湖府에 표착하여 馬宮大人의 후대를 받는다. 다시 臺灣府에 이송되어 위로 받은 후 정사 정월 4일에 厦門府에 들어가 紫陽書院을 둘러보고, 念7일에 복건을 發行, 鳳城縣에 들어 漢昭烈의 유적을 구경한다. 이어 法海寺 등을 구경하고 夏 4월에 水軍府에 들어 行상광경도 보고, 益州府에 들어 寒山寺·金山寺를 차례로 본 뒤에 5월에 江南을 떠나 山東省·瀋陽·義州府로 귀국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그 대강의 노정을 단락별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構造的段階	行 數	內 容 主 題
序 詞	1- 49행	丙辰 9월 念日 秋景을 사랑하여 船遊하다가 표류 10월 초4일 福建省 澎湖府 표착
本 詞	50-119	馬宮大人의 후대받음
	120-142	臺灣府에 移送되어 위로받음
	143-149	丁巳 정월 초4일 厦門府에 들어가 紫陽書院을 瞻拜
	150-171	念7일 福建을 發行 鳳城縣에 들어 漢昭烈의 유적과 法海寺 구경
	172-216	夏 4월 水軍府에서 行상 구경 益州府에서 嚴子陵의 七里灘, 荊州를 거쳐 鄂州의 岳陽樓, 巫山 구경

212) ① 朴晟義, “「樂府」研究”, 《高麗大學校六十周年紀念論文集》人文科學篇, 高麗大學校 1965, p.26.

② 姜銓燮, 앞의 글.

③ 崔康賢, “漂海歌의 지은이를 살핌”, 《語文論叢》第23輯, 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研究會, 1981.

構造的 段階	內 容 主 題
217-234	19일 九江에 올라 蘇州府에 들어 寒山寺·金山寺 구경
235-245	江南을 떠나 山東省에 들어 夷狄의 풍속을 봄
246-268	초3일 燕京을 보고 山海館과 萬里長城을 구경. 瀋陽에 도착
269-292	윤6월 초4일 義州府·臨津江을 거쳐 畿營 도착
結 詞	293-302 기이한 운수가 轉禍爲福

1행부터 49행까지는 秋景을 사랑하여 船遊하다가 福建省 澎湖府에 표착하는 내용의 序詞이고, 50행으로부터 292행까지는 평호부에서부터 畿營까지의 노정으로 된 本詞이며, 나머지 293행부터 302행까지는 귀환 후 기이한 운수가 轉禍爲福이 되었음을 노래한 結詞 부분이다.²¹³⁾

내용의 전개에 따른 노정을 보면 濟州-福建省 澎湖府-臺灣府-廈門府-紫陽書院-福建省-鳳城縣-法海寺-水軍府-益州府-嚴子陵의 七里灘-荊州-鄂州 岳陽樓-巫山-九江-蘇州府-寒山寺-金山寺-江南-山東省-燕京-山海館-萬里長城-瀋陽-義州府-臨津江-畿營 등으로 나타나는데 〈書李邦翼事〉의 노정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青春》의 것은 활자본으로 1행이 4구인데 2구마다 띄어쓰기하고 있으며 한 페이지에 17행씩 2단 배열하여 모두 34행으로 되어 있다.²¹⁴⁾ 《歌集》의 것은 필사본인데 띄어쓰기 없이 매 페이지당 10줄씩 세로쓰기하고 있으며²¹⁵⁾, 《樂府》의 것도 필사본으로 띄어쓰기 없이 매 페이지당 16줄씩 세로쓰기하고 있고, 2음보마다 쉼표를 찍고 있다²¹⁶⁾ 또한 《雅樂部歌集》의 것

213) 姜銓燮 교수는 이방익의 〈표해가〉를 233행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134행부터 201행까지를 빼어 버리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李相寶 교수가 적어 보낸 준 자료에 의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가 직접 《청춘》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데서 온 현상인 것 같다. 이 134행으로부터 201행까지는 《青春》의 pp.148~149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러면서 1행부터 49행까지를 起聯, 50행부터 268행까지를 承聯, 269행부터 292행까지를 轉聯, 293행부터 302행까지를 結聯으로 분석하고 있다. (姜銓燮, 앞의 글)

214) 《青春》 第1號, 新文館, 1914, pp.144~152.

215) 金東旭·林基中 共編, 《校合 歌集》二, 太學社(影印), 1982, pp.298~321.

216) 金東旭·林基中 共編, 《校合 樂府》上, 太學社(影印), 1982, pp.224~232.

도 필사본이며 매 페이지당 12줄씩 띄어쓰기 없이 세로로 기록되어 있다.²¹⁷⁾ 이 중 《청춘》과 《악부》의 것이 표기가 거의 비슷하고 《가집》과 《아악부가집》의 것이 또한 표기가 비슷하다. 이들 작품의 앞 부분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행 (靑) 耽羅居人 李邦翼은 世代로 武科로서
 (歌) 耽羅居人 李邦翼은 世代로 武科로서
 (樂) 耽羅居人 李邦翼은 世代로 武科로서
 (雅) 耽羅居人 李邦翼은 世代로 武科로서
- 2행 (靑) 이몸에 이르러서 武科出身 또하였다
 (歌) 이몸에 이르러서 武科出身 또하였다
 (樂) 이몸에 이르러서 武科出身 또하였네(다)
 (雅) 이몸에 이르러서 武科出身 또하였다
- 4행 (靑) 受由어더 觀親하니 丙辰九月 念日이라
 (歌) 受田어더 觀親하니 丙辰九月 念日이라
 (樂) 受由어더 觀親하니 丙辰九月 念日이라
 (雅) 受田어더 觀親하니 丙辰九月 念日이라
- 7행 (靑) 李有甫等 일곱船人 차례로 조창고나
 (歌) 李有甫等 일곱船人 차례로 조창고나
 (樂) 李有甫等 일곱船人 차례로 조창고나
 (雅) 李有甫等 이곱船人 차례로 조창고나
- 9행 (靑) 遠山에 빗긴달이 물가운데 빗쳐엿다
 (歌) 遠山에 빗긴달이 물가운데 빗쳐엿다
 (樂) 遠山에 빗긴달이 물가운데 빗쳐엿다
 (雅) 遠山에 빗긴달이 물가운데 빗쳐엿다
- 11행 (靑) 靑紅錦緞 千萬匹을 匹匹이 헛셔린듯
 (歌) 靑紅錦緞 千萬匹을 匹匹히 헛셔린듯
 (樂) 靑紅錦緞 千萬匹을 匹匹이 헛셔린듯
 (雅) 靑紅錦緞 千萬匹을 匹匹이 헛셔린듯
- 12행 (靑) 陶然히 醉한後에 船版치며 즐기더니

217) 金東旭·林基中 共編, 《校合 雅樂部歌集》, 太學社(影印), 1982, pp.87~102.

(歌) 陶然이 醉한後에 船板치며 즐기드니
 (樂) 陶然히 醉한後에 船板치며 즐기드니
 (雅) 陶然이 醉한後에 船板치며 즐기드니

15행 (青) 船中人이 慌忙하야 措手할길 잇슬소냐
 (歌) 船中人이 慌忙하야 措手할길 잇슬소냐
 (樂) 船中人이 慌忙하야 措手할길 잇슬소냐
 (雅) 船中人이 慌忙하야 措手할길 잇슬소냐

1행과 2행에서는 '서'와 '셔', 4행에서는 '受由'와 '受田', 7행에서는 '일곱
 船人'과 '이곱船人', 9행에서는 '빗긴날이'와 '빗긴달이' 및 '물가운데'와 '물
 가운데' 10행에서는 '匹匹이'와 '匹匹히', 11행에서는 '즐기드니'와 '즐기드
 니', 12행에서는 '陶然히'와 '陶然이', 15행에서는 '慌忙하야 措手할길 잇슬소
 냐'와 '慌忙하야 措手할길 잇슬소냐' 등으로 각각 차이가 난다.

표류기간 중의 전 노정을 그 내용으로 하다 보니 감정을 최대한으로 절제하
 면서 빠른 속도감으로 체험의 상황들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바다에서
 의 표류상황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노력을 뚜렷이 보여 준다.

西北間一陣狂風	忽然이이러나니
泰山갓흔늪흔물결	하늘에다찾고나
舟中人이慌忙하야	措手할길잇슬소냐
나는새아니어니	엇지살기바라리오
밤은漸漸깊허가고	風浪은더욱심타
萬頃蒼波一葉船이	가이업시쳐나가니
슬프다무삼罪로	하직업슨離別인고
一生一死는	自古로例事로대
魚腹속에永葬함은	이아니冤痛한가
父母妻子우는舉動	생각하면목이멘다
죽기는自分하나	飢渴은무삼일고
明天이感動하샤	大雨를나리시때
돛대안고우리러서	落水를먹음이니
渴한것은鎮定하나	입에서성에나네
밭고면낮이런가	어두으면밤이런가 ²¹⁸⁾

218) 《青春》第一號, 新文館, p.144.

秋景을 사랑하여 李有甫 등 일곱 船人과 船遊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여 장차 고기 배 속에 장사지낼 수밖에 없는 극한상황에서 부모처자를 생각하며 목이 메이고 있다. 더욱이 기갈을 풀기 위해서 돛대를 타고 흘러내리는 낙수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풀고 있으나 입에서는 성애가 날 정도로 추운 날씨다.

五六日지낸後에	遠遠히바라보니
東南間三大島가	隱隱히소사났다
日本인가짐작하야	船具를補緝하니
무삼일로바람형세	또다시변하는고
그섬을버서나니	다시못보리로다
大洋에飄盪하야	물결에浮沈하니
하날을부르즈저	죽기만바라더니
船板을치는소래	귀가에들니거늘
물결인가疑心하야	蒼黃이나가보니
자넬은검은고기	舟中에뛰어든다
生으로토막잘나	八人이논하먹고
頃刻에끈올목숨	힘입어保全하니
皇天의주신젠가	海神의도움인가
이고기아니러면	우리엇치살엇스리 ²¹⁹⁾

그러다가 5,6일이 지날 무렵 三大島를 발견하여 일본인가 생각하고 船具를 다시 수선하는데, 또 다시 두 번째의 폭풍우를 만나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늘에 목숨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배 위로 한 자가 넘는 큰 고기가 뛰어들어 창황 중에도 여덟 사람이 생으로 나누어 먹고 힘을 다시 얻고 있다. 그리고 그 도움을 皇天 내지는 海神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데, 표류라는 극한상황에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생생한 감동적 표현이다.

219) 위의 책, pp.144~145.

〔2〕趙熙百의 도화가

〈도화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關東張遊歌〉에 함께 실려 있는데 120행의 순한글 필사본 가사로 띄어쓰기 없이 세로로 2단 배열하고 있으며, ‘도화가’라는 標題下에 ‘쉼산장(睡山丈)이 함열(咸悅) 고을 갈 지 노둑(路中)의 서 지은 글인디 곳곳지 경치가 도쿄의 벗기다’ 라고 적혀 있고, 말미에는 ‘을히(乙亥) 스월 입스일(四月 廿四日) 발선(發船) 하여 오월 초팔일(五月初八日) 환관(還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등을 종합할 때 그 작자는 睡山 趙熙百이다.²²⁰⁾

趙熙百은 字가 舜起이고 號가 睡山이며 본관은 豐壤으로 刑曹參議와 同副承旨를 지낸 趙奎年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참판 尹鼎烈의 따님인 貞夫人 海平尹氏이며, 華農 趙熙一은 그의 아우이다. 31세 때인 哲宗 6년(1855)에 진사가 되고 이듬해엔 참봉이 되어 珍山郡守 등 여러 고을 원을 지냈다. 특히 高宗 11년(1874)에는 咸悅縣監이 되어 이듬해에는 한문 기행일기인 〈乙亥漕行錄〉과 한글 가사인 〈도화가〉를 짓고 있다.²²¹⁾

조희백이 정월 그믐께에 咸羅太守로 도임하여 집무하던 중 稅穀 漕運을 위해 발선하여 雄浦·臨皮를 지나 西浦에 도착하여 止宿하고, 長岩嶺에 도착하여 곳은 비로 2일을 逗留한다. 계속해서 가래목을 지나 烏息島에서 닻을 내렸으나 바람이 불어 길을 잃었다가 古群山에 이르러 뱃길을 막는 魚箭을 헤치고 겨우 지나 馬梁嶺 근처의 烟島地境에 이르는데 바람 때문에 연일 지속한다. 沙格들에게 돈 석냥을 賞給하여 多撻只라 하는 돌섬과 臘作島를 지나 古代島에서 처음으로 下陸한다. 남풍을 따라 安興嶺·關將목을 지나다가 점차 서남풍이 심해지면서 밤중에 所斤과 方嶼를 지나고 民魚里를 지날 때에는 해가 뜬다. 唐津·沔川을 지나 水原·南陽을 지날 무렵 파도가 심해져 지속하게 되고, 細魚里에 住定하여 浦民들이 石花를 캐면서 救命하는데 열 손가락에서는 피가 나고 懸鵲百結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12漕船이 다 도착하

220)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1982, pp.233~234.

221) 崔康賢, 위의 책, p.234.

자 黃山으로 나아가 廣城津·龍鎮·濟物을 지나 江華島의 燕尾亭에 배를 대고 宴飲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그 대강의 노정을 단락별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構造的段階	行 數	內 容 主 題
序 詞	1- 2행	정월 그믐께 威羅太守에 도임
	3- 5	稅穀 漕運을 위해 택일 발선
本 詞	6-10	熊浦·臨皮를 지나 西浦에 도착하여 止宿
	11-20	長岩鎮에서 2일 逗留
	21-42	가래목·烏息島·古群山 근해를 지나 烟島地境에서 止宿
	43-60	多望只·關將목·所丘·方嶼·民魚里·唐津·沔川·水原을 지나 南陽 근해에서 止宿
	80-99	靈興島·곡갈섬·永宗鎮을 지나 宋島에 도착 細魚里에 住定
	100-112	黃山·孫丕목·廣成津·龍鎮·濟物·甲串津 등까지의 노정
結 詞	113-120	江華府 燕尾亭에서의 宴飲

1행부터 5행까지는正月 그믐께 威羅太守에 도임하여 稅穀 漕運을 위해 택일 발선하는 내용의 序詞이고, 6행부터 112행까지는 熊浦로부터 江華府 甲串鎮까지의 수로 노정으로 된 本詞이고, 마지막 113행부터 120행까지는 강화부 燕尾亭에서의 宴飲을 노래한 結詞 부분이다.

내용의 전개에 따른 노정을 보면 熊浦-臨皮-西浦-長岩鎮-가래목-烏息島-古群山-烟島-馬梁鎮-多望只-臘作島-古代島-安興鎮-關將목-所丘-方嶼-民魚里-唐津-沔川-水原-南陽-靈興島-곡갈섬-八山바다-永宗鎮-松島섬-細魚里-黃山-孫丕목-廣成津-龍鎮-濟物-甲串津-燕尾亭 등으로 나타난다.

邑樣이 凋殘하고 民情이 절박한 가운데 八邑에서는 稅穀으로 바쁜데, 특히 일행이 細魚里에 住定했을 당시의 浦民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좌우석판(左右瀉坂) 구버 보니

불상하다 포민 생이(浦民生涯)

석화 키여 구명(救命) 하니
 세상 구경(幸)여 불가
 나물 쫓치 푸엿고나

열 손가락 피가 나니
 절도 중(絶島中)의 산다 말가
 천순 박결(懸鵠百結) 불상(不祥)하다²²²⁾

굴조개를 캐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의 열 손가락에 피가 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다고 노래한다. 그러면서 뱃길의 어려움을 군데 군데 노래하고 있는데 다음은 烏息島에 이르렀을 무렵의 상황을 노래한 대목이다.

가리목이 험(險) 홀세다
 조심조심 지너여서
 의지(依支) 업는 비 밋히서
 흔들흔들 지향(指向) 업시
 왕령(王令) 소계 지중(至重) 하니
 닳 감는 비소리를
 흑야(黑夜四更) 바람 일어
 오초 동남(吳楚東南) 어터리나
 잘못 왔네 길을 일혀
 조화옹(造化翁)이 도앗는가
 연도(烟島) 섬이 묘연(杳然) 하다
 어전(魚筵) 그물 길을 막아
 만첩 산중(萬疊山中) 드러간 듯
 모든 수격(沙格) 정성(精誠) 드러
 간신간신 버셔나니

넘어가기 위티(危殆) 하다
 오식도(烏息島)의 닳슬 주니
 우리소리 무슴일고
 추풍 낙엽(秋風落葉) 물의 켜니
 순풍 도박(渡泊) 밋엇세라
 밤둥만의 도케 듯고
 비를 쏘여 가느구나
 일출(日出) 하니 동방(東方) 인가
 고군산(古群山)니 여기로다
 동남풍(東南風)이 년일(連日) 부네
 어부(漁父) 다려 길을 못세
 얼거지고 트러졌네
 히여날 슈 전혀 업네
 소리치며 노를 저어
 일낙서천(日落西天) 되어서라²²³⁾

가래목을 겨우 지나 烏息島에 닳을 내렸으나 새벽에 바람이 일어나 한때나마 배가 표류하여 古群山 근해에 다다르나 다시 魚筵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몹시 어려웠던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222) 《한국어문학의 이해》, 弘益大學校出版部, 1992, p.406.

223) 위의 책, p.404.

Ⅲ. 漂海類 作品의 綜合的 考察

1. 著作方法

〔1〕 著述過程

표해류 작품의 저술과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표류자 자신이 직접 쓰는 경우, 둘째는 제삼자가 표류자의 구술을 토대로 기록하는 경우, 셋째는 민간에 전승되던 이야기가 채록된 경우 등이다.

첫째의 표류자 자신이 직접 쓰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쓰는 경우와 임금이 撰進하도록 함으로써 타의적으로 쓰는 경우로 구분된다. 張漢喆은 虎山島에 표착했을 때 〈漂海日錄〉을 초해서 집 속에 함께 넣어두었는데 靑山島 근해에서 다시 조난을 당하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달아나고 젖어 뭉개져 버렸으나 뜻을 더듬어 올라가니 어느 정도 그 대강을 알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²⁴⁾ 그는 나중에 고향에 돌아온 뒤 그의 작가정신에 따라 스스로 그의 표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며, 자기를 아는 사람은 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작품 말미에서 말하고 있다.²²⁵⁾

崔斗燦의 경우도 중국에 표착하여 定海縣의 城市館에 머물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 동안 겪은 표류상황을 글로 적어 이름을 〈乘槎錄〉이라 붙이고 있다.²²⁶⁾ 따라서 계속해서 그에게 전개되는 노정에 따라 중국인들과 문답한 詩賦들까지도 그의 작품 속에 점차적으로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작품에 비해 많은 시부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그의 작가정신의 한 특

224) “在虎山時 草漂海日錄 歲于此棟出見之 殘缺壞漏 多不可攷 然而意致而臆溯則 可得其領略 亦幸是藁之不泯也”(〈漂海錄〉 辛卯年 正月 11월조)

225) “因記是說而藏之 以竣夫知我者得焉”(〈漂海錄〉, p.75.)

226) “在館留一日 無以自適 歷敘漂海之狀 名之曰乘槎錄 取張騫窮河源之義也 越中士大夫 日相經過 抄錄以去者 余以覆醬瓿 麾手止之辭 不獲則輪覽 甚可愧也”(〈乘槎錄〉 5월 2일조)

징이다. 이러한 필사본 형태의 원본에서 〈江海乘槎錄〉과 같은 이본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며, 1권에는 시부만을 싣고 2권은 일기를 기록하는 등 점차 編次의 錯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崔溥의 〈漂海錄〉은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成宗의 명을 받고 靑坡驛에서 수일 간 지내면서 기록한 것이다. 崔溥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서울 남대문 밖 청과역에 도달해서 머무르게 되자 성종은 6월 丙午에 그에게 日記撰進을 명하였다.²²⁷⁾ 그러나 방대한 내용을 단지 며칠 만에 기록한다는 것은 사전 기본자료가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아마 文士였던 그로서는 중국에 표착하고 나서 그날그날의 중요한 사실들을 비망록 형태로나마 간단히 摘記해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일기찬진은 아무리 君命이었다고 하더라도 喪을 당한 사람으로서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시비에 휩싸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의 제삼자에 의한 기록도 표류자들이 직접 기록을 남길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구술을 토대로 간접 기록하는 경우와 왕께 보고하기 위해 承政院·弘文館·禮曹 등지에서 기록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 점에서 文淳得의 〈漂海錄〉은 가장 복잡한 개작과정을 보여 준다. 처음에는 문순득의 구술을 토대로 黑山島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丁若銓에 의해 표류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가 세상을 떠난지 3년 후에 문순득의 말과 정약전의 所錄을 참조하여 다시 小黒山島에 유배 와 있던 柳菴이라는 사람에 의해 저술되고 있다.²²⁸⁾

이 외에 高商英의 〈漂流記〉는 譯學 李齊聃이 제주에 갔다가 고상영으로부터 직접 표류의 전말을 듣고 기록한 것이 鄭東愈의 《晝永編》에 전해지고 있으며,²²⁹⁾ 朴孫의 〈琉球風土記〉도 柳大容이 그 말을 채취하여 지은 것이 魚叔權의 《稗官雜記》에 전해지고 있다.²³⁰⁾ 또한 〈濟州漂人問答記〉는 金景善이 純祖

227) 〈成宗實錄〉 成宗 19년 6월 丙午條

228) 崔德源, “文淳得의 漂海錄 研究: 琉球 및 呂宋 漂流記”, 《論文集》第14輯, 木浦海洋專門大學, 1980, pp.2~3.

229) “英祖丁未 譯學李齊聃 在濟州 見州民高商英 是曾漂海生還者 祥聞漂海顛末作一記”(鄭東愈, 《晝永編》一)

230) “柳大容採其語 作琉球風土記”(《稗官雜記》四)

32년(1832) 冬至使 겸 謝恩使인 徐耕輔의 書狀官으로 중국에 갔다가 유구에 표류했던 제주 사람들을 만나 문답한 것이 그의 使行記錄인 《燕轅直指》중 〈留館錄〉에 수록되었으며, 金光顯 일행의 〈耽羅漂海錄〉도 朴思浩가 순조 28년(1828) 謝恩使 겸 冬至正使인 洪起燮의 幕裨로 燕京을 다녀와서 남긴 燕行記錄인 《心田稿》의 〈留館雜錄〉 속에 수록되었다.

이에 반해서 《朝鮮王朝實錄》 소재 표류기들은 왕께 보고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들이었다. 金非衣 일행의 〈표류기〉는 成宗이 弘文館에 표류의 전말을 써서 아뢰도록 한 것이 〈成宗實錄〉에 전해지고 있으며, 李暹 일행의 〈표류기〉는 당시 홍문관 直提學 金宗直이 이섬의 行錄에 따라 그의 말을 뽑아 글로 아뢰는 것이 역시 〈성종실록〉에 전해지고 있다. 또한 楊廻伊의 〈표류기〉는 禮曹에서 燕山君에게 보고한 글이 〈燕山君日記〉에 수록되었고, 金起孫 일행의 〈표류기〉는 承政院에서 中宗에게 보고한 글이 〈中宗實錄〉에 수록되어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正祖가 당시 沔川郡守로 부임하려는 燕巖에게 이방익의 표류 사실을 찬진하도록 한 것이 〈書李邦翼事〉라는 제목으로 《燕巖集》에 전해지고 있다. 이는 당시 僻派 출신인 연암이 정통 문체에서 벗어난 《熱河日記》의 문체로 인해 반대파인 時派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정조는 이로 인해 문체변개적 의미에서 이 글을 쓰도록 한 것이다.²³¹⁾

마지막으로 셋째의 설화류 작품들은 민간에 전승되던 이야기들이 채록되어 《於于野譚》·《靑丘野談》·《東野彙輯》·《溪西野譚》 등에 전해지고 있다.

〔2〕 傳承變異

한 작품에 여러 이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거나 읽혀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서 여러 표해류 작품들 가운데서도 崔溥·張漢喆·李邦翼·崔斗燦 등의 작품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본들을 갖고 있는 셈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崔溥와 張漢喆의 작품은 가장 많은 이본들을 갖고 있는 셈이다.

崔溥의 〈漂海錄〉은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문본 이외에도 국역본·일역

231) 金明昊,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 1990, p.284.

본·영역본 등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成宗實錄》·《稗官雜記》·《海東野言》·《談聞瑣錄》·《海東雜錄》 등에는 그 내용이 요약되어 전해진다.

《成宗實錄》에 전해지는 崔溥의 〈표류기〉는 성종이 宣政殿에서 崔溥를 引見하고 표류할 때의 일을 물은 것으로 牛頭外洋에 표착하여 관인 許淸을 만나고, 이어 桃渚所 千戶에게 심문을 당한 일 등 실제 《표해록》의 내용 중 전반부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²³²⁾ 《稗官雜記》二에도 台州에 표착하여 備倭指揮 등의 관원이 杭州로 보내고, 이어 燕京에 도착하여 禮部에서 임금에게 귀환 허락을 받고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었으며,²³³⁾ 《海東野言》二에는 浙江省 寧波府에 표착하여 그 곳 邊臣이 왜구로 의심하여 죽이려는 것을 잘 모면하였다는 짤막한 내용이 압축되어 기록되고 있다.²³⁴⁾ 또한 《談聞瑣錄》에도 千戶 許淸, 備倭指揮 劉澤, 備倭署 都指揮 및 布政司官 등에게 심문받은 내용과 嘉興에서 靑坡驛까지의 주요 노정을 적고 있으며,²³⁵⁾ 《海東雜錄》一에는 실제 《표해록》의 내용 전부분에서 발췌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²³⁶⁾

張漢喆의 〈漂海錄〉은 작자가 직접 쓴 일기체의 작품 외에도 《靑丘野談》과 《東野彙輯》에 각각 이야기체의 〈赴南省張生漂大洋〉과 〈漂萬里十人全還〉이 있다. 일기체의 작품이 1인칭인 데 반해 이야기체의 작품은 3인칭의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표만리십인전환〉에서는 趙氏女를 소실로 삼았다고 기록하여 실제 〈표해록〉 작품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더욱이 같은 설화류 작품인 〈부남성장생표대양〉과 〈표만리십인전환〉 사이에도 이와 같이 내용이 변이되고 있는 것은 장한철의 〈표해록〉이 조선 후기 이야기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깃거리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李邦翼의 표류 사실은 본인이 직접 지은 것으로 보이는 장편가사인 〈漂海歌〉와 朴趾源이 正祖의 찬진 명령을 받고 기록한 〈書李邦翼事〉 등을 통해 전해진다. 〈표해가〉는 《靑春》·《樂府》·《歌集》·《雅樂部歌集》 등에 전해지는데

232) 《成宗實錄》 成宗 23년 정월 乙酉條

233) 《국역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85, pp.473~474.

234) 《국역대동야승》 II, 민족문화추진회, 1985, p.362.

235) 《국역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85, pp.397~398.

236) 《국역대동야승》 V, 민족문화추진회, 1985, pp.80~86.

표기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며, 낙구현상도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집》에는 214행인 ‘뽕결인가 참이런가 羽化登仙 아니런가’가 ‘뽕결인가 참이런가’로만 나타나 ‘羽化登仙 아니런가’가 빠져 있다. 또한 227행인 ‘大風樂을 울녜스니 그소래 嘹亮하다’가 《악부》·《가집》·《아악부가집》에는 ‘그소래 嘹亮하다’로만 나타나 ‘大風樂을 울녜스니’가 역시 빠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필사하여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박지원이 쓴 〈서이방익사〉도 沙汀洞 주인 전사본 李邦仁의 漂海錄으로 전해지는데, 이 역시 이방익의 표류 사실이 일반인들 사이에도 많이 전승되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崔斗燦의 표류 사실도 서울대학교 奎藏閣 소장 《罷睡篇》 소재 필사본인 〈乘槎錄〉 이외에 成均館大學校 도서관 소장인 〈江海乘槎錄〉이 전해지는데, 전자가 일기 형태 속에 詩賦들을 그때그때 삽입하고 있는 데 반해 후자는 1권에는 시부만을 수록하고 2권에는 일기로 되어 偏次的 錯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 構成技法

〔1〕日記體的 構成

출범한 때로부터 귀환하기까지를 날짜순에 따라 종적으로 구성한 표해류 작품으로는 崔溥의 〈漂海錄〉, 李志恒의 〈漂舟錄〉, 張漢喆의 〈漂海錄〉, 文淳得 일행의 〈漂海錄〉, 崔斗燦의 〈乘槎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작품은 문순득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표류자 자신이 직접 기록하였다.

崔溥의 〈漂海錄〉은 成宗 18년(1488) 윤1월 1일 제주를 출발하기 전부터 6월 4일 압록강을 건너오기까지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그날의 중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작품의 끝에는 里數·山川·物産·風俗 등을 기록한 聞見別單이 삽입되었다.

李志恒의 〈漂舟錄〉은 英祖 32년(1756) 4월 13일 釜山을 발선하여 이듬해 3월 5일 부산에 되돌아오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만을 다루고 있어 중간중간에 날짜들이 빠져 있다. 작품의 끝에는 〈看羊錄〉의 저자 姜沆의 이야기와 安南國을 세 번이나 다녀온 晉州 선비 趙完璧의 이야기

가 짚막하게 부록되었다.

張漢喆의 <漂海錄>은 英祖 46년(1770)년 12월 25일 濟州를 발선하여 이듬해 5월 8일 고향에 돌아오기까지를 날짜순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靑山島를 출발하기까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이후 고향에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날짜들이 생략되었다.

文淳得 일행의 <漂海錄>은 純祖 1년(1801) 12월 牛耳島를 출발 이듬해 정월 18일 표류하여 순조 5년(1805) 고향에 돌아오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많은 날짜들이 생략되었다. 작품의 끝에는 琉球와 呂宋의 風俗·宮室·衣服·海舶·土產·言語 등의 聞見別單이 수록되었다.

崔斗燦의 <乘槎錄>은 純祖 18년(1818) 4월 8일 濟州를 출발하기 전부터 10월 2일 柵門에 도달하기까지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날짜순에 따라 기록하였다. 작품의 서두에는 4편의 詩賦가 수록되었고, 작품의 끝에는 室廬說·衣服說이 간략하게 기록되었다.

〔2〕路程記의 構成

거쳐 지나온 里數나 경로에 중점을 두어 기록한 구성법으로 李暹 일행의 <漂流記>, 金紀孫 일행의 <漂流記>, <書李邦翼事>, <耽羅漂海錄>, 李邦翼의 <漂海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李暹 일행의 <漂流記>는 長沙鎮에 표착하여 千戶 桑鎧와 巡檢官 聶摠을 만나고, 堀港指揮所에서 摠兵官 郭銃에게 심문을 받고, 楊州에 도착하여 指揮僉事 劉胤에게 심문을 받고, 淮陰縣에 도착하여 陳鑑의 사위를 만나고, 北京에 도착하여 兵部郎官 崔潑에게 시를 지어바쳤다는 내용으로 지나온 노정에 따른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 작품 후반부에는 바다에서의 표류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金紀孫 일행의 <漂流記>는 南京의 淮安衛에 표착하여 六司와 七司를 보고, 浙江에 도착하여 彩色된 배들을 보고, 通州江에 도착하여 우리 나라 사신 吳準을 알현하고, 이어 北京에 도착하기까지의 노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書李邦翼事>는 福建省 澎湖府에 표착하여 馬宮大人을 만나고, 臺灣府를 지나 廈門에 도착 紫陽書院에 拜禮하고, 福建省에 도착하여 法海寺를 구경하

고, 浙江省·江山縣·龍游縣·杭州·蘇州 등을 지나 金山寺를 구경하고, 이어 山東省에 도착하기까지의 노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작품의 서두에는 正祖의 찬진 명령 및 李邦翼의 아버지 李光彬의 표류 사실과 후반부에는 지나온 자세한 노정과 里數 등을 기록하였다.

〈耽羅漂海錄〉은 南海 普陀山에 표착하여 定海縣으로부터 淸江까지의 자세한 수로 노정과 淸江으로부터 皇城까지의 육로 노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李邦翼의 〈漂海歌〉는 〈서이방익사〉와 노정에 따른 내용의 전개는 비슷하나 서두에 있는 李光彬의 표류 사실이나 끝 부분에 있는 별도의 路程記나 里數 서술이 없다.

〔3〕 風土記의 構成法

날짜나 노정보다는 표류지역의 풍토를 중심으로 서술한 구성법인데 梁成 일행의 〈漂流記〉, 肖得誠 일행의 〈漂流記〉,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根廻伊의 〈漂流記〉, 朴孫 일행의 〈漂流記〉, 高商英의 〈漂流記〉 등이 이런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 풍토기적 구성법의 표류기는 표류자 본인이 직접 기록한 경우보다 제삼자에 의해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梁成 일행의 〈漂流記〉는 琉球의 形勝·王城·道路·人家·氣候·佛寺·奴婢·工匠·鋪陳·衣服·飲食·乘馬法·錢貨·商賈·斗升·更點·朝會·迎詔勅·喪葬·婚姻·祭祀·朝官·盜賊·農桑·田結·所產·禽獸·軍士·交隣·攻戰 등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肖得誠 일행의 〈漂流記〉는 유구의 形勝·氣候·城郭·宮室·國王·朝會·人家·衣服·朝官·倉庫·穀類·家畜·菜蔬·船隻·市場·盜賊·物產·島嶼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는 유구의 閨伊是麼·所內是麼·捕月老麻伊是麼·捕刺伊是麼·欸尹是麼·他羅馬是麼·伊羅夫是麼·覓高是麼 등의 人家·形勝·容貌·器用·鹽醬·濁酒·居室·衣服·家畜·材木·雜獸·날짐승·곤충·田結·葬禮·氣候·菜蔬·과일·升數·우물·船舶·盜賊·言語 등에 대해 각각 섬들에 따라 서술하고 있고, 根廻伊의 〈漂流記〉는 일본의 魚物·田結·家屋·婚姻 등과 環刀와 小刀를 차는 풍속 및 酋長이나 모르는 사람을 만

나면 신발을 벗고 지나가는 풍속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朴孫 일행의 〈琉球風土記〉는 유구의 王宮・山川・田結・氣候・居室・衣服・家畜・飲食・錢貨・所産・學舍・歲時風俗・葬禮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高商英의 〈漂流記〉는 安南의 田結・子女・氣候・衣服・丹樓・彩閣・家禽・寶具・樹木・果實・소・원숭이・코끼리・孔雀・파초・종려・檳榔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4〕問答體的 構成

표류자들과 제삼자가 문답하는 형식으로 된 것으로 〈濟州漂人間答記〉・〈漂民對話〉 등이 문답체로 되어 있다.

〈濟州漂人間答記〉는 1832년 冬至使 겸 謝恩使 徐耕輔의 書狀官으로 皇城에 갔던 金景善이 밤에 표류인들을 불러다 놓고 문답한 내용이며, 〈漂民對話〉는 전라도 順天 어부 11명과 전라도 海南 선상인 16명이 일본에 표류되어 일본관 원과의 대화를 실감나게 기록하였다.

〔5〕說話的 構成

《三國遺事》의 〈延鳥郎 細鳥女〉・〈敏藏寺〉, 《於于野譚》의 〈權可述者恭僖大王朝武士也〉・〈萬曆甲寅東海漁人二十人〉・〈李芝峰晬光爲安邊府使〉, 《青丘野談》의 〈赴南省張生漂大洋〉・〈識丹丘劉郎漂海〉 등이 설화적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거나 원래 기사류 작품에 비해 일기체의 형식에서 이야기체로,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산만한 대목을 삭제하거나 허구적 사실을 첨가하는 등 점차 소설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狀況認識

〔1〕우리 나라의 狀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는 바다가 생활의 주요한 공간일 수밖에 없었기에 표류자들의 발생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많은 표류자들의 발생은 국

가의 중대한 외교적 문제로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표류자들을 무사히 귀국하게 하는 것이 당시 조정의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우는 謝恩使를 보내기도 하였고, 일본에는 그 호송자들에게 서적 등을 하사하여 그 공을 치하하였다. 결국 많은 표류자들의 귀환은 이국 문물에 대한 전문기인 표해류 작품들을 짓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셈인데, 이들 작품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들은 당시 우리 나라의 모습보다는 그들의 표류했던 지역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표해류 작품들에 나타난 우리 나라의 상황은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서술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李暹과 崔溥가 표류했던 15세기나 張漢喆이 표류했던 18세기 당시 우리 나라의 俗尚은 예의를 숭상하고 五倫을 밝히고 儒術을 존중하며, 해마다 봄·가을에 養老宴·鄉射禮·鄉飲酒禮를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祀典은 社稷·宗廟·釋奠과 여러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刑制는 大明律을 따르며, 喪制는 朱子家禮를 따르고, 冠裳은 中華의 제도를 따르고 있으나,²³⁷⁾ 道士는 없다고 함으로써 도교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²³⁸⁾ 그러면서도 釋迦如來도 위하고 觀音菩薩도 위한다고 함으로써²³⁹⁾ 불교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회경제면에서는 수로를 통한 국내적인 상거래는 말할 것 없고 국제적인 상거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漂民對話〉에서 보면 전라도 海南의 표류자들은 장사차 나갔다가 표류하고 있는데 돈 378냥을 갖고 해남을 발선하여 함경도 德源에서 乾魚類를 사고 이를 강원도 平海에서 팔아서 콩을 사고 돌아오다가 표류를 당하고 있다. 또한 〈濟州漂人問答記〉의 표류자들도 제주를 출발 장사하러 本土로 가다가 표류를 당하고 있으며, 文淳得 일행의 표류도 小黑山島에서 화물을 싣고 苔土島에 가서 홍어를 사고 돌아오다가 표류하고 있어 모두 국내적인 상거래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다. 그런가 하면 〈敏藏寺〉의 長春은 바다를 오가는 장사치를 따라 나섰다가 표류를 당한다고 함으

237) ① 崔溥, 《漂海錄》 卷之一 戊辛年 2월 4일조

② 張漢喆, 《漂海錄》 辛卯年 정월 4일조

238) 〈成宗實錄〉 成宗 14년 8월 22일조

239) 朴元良, 《漂民對話》上, p.9.

로써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간의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받게 한다. 그런 가운데 蔚島와 같은 곳에서는 水敵이 성행하였다고 함으로써²⁴⁰⁾ 이러한 국내외의 상거래가 활발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전들의 作弊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음은 당시 조선의 사회적 한 현상이었다. 張漢喆이 靑山島에 표착되었을 때에 하루는 아전이 新恩 한 사람을 데리고 와 里正을 몽둥이로 때리고, 주식을 억지로 달라하여 먹으며, 남자 광대를 족쳐서 錢財를 마구 빼앗을 뿐만 아니라 과부의 農牛까지 빼앗고 있다.²⁴¹⁾ 그러기에 과거를 보려는 것은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목표일 수밖에 없었으며, 李邦翼의 아버지 李光彬이나 장한철까지도 과거를 보기 위해 제주를 출발 서울로 향하다가 표류를 당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 조선의 통치원리는 조금은 폐쇄적임을 느끼게 한다. 안남에 표류했던 高商英 일행을 제주 大靜縣까지 무사히 실어다 준 중국인 朱漢源 등을 水路에 의한 귀환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의 배까지도 포기하고 陸路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말해 준다.

[2] 中國의 狀況

중국은 광활한 영토에 동양 한자문화권의 중심이었던 만큼 가장 문화가 발전하였던 나라였다. 그러기에 중국을 실제로 견문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도시와 성읍의 殷盛은 전시기를 통해서 놀라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다.²⁴²⁾ 이러한 중국의 상황들은 李暹의 〈漂流記〉, 金紀孫의 〈漂流記〉, 崔溥의 〈漂海錄〉, 李邦翼의 〈漂海歌〉, 崔斗燦의 〈乘槎錄〉, 〈濟州漂人問答記〉, 〈耽羅漂海錄〉 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崔溥의 〈漂海錄〉은 작품의 말미에 15세기 중국의 상황을 聞見別單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먼저 楊子江을 남북으로 나누어 그 인가의 성쇠를 살펴보면, 江南은 府城과 縣衛의 번화하고 웅장 화려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鎮·巡檢司·千戶

240) 崔溥, 《漂海錄》 卷之一 戊辛年 윤1월 4일조

241) 張漢喆, 《漂海錄》 辛卯年 정월 10일조

242) 高柄翊, “李朝人の 外國觀”, 《東亞史의 傳統》, 一潮閣, 1976, p.65.

所·寨·鋪·里·壩 같은 것의 소재지 부근에는 3~4리, 7~8리, 10여 리, 혹은 많은 경우에는 20여 리의 사이에 민가가 땅에 가득하고, 市肆가 길 좌우에 많았으며, 樓臺는 잇달아 섰고, 배는 죽 잇대어 있었다. 또한 珠玉·金銀·寶貝의 산출과 稻粱·鹽鐵·魚蟹의 풍부함과 羔羊·鵝鴨·鷄豚·驢牛의 축산과 松皇·藤棕·龍眼·荔枝·橘柚의 물산은 천하에 제일이었다. 江北은 楊州·淮安 같은 곳과 淮河에서 북쪽은 徐州·濟寧·臨清 같은 곳은 번화하고 풍부하기가 강남과 다름이 없었으나 鎮·寨·驛·鋪·里·廠·灣·塢의 사이에는 인가가 그다지 번성하지도 않고 마을은 쓸쓸한 편이었다. 通州 동쪽은 인가가 점차 적어지더니 山海關을 지나서는 백 리를 가서야 겨우 한 里社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나마 2~3채의 草屋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다만 羔羊·鷄楮·驢駱·牛馬 등 가축은 들판에 널려 있고, 楊柳·桑棗 등 나무는 무성하여 가지가 서로 교차되어 있었다.

家屋은 강남에서는 기와로 덮고 벽돌로 깔고, 섬들은 모두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강북에서는 草屋의 구조가 작은 것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服飾은 강남 사람들은 모두 넓고 커다란 검은 속옷과 바지를 입고 綾羅와 絹綃로 옷을 지었으며, 머리에는 羊尾帽와 馬尾帽를 쓰기도 하는데, 官人은 紗帽를 쓰고, 喪人은 白布巾을 썼으며, 신은 가죽신을 신기도 하고, 혹은 짚신을 신기도 했다. 부녀의 의복은 모두 左衽이고, 백발 老嫗라도 모두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강북의 복식은 대개 강남과 같으나 다만 강북에서는 짧고 좁은 白衣를 입기를 좋아하고 가난해서 해진 옷을 입은 사람이 10명에 3~4명이 나 되었다.

인심과 풍속은 강남의 경우 인심이 화순하여 兄弟·從兄弟·再從兄弟끼리 한 집에 동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吳江縣 이북에서는 간혹 부자가 각각 다르게 사는 자가 있어 사람들은 모두 그르게 여겼다. 강북은 인심이 사나워서 산 동 이북은 한 가족끼리 서로 보호하지 못하여 싸움질하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끊어지지 않았으며, 강도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많이 있었다. 강남 사람은 독서로써 직업을 삼았으므로 비록 마을의 어린애든지, 津夫·水夫까지도 모두 문자를 알고 있었지만 강북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 편이다. 강남의 부녀들은 모두가 문 밖에 나오지 않고서 朱樓에 올라가서 珠簾을 걷고

밖을 바라볼 뿐이며 밖에서 服役하는 일이 없는데, 강북의 부녀들은 밭을 손질하고 배를 부리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하였다.

강남은 市中에 金銀을 사용하고, 강북은 銅錢을 사용하며, 강남은 농업·공업·상업에 힘썼는데, 강북은 놀고 먹는 무리들이 많았다. 강남은 사람이 죽으면 巨家·大族들은 사당을 세우고 旌門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喪人은 대개 관을 사용하기는 하되 매장하지 않고 물가에 시체를 내버리게 되니, 紹興府城邊에는 백골이 무더기처럼 쌓여 있다. 강북은 楊州 등지에서는 무덤을 만드는데 강가이든지, 발가이든지, 마을 안에서 만들기도 하였다.

강남은 喪人과 僧人이 간혹 고기도 먹고 葷菜도 먹는데, 강북은 모두가 고기도 먹고 혼채도 먹었다. 그들의 동일한 점은 귀신을 숭상하고, 道敎와 佛敎를 존중하고, 말할 때는 반드시 손을 흔들고, 성낼 때는 반드시 입을 찡그리면서 침을 뱉고, 음식은 거친 음식도 탁자에 같이 차리고 그릇에 같이 담아서 번갈아 젓가락질을 해서 먹으며, 卓子와 그릇을 같이 사용하고, 이는 반드시 입에 넣어 씹으며, 다듬잇방망이는 모두 돌을 사용하고, 땃돌을 돌릴 때는 당나귀나 소를 부리고, 市店에는 깃발을 세우고, 길 가는 사람은 짐을 어깨에 메기는 해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지는 않았다. 또한 사람들이 모두 장사하는 일로 직업을 삼으니 비록 高官과 巨家일지라도 친히 저울추를 소매 속에 넣고서 하찮은 이익을 분석하고 있으며, 官府의 常刑은 대쪽으로 杖刑을 집행하고 손가락을 모아 돌을 들게 하였다.

그런 가운데 해안에는 왜구가 출몰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최부 일행이 浙江省에 寧波府에 표착하였을 때 왜구로 오인을 받고 있다. 아울러 중국인들은 呂宋이나 安南·日本·琉球 등에까지도 장사를 하고 있어 그들의 활동무대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3〕日本の 狀況

중국이 事大主義의 대상이었다면 일본은 交隣主義의 대상이었다. 조선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을 使行하는 것이 평생에 가장 원하는 일이었으나 일본에 가는 것은 通信使의 경우까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바다를 건너간다는 사실은 목숨을 걸어놓는 일이었으며, 일본이 문화적으로 우리보다는 후진국

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관심은 지식층마저도 희박하였다.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에 표류했던李志恒의 〈漂舟錄〉, 張漢喆의 〈漂海錄〉, 〈漂民對話〉, 〈書李邦翼事〉,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根廻伊의 〈漂流記〉, 文淳得의 〈漂海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지항의 〈표주록〉에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일본은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들이 은성한 나라이며, 이 가운데 長崎島는 상업의 거점으로서 대부분의 표류자들은 이곳으로 差送된 후에 귀환할 수 있었다. 특히 曳沙峙의 시장에는 물산을 벌여 놓고 남녀 의복의 화려함과 인물들의 영리하고 여자들의 아름다우며, 松前府 안의 侍衛의 웅성함과 市廳 물산의 풍성함은 우리 나라 州府보다 백 배나 더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런 반면 北海島는 아직 문화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미개한 지역이었다.²⁴³⁾

霸家臺의 경우 인가의 조밀함이 우리 나라의 都城과 같았고, 가옥은 瓦家로 매우 壯麗하였으며, 뜰 아래는 侍立者가 30여 인이 있었는데 모두 칼을 차고 있었다. 표류자들이 大内殿 主將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小二殿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는데 창·칼·小旗를 가진 군사가 3, 4만 명이나 되었다. 무릇 4일을 싸워서 戰勝하여 돌아왔는데 6級을 베어서 장대 끝에 梟首하고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일본의 국내상황이 안정되지 못함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²⁴⁴⁾

또한 일본인들은 武와 勇을 숭상하고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죽기를 어렵게 생각지 않는 경솔한 성품임을 서술하고 있다.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環刀와 小刀를 차고 다니는데 만약 尊長을 만나면 신발을 벗고 지나갔다. 비록 일찍이 서로 알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만약 신을 벗지 않고 지나가면 곧 화를 내어 따라가 잡고서 목을 자르며, 서로 사사로이 화내어 싸우면 환도로 서로 쳐서 목을 자르나 전혀 檢察하지 않았다.²⁴⁵⁾

그러면서도 조선 文士의 詩文을 얻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당지를 가지

243) 李志恒의 〈漂舟錄〉 참조

244)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참조

245) 根廻伊의 〈漂流記〉 참조

고 와서 글씨를 청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²⁴⁶⁾ 일본인들은 시는 물론 글씨 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이미 佛敎는 물론 우리 나라보다도 먼저 耶蘇敎까지 들어왔음을 알 수 있으며,²⁴⁷⁾ 왜구는 중국까지는 물론 일본 근해에서도 출몰하여 노략질하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²⁴⁸⁾

〔4〕 琉球의 狀況

琉球는 高麗 말 이래로 朝貢의 형식으로 南方物産을 조선에 공급하였고, 조선에서도 사신이 간 일이 있으며 표류인들의 상호 송환도 이루어졌다. 申叔舟의 〈海東諸國記〉에도 유구에 관한 자세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燕京에서도 양국 사신이 만나서 交驩을 나눈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²⁴⁹⁾ 이러한 유구의 상황에 대해서는 梁成 일행의 〈漂流記〉, 肖得誠 일행의 〈漂流記〉,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朴孫의 〈琉球風土記〉, 文淳得의 〈漂海錄〉, 〈濟州漂人問答記〉 등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유구의 집들은 모두 널조각으로 다락을 만들고 온돌을 설비하지 않으며, 창고가 없고 지붕은 기와와 풀잎을 깔거나 풀잎으로만 덮는다.²⁵⁰⁾ 집에는 뒷간이 없어 용무를 들에서 보았다.

의복과 음식은 남자의 복장이 우리 나라의 直領과 같은데, 다만 소매가 넓을 뿐이었고, 빗갈은 흑색·백색을 좋아하였으며, 여자의 복장은 하나같이 우리 나라와 같았으며, 君臣과 상하의 남녀는 모두 冠이나 두건을 쓰지 않았다. 걸을 때에는 맨발로 다니고 신발 따위의 물건은 없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갈과 젓가락이 없었고, 익새풀을 꺾어서 젓가락같이 만들어 먹었다. 탁주를 만들 때에는 누룩을 쓰지 않고 다만 쌀을 씹어서 침과 섞어 그릇에 담아 하룻밤을 지내면 달기가 꿀과 같았다. 또한 鹽醬이 없어 海水에 채소를 넣어서 국을 만들어 먹었다고 함으로써 극히 문화 후진 시각으로 묘사되고 있다.

246) 李志恒의 〈漂舟錄〉 참조

247) 李志恒의 〈漂舟錄〉 참조

248) 張漢喆의 〈漂海錄〉 참조

249) 高柄翊, “李朝人の 外國觀”, 《東亞史의 傳統》, 一潮閣, 1976, p.72.

250) 朴孫의 〈琉球風土記〉, 文淳得의 〈漂海錄〉 참조

寺刹은 판자로 덮여 있고 안에는 옷칠을 하였으며, 佛像이 있는데 모두 황금이었다. 居僧은 머리를 깎았으며 검은 옷도 입었고 백의도 입었으며 袈裟는 우리 나라와 같았다.²⁵¹⁾ 귀신을 심히 숭상하여 매일 산천과 절에 기도를 드리는데 대부분 여자들이었고, 학당이 없어 아이들이 절 중에게 나가서 番文을 배우고 經書를 배우는 자는 모두 福州에 입학하였다.²⁵²⁾

錢貨는 興用하는 것이 전화이었으나 그 주조하여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모두 중국에서 얻어다가 사용하고 있다. 南蠻·日本·中國의 상선들이 와서 교역하고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중국에 朝貢하고 있다.

중국의 詔勅과 우리 나라의 書契가 이르면 배가 정박하는 첫 지면에 旗·纛·蓋 등의 물건으로 의장을 설치하고 군사들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나가서 맞이하는데, 조칙이나 서계를 수레에 奉安하고 그 곁을 따르면서 북과 징을 울리고 태평소를 불면서 왕실로 맞아들였다. 왕이 絳衣를 입고 관을 쓰고 절을 한 다음 앉으면 이를 開讀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 대한 유구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²⁵³⁾

歲時風俗은 매년 정월 초하룻날과 8월 15일에 그 선조에 제사하고, 정월 초 8일부터 15일까지는 밤이 새도록 등불을 켜고 남녀가 놀고 구경하여 길이 메이고, 3월 3일에는 선비와 서민들이 서로 모여 잔치를 벌여 마시고, 5월 5일에는 용의 모양을 형상하여 배를 만들고 남자 아이를 배 한 척에 각각 20명씩 뽐아서 금과 은으로 채색하여 만든 꽃을 꽂고 돛대를 잡고 회룡을 하고, 7월 15일에는 집집마다 등불을 켜고 남자는 여복을 하고 여자는 남복을 하여 왔다 갔다 하며 회룡을 하고, 동지 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었다.²⁵⁴⁾

〔5〕安南의 狀況

安南의 상황은 高商英의 〈漂流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687년에 이미 중국의 장삿배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표류자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

251)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참조

252) 朴孫의 〈琉球風土記〉 참조

253) 梁成 일행의 〈漂流記〉 참조

254) 朴孫의 〈琉球風土記〉 참조

여 준다. 특이한 남방문화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문화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안남은 토지가 비옥하고 논이 많으며, 그곳 백성들은 아들 셋, 딸 다섯을 두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여기는데 남자를 천히 여기는 반면 여자를 귀히 여기고 있다. 그들의 머리털은 풀어헤쳤으며, 발은 맨발이었다.

경치가 좋은 곳에는 반드시 단청으로 채색한 樓閣들이 있었는데 制度가 화려하였으며, 전기한 새와 이상한 짐승을 집집마다 기르고 있었다.

나무로는 丹木·烏木·白檀이 있으며, 과실로는 龍荔·杜椒·薑芋·蔗茸·檳榔·종려·파초 등이 있었다. 파초는 잎의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고 코끼리가 잘 뜯어먹었다. 종려의 잎 사이에는 실이 있어서 그것으로 雨衣를 짜며, 빈랑의 열매는 토인들이 정신과 기운이 피곤할 때 그 열매를 먹었다.

짐승으로는 원숭이가 있어 능히 사람의 뜻을 알고 심부름시키기에 편리하여 쇠사슬로 목을 매어서 사람이 집에서 길렀다.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에는 늘어서서 대오를 지으면 사람이 무기를 들고 올라가서 호령을 했다. 또한 공작이 있어 그 羽毛로 羽綴을 짜는 듯했다.

〔6〕 呂宋의 狀況

呂宋의 상황은 文淳得 일행의 <漂海錄>에 잘 나타나 있다. 1802년경 중국의 장삿배가 드나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福建人들이 삼천 호나 살고 있었다.

집들은 주춧돌이 없어 땅을 파서 높은 기둥을 세우고 2, 30자 위에 층층 집을 짓고 사다리를 두어 오르내리고 하며, 벽과 방바닥은 판자로 만들어 앞면과 뒷면은 유리로 창문을 만들어 대로 덮었다. 불이 자주 나서 불을 경계하는 것으로 부엌을 멀리 두었다.

신을 모시는 사당은 3, 40간의 집을 짓고 아주 크고 화려해서 비할 데가 없으며, 神像을 모시고 탑을 세우는데 탑머리에 金鷄를 세워서 바람따라 돌게 하고 그 머리를 바람 오는 곳을 향하게 하여 벽 밖에는 크고 작은 종 4, 5개를 달아 제사와 기도를 할 때 의식에 따라 종을 다르게 치면 듣는 사람이 각기 그 소리에 따라 신에게 예를 올렸다.

의복은 옷깃이 없는 홀저고리를 입으며, 옷섶에는 구리쇠나 금으로 장식

을 하고 겨드랑이 밑으로 돌아가면서 8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찼다. 도인은 검은 비단으로 우리 나라의 두루마기와 같이 길게 입으며, 천인의 바지는 양다리가 우리 나라 부인의 훌바지와 같았다. 남자는 머리를 깎기도 하고 깎지 않기도 하였으며, 부인은 상투같은 머리를 하거나 산발을 하였다.

남자가 밥을 지어 먹는데 항상 가운데에 밥과 반찬을 놓고 둘러 앉아서 손으로 먹었으며, 귀인은 숟갈과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었다. 가슴이 답답하면 빗물을 마시어 설사를 하였고, 큰 도마뱀으로 국을 만들어 먹었다.

닭싸움을 좋아하며 은으로 발톱을 만들어 싸우게 하고 이기지 못하고 죽으면 주인이 그 은을 받았고,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잘 먹었다.

배는 밑이 큰 판자로 되어 있고 밑창 위의 좌우로 3, 4개의 판자를 아주 좁게 하여 아래로 내리고 그 위는 넓게 하여 뱃머리를 밑창에 대서 기둥을 좌우로 배의 갓 판자에 세우고 판자머리를 기둥에 대어 붙였다. 중간 크기의 배의 이물은 좁고 고물은 넓으며, 높이는 3장이고 길이는 15, 6장이고, 폭은 3장이었다.

큰 뱀을 잡아 말려서 사람의 기가 허하면 다시마와 같이 다려 먹었고, 청개구리가 많아 소금을 뿌리면 죽었는데 발과 배를 버리고 삶아 먹었다.

4. 海洋觀의 表象

[1] 우리 民族의 海洋觀

반도국이었던 우리 나라는 바다가 주요한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기에 바다는 필연적으로 희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극복해야 할 존재가 되기도 하며,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恨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찍이 융(C. G. Jung)은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영적 신비이며 영원성이요, 죽음과 재생을 나타낸다’고 하였고,²⁵⁵⁾ 프라이(Northrop Frye)

255) Wilfred L. Guerin,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Harper & Row, 1966, P. 158.

The sea: the mother of all life; spiritual mystery and infinity; death and rebirth; timelessness and eternity; the unconscious.

도 바다는 겨울·밤·죽음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면서²⁵⁶⁾ 죽음의 표상인 동시에 죽음의 승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통로로 보고 있다.²⁵⁷⁾ 또한 엘리아데(Mercia Eliade)도 바다는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²⁵⁸⁾ 이들 모두가 소멸과 창조, 죽음과 삶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즉 바다를 침몰과 창조, 畏敬과 憧憬의 兩價值的 의미로 표상된다고 할 때 표해류 작품들에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는 창조나 동경보다는 죽음이나 침몰과 외경의 대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표류자들에게 있어 폭풍우치는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표류자들은 이러한 극한상황 속에서 살아나야 하겠다는 집념 보다는 쉽게 생명을 포기하여 체념하고 있다. 이를테면 李暹 일행이 처음 표류되어 풍랑이 몹시 거칠고 물이 배 안에 가득하자 旌義訓導 金孝胖을 비롯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투어 蓬屋 위에 목을 매어 목숨을 포기하고 있다. 崔溥 일행도 배 안에 가득차는 물을 밖으로 퍼내기보다는 崔溥를 원망하며 생명을 포기하는 자세를 취하며, 張漢喆의 <漂海錄>의 경우도 함께 과거를 보러 가던 金瑞一은 그들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라며 장한철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韓進·崔溥·張漢喆 등은 비록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일행을 독려하여 무사히 죽음을 모면하고 있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은 바다를 畏敬의 대상으로까지 비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릇 본토에서 제주로 가려는 사람들은 모두 光州 無等山の 神祠와 羅州 錦城山の 神祠에 제사를 지냈으며, 제주에서 육지로 나오는 사람들

256)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 160.

Water-symbolism has also its own cycle, from rains to springs, from springs and fountains to brooks and rivers, from rivers to the sea or the winter snow, and back again. These cyclical symbols are usually divided into main phases, the four seasons of the year being the type for four periods of the day (morning, noon, evening, night), four aspects of the water-cycle (rain, fountains, rivers, sea or snow), four periods of life (youth, maturity, age, death), and the like.

257) Northrop Frye, 《神話文學論》, 金相一 譯, 乙酉文化社, 1971, p.51.

258) Mercia Eliade, 《聖과 俗》, 李東夏 譯, 학민사, 1983, p.100.

은 모두 廣壤·遮歸·禾北鎮 등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고 떠났던 까닭으로 신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⁵⁹⁾ 이러한 사실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어느 곳에서든지 고사를 지내는 풍속까지 낳고 있는 셈이다. 즉 바다에는 龍王이 있어 용왕이 그들의 해상 안전을 지켜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마치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물 속에는 용궁이 있다고 믿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²⁶⁰⁾ 그러기에 '頃刻에손을목숨 힘입어保全 하니 皇天의주신젠가 海神의도움인가'라고 노래까지 하기도 하며,²⁶¹⁾ 용왕은 매우 욕심이 많기 때문에 행장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무사하기를 빌자고 말한다.²⁶²⁾

또한 바다란 것은 그 크기가 길이 없을 정도여서 하늘과 땅을 삼키듯 싸고 있고, 해와 달을 거꾸로 세우며, 朱崖天墟로써 남북의 涯岸으로 삼고, 析木·流沙로써 동서의 洲渚를 삼고 있다고 인식한다.²⁶³⁾ 따라서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의 금기의 풍속이 있는데, 해상에서는 갈 길이 머냐 가까우냐를 묻는 것을 꺼리고, 배에서는 죽을 쓰는 것을 꺼리고, 고기 잡으러 갈 때에는 여자를 승선시키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다에 대한 관심은 해양지리적 인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나라 黑山島에서 동북쪽을 향하여 가면 곧 우리 나라 충청도와 황해도의 경계이며, 정북방은 평안도와 중국의 遼東이요, 서북방은 靑州와 兗州의 경계이며, 정서방은 徐州와 楊州의 지역이며, 서남방은 福建路요, 서남방을 향하여 조금 남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면 暹羅·占城·滿刺加요, 정남방은 유구국이요, 정남방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면 女人國과 一岐島요, 정동방은 일본국과 大馬州라고 하고 있다.²⁶⁴⁾

한편 표류자들의 표류동기는 金非衣 일행의 <표류기>는 貢物을 싣고 가다가 표류를 당하고 있으며, 李暹 일행의 <표류기>는 遞任되어 가다가 표류를 당하

259) 崔溥, 《漂海錄》 卷之一 戊申年 윤정월 14일조

260) Gaston Bachelard, 《물과 꿈》, 李嘉林 譯, 文藝出版社, 1988.

261) 李邦翼의 <漂海歌>

262) 崔溥, 《漂海錄》 卷之一 戊申年 윤정월 6일조

263) 張漢喆, 《漂海錄》 12월 26일조

264) 崔溥, 《漂海錄》 卷之一 戊申年 윤정월 8일조

고 있다. 崔溥의 <표해록>은 아버지의 喪事를 듣고 가다가 표류되고 있으며, 李志恒의 <표주록>은 釜山에서 寧海로 갈 일이 있어서 표류를 당하고 있다. 또한 張漢喆의 <표해록>은 과거를 보러 배를 탔다가 표류를 당하고 있으며, 文淳得 일행의 <표해록>은 고기를 사러 갔다가 표류를 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崔斗燦의 <승사록>은 全羅 右營의 討捕使인 사촌 자형을 만나러 가다가 표류하고 있고, <제주표인문답기>에서는 장사하러 가다가 표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金光顯 일행의 <탐라표해록>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표류하고 있으며, <연오랑 세오녀>에서는 해초를 따러 갔다가 표류하고 있고, <민장사>에서는 바다를 건너다 표류하고 있으며, 李邦翼의 <표해가>에서는 秋景을 사랑하여 船遊하다가 표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이나 개척의 의미인 모험적 성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동적으로 표류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慧超가 구도를 위해 바다로 중국을 거쳐 天竺國에 들어간 사실이 놀랍게 여겨지며, 많은 海梯錄 작품들에 나타난 通信使로 뽑히는 것 자체를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과 일맥상통한다. 유교적 분위기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들이 모험이 뒤따르는 바다의 세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지도 모르겠다.

[2] 外國人의 海洋觀

외국인의 표해류 작품들로는 하멜의 《하멜漂流記》, 바디긴의 《北氷洋漂流記》, 하이에르달의 《콘티키호탐험기》, 모리스·메라린 베일리의 《베일리夫婦漂流記》 등을 들 수 있다.

하멜의 《하멜漂流記》는 조선조 孝宗 4년(1653) 1월 네델란드를 떠난 스펠 웰호가 동년 7월 중국 대만을 거쳐 일본 長崎島로 가다가 폭풍우에 밀려 제주도 근해에서 파선을 당하고 선원 64명 가운데 36명이 제주도에 표착, 14년 간 억류생활을 당하고 있다.

바디긴의 《北氷洋漂流記》는 1937년 10월부터 1940년 봄까지 26개월 간에 걸쳐 쇄빙선 세드프호가 북극해에서 표류하여 15명의 승무원이 악전고투 끝에 살아남은 기록이다.

하이에르달의 《콘티키호탐험기》는 폴리네시아 조상의 주민은 남아메리카에

서 아메리칸 인디언이 뗏목을 타고 폴리네시아에 표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친 하이에르달이 이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고대 인디언이 만든 것과 똑 같은 원시적인 뗏목을 만들어 1947년 4월 28일 5명의 동료와 더불어 이 뗏목을 타고 남아메리카 페루의 카야오항을 떠나 100일 만에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 가까운 라로이아礁까지 표류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모리스·메라린 베일리의 《베일리부부표류기》는 파나마운하를 출발 갈라파고스군도를 향하다가 그들이 탔던 오탈린호가 고래의 습격을 받고 침몰하여 구명 보트에 의지하여 117일 간을 표류하다가 1973년 3월 4일 태평양상에서 한국의 어선 月尾 306호에 구조될 때까지의 기록이다.

이들 작품들은 새로운 세계나 바다에 대한 동경 및 모험적 본능을 나타낸 것으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해양관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표류기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해양문학 작품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데서도 뒷받침되는 것으로 바다가 동경과 모험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3〕 海洋文學의 位相

해양문학은 바다를 주요한 소재로 하는 중요한 문학 양식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는 바다가 생활의 주요한 터전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해양문화적 요소는 대륙문화적 요소와 더불어 우리 문화의 한 원류를 이루었다. 사실 국문학 작품에는 바다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표해류 작품은 가장 대표적인 해양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中國·日本·琉球·安南·呂宋 등지에 표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개인 체험적 의미도 있었으나 당시 나라에서도 중대한 외교적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이 표류사실을 글로 써 왕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수체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실제 작품들이 文獻說話로서 전해지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문학 작품의 통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는데 일기형식의 한문수필에서 점차 소설적 요소들로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표해류 작품은 한문수필적인 記事類 작품뿐만 아니라 文獻說話類·創作類·歌辭類 등의 다양한 문학 장르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행문학적 영역을 확대하는 의미까지 함께 지닌다.

표해류 작품의 해양문학적 성격은 나아가 구전설화나 민요 등은 물론 많은 漢詩·時調·歌辭 작품 등에서 나타나는 바다가 단지 '假漁翁'만의 세계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며, 아울러 현대문학에서의 崔南善·金永郎·鄭芝溶·申石州·金起林·徐廷柱·張萬榮·高銀·朴在森·全光鏞·鄭漢淑·李清俊·白始宗·千金成 등의 바다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과도 연속성을 지닌다. 더욱이 海梯錄 작품들이나 朝天錄 작품들의 해양문학적 성격과도 연결됨으로써 국문학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IV. 結 論

본 연구는 韓國文學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는 바다를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했다는 것으로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에게 있어 바다는 주요한 삶의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實存的 空間인 思惟의 空間이라는 인식하에서 출발했다. 한국문화의 원류가 大陸文化的 北方文化와 海洋文化的 南方文化를 그 기저로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에서의 海洋文學은 그 용어 설정마저 문제시되어 왔다. 사실 한국문학에서는 바다를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說話·民謠·漢詩·時調·歌辭·現代詩·現代小說 작품들에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들 작품들 중에 대표적 작품 유형의 하나가 바로 漂海類 작품들이다. 표해류 작품은 바다에서의 자연현상에 대한 공포감과 안도감 등의 특수체험을 형상화한 것으로 문학의 생리 내지는 심리적 의미가 강하게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표해류 작품들의 논의는 한국문학에서 해양문학의 성립 가능성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紀行文學의 성격을 보다 심화시켜 주는 이원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의도는 한국문학에서 해양문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기도 하지만 문학작품을 미시안적으로만 보려는 태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논의를 위한 대상으로는 지금까지 학계에 직·간접으로 밝혀진 記事類 작품 17편, 文獻說話類 작품 5편, 창작류 작품 2편, 歌辭類 작품 2편 등 모두 26편으로서 작품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해류 작품의 국문학사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양문학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그 형성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기에, I 장에서 기초적 단계로서 해양문학의 개념과 그 성립을 역사적 전통성과 외국문학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한국문학에서의 해양문학은 광의적인 개념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하거나 바다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다가 작품 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볼 때 《三國遺事》의 〈延鳥郎 細鳥女〉

설화나 〈海歌〉 등을 비롯해 한시 작품으로는 崔致遠의 〈泛海〉, 郭預의 〈感渡海〉, 朴孝修의 〈興海松羅途中觀海濤〉, 鄭夢周의 〈渡渤海〉, 權近의 〈航萊州海〉, 崔有海의 〈行舟〉, 申光洙의 〈潛女歌〉, 趙觀彬의 〈歎潛水女〉, 洪聖民의 〈賣魚翁行〉 등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 외에 가사 작품으로는 朴仁老의 〈船上嘆〉, 李邦翼의 〈漂海歌〉, 趙熙百의 〈도히가〉, 金漢弘의 〈海遊歌〉, 작자 미상의 〈觀東海歌〉, 12가사의 하나인 〈漁父詞〉 등이 있으며, 시조 작품으로도 李賢輔의 〈漁父詞〉, 尹善道の 〈漁父四時詞〉, 金壽長의 〈滄海乘船歌〉 등이 있고, 수필 작품으로도 洪翼漢의 〈朝天航海錄〉, 趙戡의 〈朝天錄〉, 작자 미상의 〈水路朝天錄〉 및 많은 海槎錄類 작품들이 있었다. 적어도 이들 작품들은 '假漁翁'의 세계만을 노래했다는 기존의 인식을 충분히 씻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바다를 노래하는 작품들이었다.

둘째, 지금까지 밝혀진 표해류 작품들의 자료적 개관과 분석이 Ⅱ장의 고찰이었다. 이들 작품들은 크게 記事類·文獻說話類·創作類·歌辭類 작품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기사류 작품으로는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된 梁成 일행의 〈漂流記〉, 肖得誠 일행의 〈漂流記〉,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李暹 일행의 〈漂流記〉, 楊廻伊의 〈漂流記〉, 金紀孫 일행의 〈漂流記〉 등 많은 표류 사실의 기록이 있었고, 《燕行錄選集》 소재 崔溥의 〈표해록〉, 《稗官雜記》 소재 朴孫 일행의 〈琉球風土記〉, 《晝永編》 소재 高商英의 〈漂流記〉, 《海行摠載》 소재 李志恒의 〈漂舟錄〉, 張漢喆의 〈漂海錄〉, 《燕巖集》 소재 〈書李邦翼事〉, 《柳菴叢書》 소재 文淳得 일행의 〈漂流記〉, 《罷睡篇》 소재 崔斗燦의 〈乘槎錄〉, 《心田稿》 소재 金光顯 일행의 〈耽羅漂海錄〉, 《燕轅直指》 소재 〈濟州漂人問答記〉, 朴元良의 〈漂民對話〉 등이 있으며, 문헌설화류 작품으로는 《三國遺事》의 〈延鳥郎 細鳥女〉·〈敏藏寺〉, 《於于野譚》의 〈權可述者恭僖大王朝武士也〉·〈萬曆甲寅東海漁人二十人〉·〈李芝峰晬光爲安邊府使〉 등이 있다. 또한 창작류 작품으로는 《靑丘野談》의 〈赴南省張生漂大洋〉·〈識丹丘劉郎漂海〉 등이 있고, 가사류 작품으로는 李邦翼의 〈漂海歌〉 등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비단 표해가사 작품은 아니나 趙熙百의 〈도히가〉는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임을 노래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개관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될 때 하나

의 체계로서 표해류 작품이 갖는 문학적 의미가 추출되었다.

표해류 작품의 저술과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표류자 자신이 직접 쓰는 경우, 제삼자가 표류자의 구술을 토대로 기록하는 경우, 민간에 구전되던 이야기가 채록된 경우 등이다. 첫 번째의 표류자 자신이 직접 쓰는 경우는 李志恒·張漢喆·崔斗燦 등과 같이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쓰는 경우와 崔溥와 같이 왕의 撰進命令을 받고 쓰는 경우로 나누어졌다. 두 번째의 제삼자에 의한 기록도 朴孫 일행의 〈琉球風土記〉, 高商英의 〈漂流記〉, 金光顯 일행의 〈耽羅漂海錄〉, 〈濟州漂人問答記〉, 文淳得의 〈漂海錄〉, 朴元良의 〈漂民對話〉와 같이 표류자들이 직접 기록을 남길 능력이 없어서 제삼자가 그들의 구술을 토대로 간접 기록하는 경우와 《朝鮮王朝實錄》 소재 표류기들처럼 왕께 보고하기 위해 承政院·弘文館·禮曹 등에서 기록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세 번째의 민간에 전승되던 이야기들을 채록하여 전해지는 경우는 《於于野譚》·《靑丘野談》·《東野彙輯》 등의 설화류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작품들에 따라 현전하기까지는 적잖은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崔溥의 〈漂海錄〉은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漢文本 이외에도 國譯本·日譯本·英譯本 등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成宗實錄》·《稗官雜記》·《海東野言》·《謏聞瑣錄》·《海東雜錄》 등에도 그 내용이 요약되어 전해진다. 張漢喆의 〈漂海錄〉은 《靑丘野談》과 《東野彙輯》에 각각 한문문헌설화 작품인 〈赴南省張生漂大洋〉과 〈漂萬里十人全還〉으로 전해지는데 원래 작품이 일기체의 1인칭인 데 반하여 이야기체의 3인칭 서술방식을 취하면서 점차 소설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李邦翼의 표류 사실은 朴趾源이 撰進한 〈書李邦翼事〉와 이방익 자신이 직접 지은 〈漂海歌〉가 있는데, 전자는 다시 沙汀洞 주인의 전사본 李邦仁의 漂海錄, 李邦翼의 〈漂海日記〉 등으로 전해지며, 후자는 《靑春》·《歌集》·《樂府》·《雅樂部歌集》 등에 전해지는데 표기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며 낙구부분까지 나타난다. 崔斗燦의 표류 사실도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된 〈罷睡篇〉 소재 필사본인 〈乘槎錄〉 이외에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소장 〈江海乘槎錄〉이 전해지는데 전자가 일기 형태 속에 詩賦들을 그때그때 삽입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1권에는 詩賦만을 수록하고 2권은 일기로 되어 編次の 錯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해류 작품의 구성기법은 日記體的 構成, 路程記的 構成, 風土記的 構成, 問答體的 構成, 說話的 構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기체적 구성의 작품으로는 崔溥의 〈漂海錄〉, 李志恒의 〈漂舟錄〉, 張漢喆의 〈漂海錄〉, 文淳得 일행의 〈漂海錄〉, 崔斗燦의 〈乘槎錄〉 등이고, 노정기적 구성의 작품으로는 李暹 일행의 〈漂流記〉, 金紀孫 일행의 〈漂流記〉, 〈書李邦翼事〉, 〈耽羅漂海錄〉, 李邦翼의 〈漂海歌〉 등이며, 풍토기적 구성의 작품으로는 梁成 일행의 〈漂流記〉, 肖得誠 일행의 〈漂流記〉,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根廻伊의 〈漂流記〉, 朴孫 일행의 〈琉球風土記〉, 高商英의 〈漂流記〉 등이다. 또한 문답체적 구성의 작품으로는 〈濟州漂人問答記〉·〈漂民對話〉 등을 들 수 있다.

표류지역은 中國·日本·琉球·安南·呂宋 등으로 이들 지역의 당시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으며, 유구의 표류자는 일본이나 중국을 거쳐서, 안남이나 여송의 표류자는 중국을 거쳐 귀환하고 있는데, 중국의 표류자들이 가장 복잡한 확인 절차를 받고 있다.

표류자의 표류동기는 貢物을 싣고 가다가, 遞任되어 가다가, 부친의 喪事를 듣고 가다가, 釜山에서 寧海로 갈 일이 있어서, 과거를 보러 가다가, 고기를 사러 갔다가, 全羅 右營의 討捕使인 사촌 자형을 만나러 가다가, 장사하러 가다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秋景을 사랑하여 船遊하다가 등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이나 개척의 의미인 모험적 성격에 의해서기보다 피동적으로 표류를 당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새로운 세계나 바다에 대한 동경 및 모험적 본능을 나타내는 海洋觀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이상의 요약에서 살펴본 바 漂海類 작품은 바다를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海洋文學의 중요한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에서의 표류라는 극한상황으로 주어지는 특수체험을 형상화시킴으로써 한국문학의 한 독자성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가 기초가 되어 한국문학에서의 해양문학적 의미를 확장시키려면 여러 문학 양식에서 나타나는 바다를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진지하게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바다를 동경하며 넓은 세계로 우리들의 국력이 뻗어 나갈 수 있는 저력으로서의 현대문학 창작집 속에서도 많은 해양문학 작품들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Korean Sea Literature

—With a Special Reference on Drift Story Works—

Yoon Chi-boo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e source of the Korean culture is based on continental north culture and marine south culture. Nevertheless, in the Korean sea literature, even the establishment of terms has come into question. There are many works in which the sea is taken for the material in Korean literature. The drift story works are numbered among them, too. Therefore, the discussion of drift story works shows us the dualistic characteristic, that is to say, such a discussion not only presents the possibility of sea literature formation, but also deepens the characteristic of travel literature even further. To summarize the result which is given through study, it is as follows.

First, the basic material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26 works, which is 8 works published to the academic world, for example, Choe Boo's drift story, and the additional 18 works.

Second, the drift story works of this study keep the double characteristic of prose and verse, and can be classified into 17 descriptive works, 5 Chinese literature stories, 2 fictions, 2 Korean

verses.

Third, the writing process is very various. - a drifter wrote his story in person, a third person wrote the drifter's oral statement indirectly, Hongmunkwan(弘文館), Seungjungwon(承政院), Yeojo(禮曹) recorded their statements and made a public report to the king, drifters' stories were handed down by oral tradition and the writers are unknown once in a while.

Fourth, much alternation of transmission takes place before these works are handed down until now. -copied originals are handed down exactly, the contents of originals are summarized in many literatures, Chinese classics are handed down in the form of Korean annotation. As making is wrong or some phrases are omitted in the process of copy, alternative versions are likely to be handed down, which is a kind of Korean literature currency.

Fifth, the construction technique of drift stories is very various. -the diary construction, the route construction, the topography construction, the dialog construction, the narrative construction, etc...

Sixth, the situation of drifting area is described very well. - China, Japan, Yuku(琉球), Annam(安南), Yeosong(呂宋), etc...

Seventh, the drifting motivation is very various, too. For example, going with tributes, attending to father's burial ceremony, going to take a government service exam, going to buy and sell, going to fish, etc... However, people were drifted not by adventurous spirit but by passive situation. The foreigner's view of the ocean is based on the aspiration for the new world and the adventurous instinct for the ocean, whereas the Korean's view of the ocean is very passive.

In conclusion, it is a problem awaiting solution to research the relation with other works from the viewpoint of sea literature and to compare drift story works with *Jochunrok*(朝天錄), *Haesarok*(海槎錄).

參 考 文 獻

1. 資 料

- 고정옥·김삼불 주해, 《가사집》, 여강출판사(영인), 1991.
《국역고려사절요》, 민족문화추진회, 1989.
《국역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동문선》, 민족문화추진회, 1989.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1989.
《국역연행록선집》, 민족문화추진회, 1989.
《국역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89.
《국역정다산문선》, 이재호 옮김, 驪江出版社, 1987.
《국역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89.
奎章閣, 《日省錄》, 國史編纂委員會(影印), 1971.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제 V 집, 서울大學校圖書館, 1982.
金東旭·林基中 共編, 《校合歌集》, 太學社(影印), 1982.
———, 《校合樂府》, 太學社(影印), 1982.
———, 《校合雅樂部歌集》, 太學社(影印), 1982.
金富軾, 《三國史記》, 李丙燾 譯, 乙酉文化社, 1989.
金尚憲, 《南樓錄》, 金禧東 譯, 永嘉文化社, 1992.
金榮敦·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金澤榮, 《金澤榮全集》, 亞細亞文化社, 1978.
南萬里 編, 《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影印), 1989.
東國大學校附設韓國文學研究所 編, 《韓國文獻說話全集》, 太學社(影印), 1991
東亞大學校古典研究室 編, 《譯註高麗史》, 東亞大學校出版社, 1965.
朴榮喆 編, 《燕巖集》, 景仁文化社(影印), 1989.
朴宗采, 《過庭錄》(奎章閣所藏本); 韓國漢文學研究會, 《韓國漢文學研究》 第6輯 附錄
1982.
———, 《過庭錄抄》; 韓國漢文學研究會, 《韓國漢文學研究》 第7輯, 1984.
備邊司 編, 《濟州啓錄》(奎章閣所藏本)
釋一然, 《三國遺事》, 崔南善 編, 民衆書林, 1976.

- , 《三國遺事新譯》, 李家源 譯, 太學社, 1991.
- 承政院, 《承政院日記》, 國史編纂委員會(影印), 1971.
- 申光洙, 《石北集》
- 柳得恭, 《古芸堂筆記》, 亞細亞文化社(影印), 1986.
- 柳夢寅, 《於于野譚》全, 萬宗齋, 1964.
- , 《於于野談》上·下(舊皇室內殿秘藏本)
- 李晬光, 《芝峰類說》, 景仁文化社(影印), 1970.
- 李元鎮, 《耽羅志》, 金相助 譯,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 林焚澤 편역, 《李朝時代敘事詩(상)》, 창작과비평사, 1992.
- , 《李朝時代敘事詩(하)》, 창작과비평사, 1992.
- 張漢喆, 《漂海錄》(筆寫本)
- , 《漂海錄》, 鄭炳昱 譯, 汎友社, 1979.
- 鄭東愈, 《晝永編(上)》, 南晚星 譯, 乙酉文化社, 1971.
- 鄭源鎬, 《嶠南誌》, 1940.
- 《朝鮮王朝實錄中耽羅錄》, 濟州文化放送, 1986.
- 趙熙百, 〈도화가〉:《한국 어문학의 이해》, 弘益大學校出版部, 1992
- 《青春》第一號, 新文館, 1914.
- 崔斗燦, 《乘槎錄》(奎章閣所藏本)
- , 《江海乘槎錄》(成均館大學校圖書館所藏本)
- 崔 溥, 《漂海錄》, 崔基泓 譯, 1979.
- , 《금남선생표해록》, 최기홍 옮김, 교양사, 1989.
- , 《錦南先生集》(奎章閣所藏本)
- , 《錦南先生集》(延世大學校圖書館所藏本)
- , 《崔錦南漂海錄》(國史編纂委員會所藏本)
- 春秋館實錄廳, 《朝鮮王朝實錄》, 探求堂(影印), 1968~1970.
-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耽羅史料志》, 濟州道教育委員會, 1981.
- 《표히록》(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 《韓國古書綜合目錄》, 國會圖書館, 1968.
- 《한글》 제151호, 한글학회, 1973.
- 慧 超 外, 《往五天竺國傳(外)》, 李錫浩 譯, 乙酉文化社, 1972.

2. 國內 論著

- 姜東燁, 《熱河日記研究》, 一志社, 1988.

- 高柄翊,《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 ,《東亞史의 傳統》, 一潮閣, 1976.
- 具滋均,《韓國平民文學史》, 民族文化社, 1982.
- 國語國文學會 編,《隨筆文學研究》, 정음문화사, 1984.
- 金東旭,《國文學史》, 日新社, 1978.
- 金明昊,《熱河日記研究》, 창작과비평사, 1990.
- 김봉옥,《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 金思燁,《李朝時代의 歌謠文學》, 大洋出版社, 1956.
- ,《日本의 萬葉集》, 民音社, 1985.
- 金錫夏,《韓國文學의 樂園思想研究》, 日新社, 1973.
- 金聖培外 3人,《註解 歌辭文學全集》, 集文堂, 1981.
- 金蓮玉,《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 金烈圭,《韓國의 神話》, 一潮閣, 1989.
-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85.
-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一潮閣, 1987.
- 金烈圭外 3人,《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知性社, 1976.
- 金用淑,《閑中錄研究》, 정음사, 1988.
- 金宗業,《耽羅文化史》, 도서출판 조약돌, 1986.
- 김중희,《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 문학 아카데미, 1990.
- 金錫堧·崔柄憲 編著,《史料로 본 韓國文化史》古代篇, 一志社, 1986.
- 金泰吉,《존 듀이의 社會哲學》, 明文堂, 1990.
- 김태준,《조선소설사》, 도서출판 예문, 1989.
- 金泰俊,《洪大容과 그의 時代》, 一志社, 1982.
- 金泰俊外 3人編,《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1991.
- 金學主,《中國古代文學史》, 民音社, 1985.
- 金鉉龍,《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 ,《韓國古說話論》, 새문社, 1984.
- 都光淳 編,《東아시아文化와 韓國文化》, 敎文社, 1988.
- 閔泳大,《癸丑日記研究》, 韓南大學校出版部, 1990.
- 朴湧植,《韓國說話의 原始宗教思想研究》, 一志社, 1985.
- 朴好泳·李崇源,《韓國 詩文學의 批評의 研究》, 三知院, 1989.
- 白鐵·李秉岐,《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63.
- 白影 鄭炳昱 先生 還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著,《韓國詩歌文學研究》, 新丘文化社
1983.
- 徐大錫 編著,《朝鮮朝文獻說話輯要(I)》, 集文堂, 1991.

- , 《朝鮮朝文獻說話輯要(Ⅱ)》, 集文堂, 1992.
-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 소재영·김태준 편, 《旅行과 體驗의 文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 , 《旅行과 體驗의 文學: 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 《여행과 체험의 문학: 일본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81.
- 宋載邵 外, 《韓國漢文學의 再照明》, 創作과批評社, 1983.
- 宋孝燮, 《三國遺事說話와 記號學》, 一潮閣, 1990.
- 申鉉夏 編著, 《日本文學史》, 學文社, 1987.
- 沈載完 編著, 《定本時調大全》, 一潮閣, 1984.
- 梁淳泌·金順澤 外, 《濟州文化의 再照明》, 도서출판 一念, 1986.
- 李家源, 《燕巖小說研究》, 乙酉文化社, 1965.
- , 《韓國漢文學史》, 普成文化社, 1988.
-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67.
- 李杜鉉·張壽根·李光奎, 《韓國民俗學概說》, 普成文化社, 1981.
- 李丙疇, 《韓國 漢詩의 理解》, 民音社, 1987.
- 李相澤·成賢慶 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
- 李佑成·林燮澤 驛編, 《李朝漢文短篇集(上)》, 一潮閣, 1973.
- , 《李朝漢文短篇集(中)》, 一潮閣, 1978.
- , 《李朝漢文短篇集(下)》, 一潮閣, 1978.
- 李仁福, 《韓國文學에 나타난 죽음意識의 史的 研究》, 悅話堂, 1987.
- 李昌龍, 《韓中詩의 比較文學的 研究》, 一志社, 1984.
- 李鉉淙, 《朝鮮前期對日本交涉史》, 韓國研究院, 1964.
- 張德順, 《韓國隨筆文學史》, 새문社, 1985.
- ,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 , 《韓國文學史》, 同和文化社, 1986.
-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0.
- 정병욱, 《한국고전의 재인식》, 弘盛社, 1979.
- 鄭炳昱 編著, 《時調文學事典》, 新丘文化社, 1982.
- 鄭柱東, 《古代小說論》, 螢雪出版社, 1970.
-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1974.
- , 《現代詩論》, 民衆書館, 1973.
-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知識產業社, 1978.
- ,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 曹喜雄, 《朝鮮後期文獻說話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1.

- 車溶柱 編, 《燕巖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84.
- 崔康賢, 《韓國古典隨筆講讀》, 高麗苑, 1983.
- ,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1982.
- 崔德源, 《多島海의 堂祭》, 學文社, 1989.
- , 《南道民俗考》, 삼성출판사, 1990.
- 崔常壽,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韓越學會, 1966.
- ,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84.
- 崔勝範, 《韓國隨筆文學研究》, 正音社, 1980.
- 崔載瑞, 《增補文學原論》, 信元圖書, 1978.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1.
- 《韓國文化史大系》I, 民族·國家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65.
- 韓相福 編,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3.
- 洪淳昶, 《韓日古代文化交渉史研究》, 乙酉文化社, 1974.
- 洪一植, 《韓國傳統文化試論》, 高麗大學校出版部, 1978.
- 姜銓燮,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하여”, 《韓國言語文學》第20輯, 韓國言語文學會, 1981.
- 高柄翊, “成宗朝 崔溥의 漂流와 漂海錄”, 《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4.
- , “李朝人의 外國觀”, 《白山學報》第8輯, 白山學會, 1970.
- 高在奐, “濟州島의 海洋俗談”, 《李佑成先生定年退任紀念國語國文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90.
- 金 坵, “濟州島 주변 海流에 관한 研究의 現在와 未來”, 《濟州島研究》第四輯, 濟州島研究會, 1987.
- 金柄夏, “崔溥와 하멜의 漂流에서 본 社會相과 意識構造”, 《문화비평》제5권 제1호, 亞韓學會, 1973.
- 金聖七, “燕行小攷”, 《歷史學報》第12輯, 歷史學會, 1960.
- 金秀宗, “Joseph Conrad 小說의 人間實存 問題”,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 金一根, “手記文學의 成立: 仁穆大妃幽閉述懷文”, 《文學思想》3, 文學思想社, 1973.
- , “漢文小說에서 한글小說에의 推移過程에 對하여”, 《국어국문학》46輯, 국어국문학회, 1969.
- 金泰能, “李光彬의 長崎島漂流와 그 氣風”, 《제주시》제2호, 제주시, 1966.
- , “金非衣 일행의 琉球漂流와 見聞”,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 , “旌義縣에 反淸漢商의 漂着과 그들에 대한 아국의 조치”, 《남제주》8, 남제주군, 1969.
- , “琉球와 濟州와의 關係”, 《제주도》39, 제주도, 1970.

- 金鉉龍, “祭文에 관한 研究”, 《文湖》3, 建國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64.
- 金華榮, “바다와 벗은 肉體의 結婚”, 《文學思想》48, 文學思想社, 1976.
- 朴魯淳, “「海遊歌」(一名 西遊歌)의 世界認識”, 《韓國學報》第六十四輯, 一志社, 1991.
- 朴晟義, “「樂府」研究”, 《高麗大學校六十周年紀念論文集》 人文科學篇, 高麗大學校, 1965.
- 朴熙秉, “「青邱野談」研究: 漢文短篇小說을 中心으로”, 《國文學研究》第52輯, 서울大學校大學院 國文學研究會, 1981.
- 成武慶, “耽羅居人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한 研究”, 《耽羅文化》第12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2.
- 徐庚林, “濟州島와 沖繩의 慣習法: 門中을 中心으로”, 《耽羅文化》第11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 蘇在英, “林悌의 〈南溟小乘〉考”, 《語文研究》제3권 제3호, 一潮閣, 1975.
-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濟州島를 中心으로”, 建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2.
- , “濟州風土錄과 風土記의 比較”, 《語文論志》第4·5輯, 忠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5.
- 梁鎮健, “濟州島와 沖繩의 傳統教育 比較”, 《耽羅文化》第11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 吳瑄錫, “漢文紀行研究: 張漢喆의 漂海錄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吳洪哲, “帆船 航海時代의 濟·京海路”, 《濟州島研究》第一輯, 濟州島研究會, 1984.
- 柳相一, “朝鮮後期 漢文短篇小說의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尹貴燮, “歌辭文學에 나타난 海洋과 島嶼”, 《同大語文》第二輯, 同德女子大學 國語國文學會, 1972.
- 尹致富, “林白湖의 〈南溟小乘〉攷”, 《耽羅文化》第7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8.
- , “金非衣 일행의 漂海錄 고찰”, 《覓南金一根教授定年紀念語文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91.
- 李康沃, “朝鮮後期野譚集 研究: 敘事體의 장르規定과 敘述視角類型設定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大學院 國文學研究會, 1982.
- 李京雨, “「於于野譚」研究”, 《國文學研究》第33輯, 서울大學校大學院 國文學研究會, 1976.
- 李東珪, “제주도의 일기 및 기후”, 《濟州島研究》第五輯, 濟州島研究會, 1988.
- 李石來, “古代小說에 미친 野談의 影響”, 《省谷論叢》第3輯, 省谷學術文化財團, 1972.
- 李承浩, “濟州島 海岸地域의 겨울철 바람에 관한 연구”, 《濟州島研究》第四輯, 濟州島

研究會，1987.

林笑澤，“18·9世紀 〈이야기꾼〉과 小說의 發達”，《韓國學論集》2，啓明大學校韓國學研究所，1975.

——，“漢文短篇 形成過程에서의 講談師：許生故事와 尹暎”，《創作과批評》통권49호，創作과批評社，1978

張德順，“漢文小說의 再認識”，《創作과 批評》통권31호，創作과批評社，1974.

鄭炳昱，“漂海錄 解題”，《人文科學》第六輯，延世大學校，1961.

曹圭益，“조선왕조실록 所載 시가작품 연구”，《韓國學報》第五十八輯，一志社，1990.

趙東一，“한국·중국·일본 ‘소설’의 개념”，《省谷論叢》第20輯，省谷學術文化財團，1989.

秦榮一，“濟州島·沖繩의 地域史에 관한 比較史 試論”，《耽羅文化》第11號，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1991.

崔康賢，“한국해양문학연구：주로 표해가를 중심으로”，《省谷論叢》第12輯，省谷學術文化財團，1981.

——，“미발표가사 ‘도화가’ 소고”，《高鳳》제25호，경희대학교，1981.

——，“한국 기행문학 연구：주로 조선시대 기행가사를 중심으로”，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81.

——，“漂海歌의 지은이를 살핌”，《語文論集》第23輯，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研究會，1982.

崔德源，“琉球·呂宋 漂流記”，《月刊朝鮮》，朝鮮日報社，1980. 12.

——，“文淳得의 漂海錄 研究”，《論文集》，第14輯，木浦海洋專門大學，1980.

崔來沃，“說話와 그 小說化過程에 대한 構造的 分析：특히 장자뫼傳說과 雍固執傳의 경우”，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1968.

崔常壽，“濟州島民의 安南표류”，《제주시》창간호，제주시，1966.

——，“韓國과 南方諸國의 關係①”，《月刊政友》，國會議員同友會，1989. 1.

玄吉彦，“野談의 文學的 意義와 性格：18·9세기 文獻野談에 대한 試考”，《韓國言語文學》第15輯，韓國言語文學會，1977.

玄容駿，“羅馬戲考”，《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1980.

3. 國外 論著

魯迅，《中國小說史》，丁來東·丁範鎮 共譯，錦文社，1964.

劉勰，《文心雕龍》，崔信浩 譯，玄岩社，1990.

石井民司，《日本漂流譚》，學齡館，明治二六年.

《完譯 日本書紀》，田溶新 譯，一志社，1990.

- 張漢喆，《漂海錄》，宋昌彬 譯，新幹社，1990。
- 眞境名安興，《沖繩教育史要》，沖繩書續販賣社，1965。
- 秋本吉郎 校注，《風土記》日本古典文學大系(2)，岩波書店，1979。
- 多和田眞一郎，“ハングル資料沖繩語(19世紀初)”，《沖繩文化研究》18，法政大學沖繩文化研究所，1992。
- 松原孝俊，“朝鮮への漂着と琉球への漂着：李朝時代のニフの着記録の紹介”，《文明のワロスワード》，博物館等建設推進九州會議，1984。
- Federick A. McKenzie, 《朝鮮의 悲劇》，金昌洙 譯，乙酉文化社，1984。
- Gaston Bachelard, 《물과 꿈》，李嘉林 譯，文藝出版社，1988。
- Hendrik Hamel, 《하멜漂流記》，李丙燾 譯，一潮閣，1989。
- , 《하멜漂流記》，金昌洙 譯，乙酉文化社，1984。
- James T. Callow & Robert J. Reilly, *Guide to American Literature from its Beginning through Walt Whitman*, Harper & Row, Publishers, Inc. , 1976。
- John Dewey, *Experience and Nature*, Open Court Publishing Co. , 1925。
- Maurice & Maralyn Bailey, 《베일리 夫婦 漂流記》，申福龍 譯，探求堂，1981。
- Mercia Eliade, 《聖과 俗》，李東夏 譯，학민사，1983。
- , 《神話와 現實》，李恩奉 譯，成均館大學校出版部，1985。
-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朝鮮見聞記》，柳尚熙 譯，博英社，1987。
- Philip Wheelwright, 《隱喩와 實在》，金泰玉 譯，文學과知性社，1982。
- Wilfred L. Guerin,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Harper & Row, 1966。

4. 總 類

- 權相老,《韓國地名沿革考》，東國文化社，1961。
- 《國朝文科榜目》，太學社(影印)，1988。
- 《國朝人物考》，서울大學校出版部(影印)，1992。
- 金舜東,《韓國故事大典》，回想社，1965。
- 萬姓大同譜發行所 編,《萬姓大同譜》，明文堂(影印)，1983。
- 서울大學校東亞研究所 編,《國語國文學大事典》，新丘文化社，1981。
- 朝鮮總督府中樞院,《朝鮮人名辭書》，圖書出版 民族文化(影印)，1983。
- 《中國古今地名大辭典》，景仁文化社(影印)，1984。
-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1980。
- 허용·박지홍 엮음,《국어국문학사전》，일지사，1971。